

제2차 양구군 동서평생학습도시포럼

글로벌 평생학습과 교육인문협력

2023년 05월 **19일** (금) 10:00 ~ 17:00

양구군 인문학 박물관

| 주최 |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BK21교육인문협력학과교육연구단

| 주관 |



다문화융합연구소

| 후원 |



P / R O G R A M

☐ 사회: 이한나 (강원대)

시간	구분	담당	내용	
10:30-10:40	사진촬영			
10:40-10:50	인사말	서흥원 양구군수		
10:50-11:30	기조발표 1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글로벌 평생학습의 방향	
11:30-12:10	기조발표 2	유강하 (강원대 BK21교육연구단 단장)	한 공동체의 흥성과 쇠락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12:10-13:30	점심식사			
13:30-14:00	Session 1 사회: 장현정 (인하대)	연구발표 1	황해영 (인하대) 가족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14:00-14:30		연구발표 2	이소정 (강원대)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14:30-14:40		토론 1	이한나 (강원대)	연구발표 1 토론
14:40-14:50			오영섭 (인하대)	연구발표 2 토론
14:50-15:00			대중종합토론	
15:00-15:10	휴식			
15:10-15:40	Session 2 사회: 권요셉 (인하대)	연구발표 3	김도경 (인하대) 양구군 고령자 치매예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개발	
15:40-16:10		연구발표 4	고혜진 (강원대)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16:10-16:20		토론 2	조성미 (강원대)	연구발표 3 토론
16:20-16:30			김진선 (인하대)	연구발표 4 토론
16:30-16:40			대중종합토론	
16:40-16:50	폐회사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C / O N T E N T S

인사말		서흥원 양구군수 / 01
기조발표 1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07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글로벌 평생학습의 방향
기조발표 2		유강하 (강원대 BK21교육연구단 단장) / 21 한 공동체의 흥성과 쇠락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Session 1	연구발표 1	황해영 (인하대) / 37 가족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연구발표 2	이소정 (강원대) / 49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토론 1	이한나 (강원대) 연구발표 1 토론 / 65
오영섭 (인하대) 연구발표 2 토론 / 67		
Session 2	연구발표 3	김도경 (인하대) / 73 양구군 고령자 치매예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발표 4	고혜진 (강원대) / 89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토론 2	조성미 (강원대) 연구발표 3 토론 / 99
김진선 (인하대) 연구발표 4 토론 / 101		



인사말

서 흥 원 양구군수

오늘, “글로벌 평생학습과 교육인문협력”이라는 주제로 「양구군 동서 평생학습도시 포럼」이 개최됨을 온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 개최를 준비해 주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김영순 소장님과 강원대 교육인문 협력학과 교육연구단 유강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주민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자, 열린 학습공간 제공, 평생학습 정보공유,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양구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인하대와 강원대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다문화사회, 인문교육 등의 분야에서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주목할만한 성과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수한 학술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군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평생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인문협력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맥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강 연

1.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글로컬

평생학습의 방향

김영순 BK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인하대

2. 한 마을의 성쇠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유강하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강원대

기/조/강/연①

김 영 순 BK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인하대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글로컬 평생학습의 방향



2차 동서평생교육포럼(2023.05.19, 양구군청)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글로벌 평생학습의 방향"

김 영 순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인하대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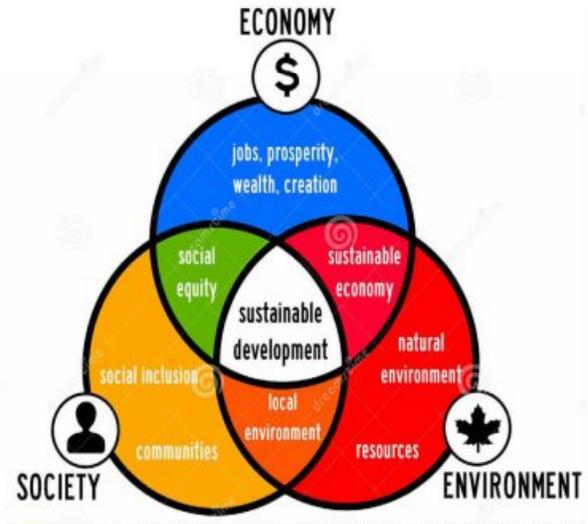
(사)공존과이음 이사장

ESG의 개념(1)



지속가능한 사회

-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능성 즉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사회를 말함.
-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함.



ESG 평가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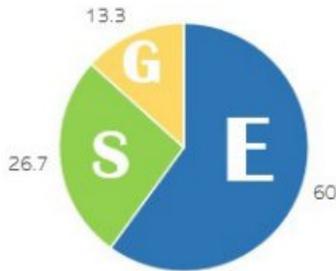
ESG 수준 어떻게 평가하나?

ESG 평가 구성 요소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 · 방침 • 오염 방지 • 화학물질 관리 • 기후변화 완화 • 자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대화와 협력 • 근무 조건 • 근로자 차별 금지 • 공정경쟁 • 가치사슬 책임 • 지역사회 이슈 •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독립성 · 역량 • 특수관계자 거래 • 지배구조 건전성 • 리스크 관리 능력 • 보상의 적절성 • 배당의 적정성

ESG 평가지표



글로벌 기준 ESG 중요도



ESG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

지자체 ESG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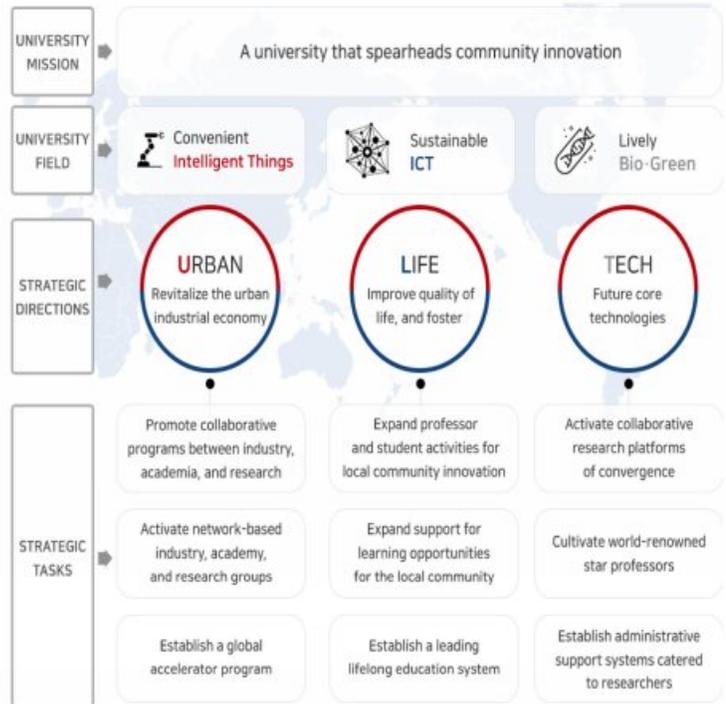
< 종합등급 >

등급	기초지방자치단체명
S (최우수)	-
A (우수)	▲서울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 ▲부산 기장군, 수영구, 금정구 ▲대구 달서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울주군 ▲경기 안양시 ▲강원 원주시, 양구군 ▲충남 계룡시, 홍성군, 서산시,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 산청군 ▲경북 성주군, 포항시 ▲전남 해남군, 화순군, 함평군, 곡성군, 보성군, 담양군 ▲전북 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총 41개 시군구)
B (양호)	▲서울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 광진구, 도봉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중구, 마포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영도구, 북구, 남구, 사하구, 서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중구 ▲대구 북구, 동구, 달서군, 중구, 남구 ▲인천 동구, 계양구, 서구, 용진군,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 중구, 미추홀구 ▲광주 북구, 광산구, 동구 ▲대전 중구, 동구 ▲울산 북구, 중구, 동구 ▲경기 의왕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고양시, 양평군,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영주시, 하남시, 용인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가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통영시,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삼척시, 동해시, 평창군, 철원군, 영월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정선군, 화천군,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충남 아산시,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태안군 ▲충북 영동군, 보은군, 진천군, 청주시, 증평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충주시 ▲경남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밀양시, 함천군, 창녕군,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함안군, 통영시, 거창군, 함양군, 고성군, 사천시 ▲경북 예천군, 영양군, 상주시, 청도군, 의성군, 영주시, 칠곡군, 정선군, 안동시, 고령군, 문경시, 울릉군, 봉화군, 김천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울진군, 구미시, 군위군, 영덕군 ▲전남 진도군, 구례군, 순천시, 신안군, 나주시, 영광군, 광양시, 강진군, 여수시, 장흥군, 완도군,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목포시, 고흥군 ▲전북 완주군, 남원시, 부안군,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총 178개 시군구)
C (보통)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 평택시 ▲강원 양양군 ▲충남 당진시 (총 7개 시군구)
D (미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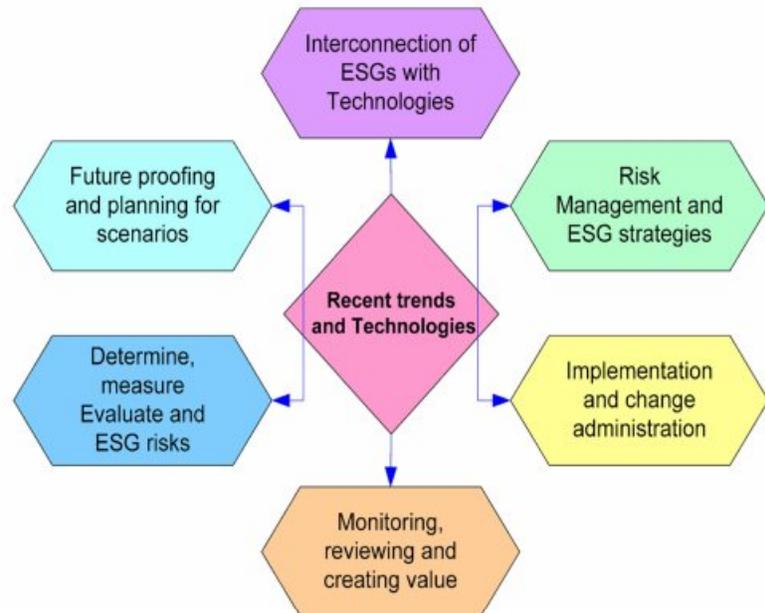
지속가능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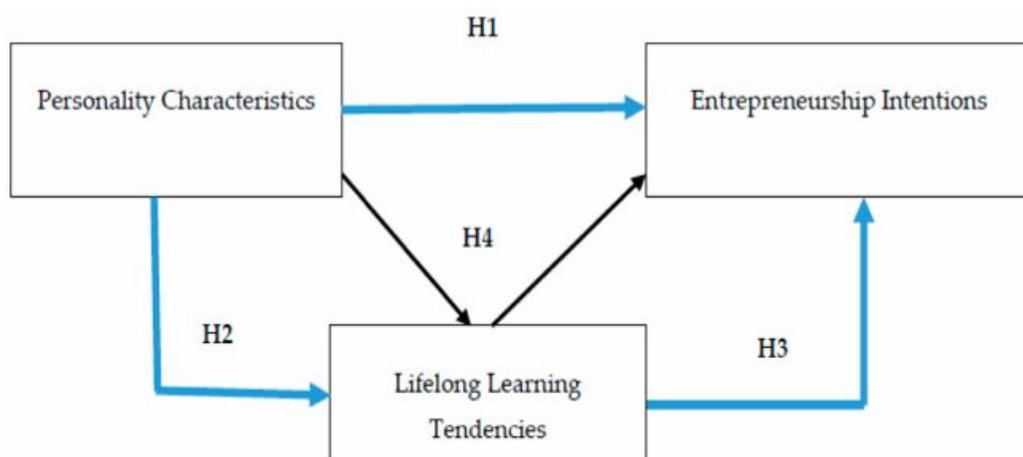
지자체-대학 연계 지속가능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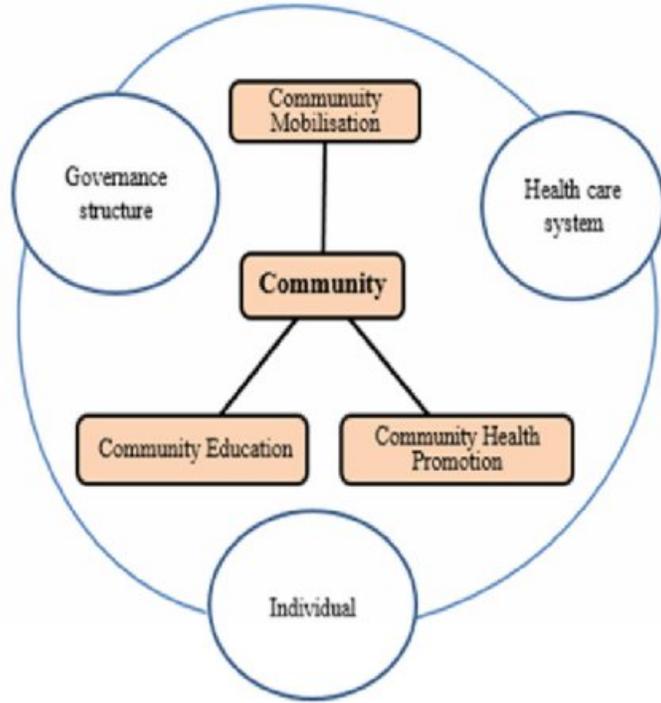
지자체-대학 연계 개념도



글로벌 평생학습 체계(1)



글로벌 평생학습 체계(2)



글로벌 평생학습 체계(3)



국토의 경중양 양구군

양구의 문화다양성(1)

펀치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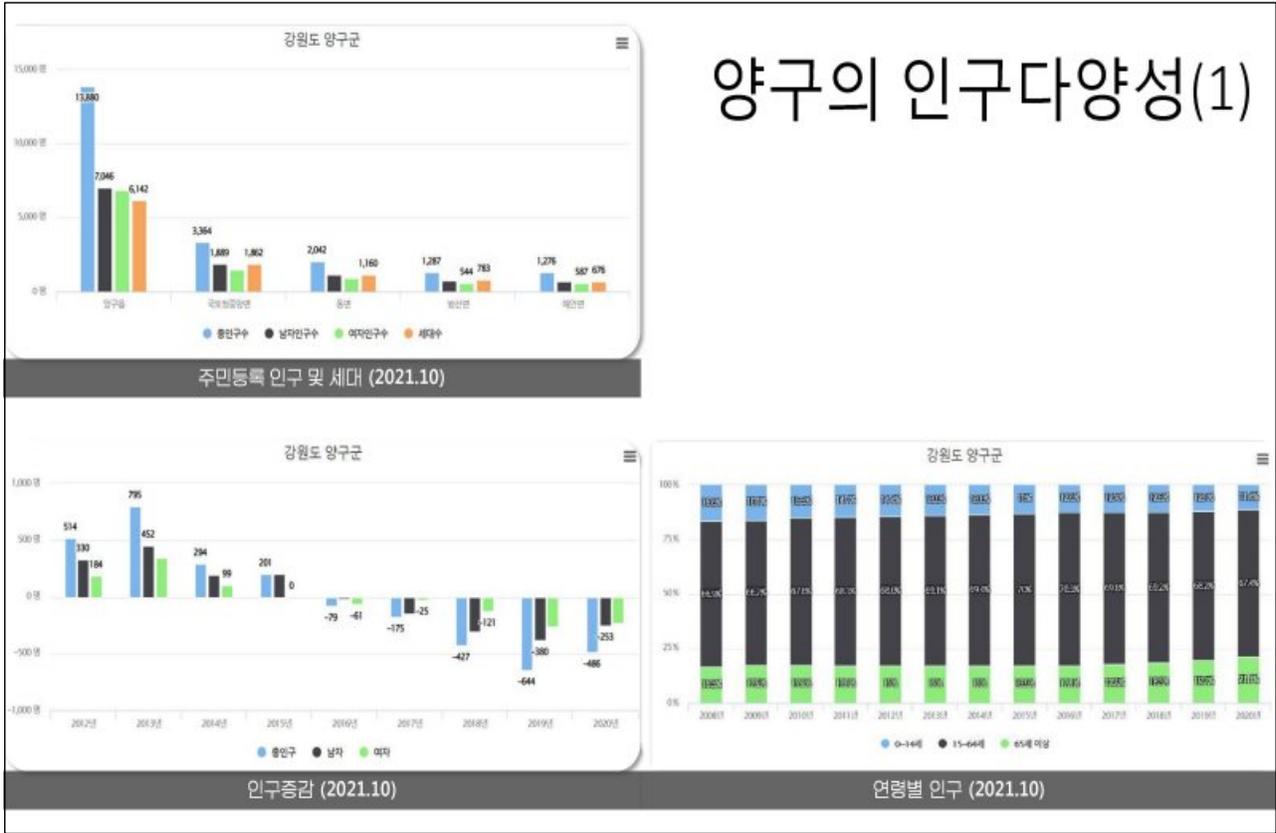
살구꽃

13

양구의 문화 다양성(2)

1. 박수근 미술관
2. 사명산
3. 두타연
4. 국토정중앙 천문대

양구의 인구다양성(1)



양구의 인구다양성(2)

인구 대비 군인수 현황

구분	인구수(명)	군인수(명)	인구수 대비 비율
강원도	1,535,530	156,882	10.2%
철원군	43,932	27,082	61.6%
화천군	24,408	27,006	111.0%
양구군	22,027	15,573	70.7%
인제군	31,835	21,488	67.5%
고성군	26,924	12,985	48.2%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 ✓ 강원도내 접경지역 거주 군인 10만 4134명
- ✓ 화천군에 이어 군인 비율이 2번째로 높음

시군구별	2020		
	2) 전체 혼인 건수 (건)	다문화 혼인 건수 (건)	다문화 혼인 비율 (%)
전국	213,502	16,177	7.6
서울특별시	45,709	3,482	7.6
부산광역시	12,292	694	5.6
대구광역시	8,455	506	6
인천광역시	11,798	979	8.3
광주광역시	5,626	355	6
대전광역시	6,024	341	6
울산광역시	4,758	295	6.2
서울특별시자치시	1,867	66	3.5
경기도	58,900	4,771	8.1
강원도	5,923	416	7
양구군	114	9	7.9
충청북도	6,747	519	7.7
충청남도	8,605	773	9
전라북도	6,142	530	8.6
전라남도	6,417	519	8.1
경상북도	9,159	746	8.1
경상남도	12,100	879	7
제주특별자치도	3,024	266	8.8
국외	56	40	71.4

양구의 인구다양성(2)

행정구역(시군구/별도)	2019			합계 (총)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총인구 (명)	남	여	총인구 (명)	남	여	총인구 (명)	남	여	총인구 (명)	남	여	총인구 (명)	남	여
양구군	51,829,136	25,915,207	25,913,929	2,146,748	1,112,952	1,033,796	1,004,196	1,895,643	942,619	752,024	405,287	398,942	96,445	173,795	31,641
소계	3,596,195	4,843,739	4,598,482	443,282	303,855	239,427	366,454	172,990	192,064	63,526	38,678	24,899	23,651	31,841	7,805
소계	3,943,016	1,638,792	1,710,285	22,729	36,428	36,329	54,914	28,474	25,086	12,711	11,218	1,493	1,430	7,365	5,474
소계	2,413,700	1,198,271	1,215,429	50,590	24,398	26,192	27,389	13,645	11,752	9,026	4,702	1,324	1,324	5,474	3,723
소계	2,945,454	1,471,954	1,469,200	130,985	66,959	64,037	93,212	54,698	44,524	22,480	18,119	4,361	4,361	11,711	8,991
소계	1,477,573	724,142	753,431	40,480	13,943	26,537	30,573	16,308	14,255	6,262	5,126	1,136	1,136	2,556	1,778
소계	1,889,425	744,343	744,026	22,081	11,898	10,175	22,505	10,407	10,431	2,898	2,862	366	366	1,000	634
소계	1,135,423	595,978	540,446	35,746	13,112	16,634	36,095	15,947	11,088	6,987	5,919	1,068	1,068	3,441	2,367
소계	293,933	177,939	175,994	3,912	3,189	4,129	7,244	4,298	2,696	2,020	1,697	323	323	978	605
소계	13,511,676	6,828,987	6,682,689	715,311	388,781	326,530	983,482	538,443	544,939	176,517	131,867	44,650	44,650	102,917	78,267
소계	1,521,763	763,674	758,089	36,349	17,857	18,492	24,054	12,943	11,811	5,930	4,820	1,110	1,110	3,307	2,197
양구군	21,317	11,284	10,033	682	228	254	256	128	128	225	85	88	27	27	25
소계	1,622,080	833,813	796,269	72,082	41,951	30,131	57,084	34,652	22,431	10,099	15,341	3,051	3,051	5,670	4,620
소계	2,176,636	1,112,175	1,099,061	122,026	62,897	59,429	93,166	58,706	40,428	21,406	25,416	5,998	5,998	13,922	11,821

외국인 국적별 등록현황



양구의 평생학습도시 전략(1)

전략
목표

양구 전역의
평생학습 캠퍼스화

주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

군(軍)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실행
과제

- 버드나무 학습센터 구축
- 국토정중앙 테마 중심 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 평생학습 시설 운영체제 구축
- 근거리 학습망 구축운영

-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체제 확립
-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체계구축
- 양구다운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전달체계 및 현장지원 강화

- 군(軍)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군(軍)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 군장병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지원
- DMZ평화로 가는 길 학습투어

- 평생학습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평생학습 파트너십 구축
- 양구군 평생교육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평생학습 정보 및 홍보 운영체제 구축
- 비대면 평생학습 환경조성

양구의 평생학습도시 전략(2)

목표 1

양구 전역의 평생학습 캠퍼스화

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 평생학습 시설이 낙후되어 있음. 양구의 각종 시설을 평생학습시설화하여 양구군민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목표 2

주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

양구군민, 강사, 군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자발적 학습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양구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

목표 3

군(軍)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군 장병들이 평화로 가는 길목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제대 후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목표 4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학습도시 구축은 시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구축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과 함께 학습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양구의 평생학습도시 전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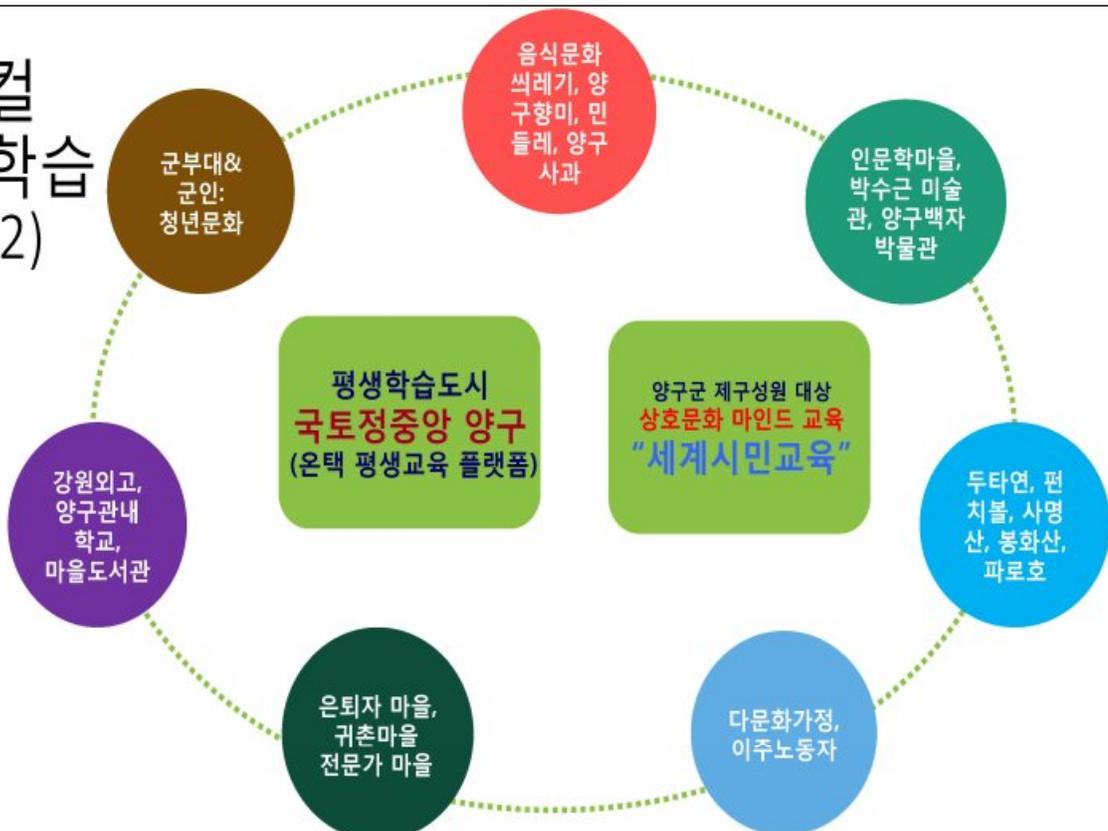
-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 하는 모델
- **국가, 도, 시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 개발
- **양구군의 유관부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모델 도출
- **주민이 주도하고 이해관계자**가 지원하는 생활 속 평생학습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1)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2)



유 강 하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단장 | 강원대

한 마을의 성쇠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한 마을의 성쇠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

유강하(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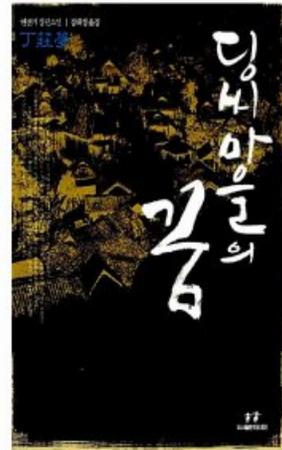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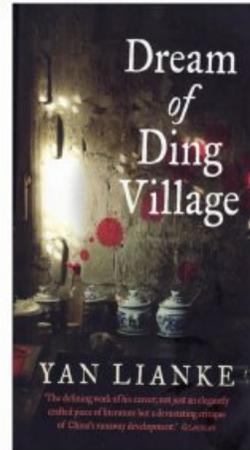
엔렌커



- “날이 갈수록 나는 진정한 말이란 인간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말은 그저 육체와 생명의 살아있는 교류 및 전달에 그치고 만다. 그저 일종의 소리일 뿐인 것이다.”
- “평소에 말하지 않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미소를 짓게 하고, 좀더 깊은 침묵과 한숨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작가의 일, ‘진실’을 보는 것”

- 제1권
- 제2권
- 제3권
- 제4권
- 제5권
- 제6권
- 제7권
- 제8권

- 제1권
 - 술 맡은 관원장의 꿈
 - 떡 맡은 관원장의 꿈
 - 파라오의 첫 번째 꿈
 - 파라오의 두 번째 꿈



꿈과 현실: 진실과 사실



“열병은 피를 사랑했고, 할아버지는 꿈을 사랑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꿈을 꾸었다.
사흘 내내 할아버지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p.18)

덩씨 마을의 흥성

- **정부의 시책:** “혈액공급촌” 개발(교육국장과 당 간부의 방문)
- 어느 해 봄, 현 교육국장이 마을에 매혈을 독려하기 위해 간부와 함께 마을을 방문
- 촌장인 리싼런은 매혈에 동원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함
- 보름 뒤, 교육국장이 다시 마을을 찾아 40년 동안 촌장이었던 리싼런을 쫓아냄.

덩씨 마을의 흥성

- 교육국장: “교육국에서는 쉰 개 마을을 혈액공급촌으로 동원하려 하는데 덩씨 마을의 경우, 덩 선생님(할아버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단 말입니까?”
- 교육국장: “가난뱅이로 살지 부자로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 여러분의 덩씨 마을은 현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정말 형편없이 가난하지요.(.....) 다른 현들은 일찌감치 미친 듯이 피를 팔아 마을에서 한 채 한 채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덩씨 마을의 흥성

- “우리 집은 마을 남쪽의 신시가지에 있었다.집에 돈이 있고 새집을 지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을에서 나와 신시가지에 정부의 규획에 따라 이층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건물에는 온통 흰색 세라믹 타일을 붙이고 건물을 둘러싼 담장은 전부 기계로 찍은 붉은 벽돌로 쌓을 수 있었다. 세라믹 타일은 일 년 사계절 내내 하얀 맛을 냈고 기계로 찍어낸 벽돌은 일 년 사계절 내내 붉은 맛을 냈다. 그 맛이 한 데 뒤섞여 희고 붉은 맛으로 변하면서 황금빛 유행맛이 났다.” (pp.31-32)

덩씨 마을의 흥성

- 신시가지의 “이층집”과 “삼층집”**
- 신시가지에는 다 합쳐 스무 가구 남짓 살고 있었다. 이 스무 가구 남짓한 집안의 주인들은 과거에 모두 피를 파는 데 앞장섰던 피 우두머리들이었다. 피 우두머리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신시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 신시가지에 살았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생겨났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가장 먼저 피 우두머리가 되었다. 피의 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집은 신시가지 한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층집이 아닌 삼층집에 살게 되었다. 정부의 건설 규정에 따르면 누구나 이층집 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도 우리 집은 삼층집을 지었다. 남들이 삼층집을 지으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했지만, 우리가 삼층집을 지을 때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p.32)

덩씨 마을의 흥성

■ 관공묘의 파괴

- 마을 남쪽으로 한 리 반쯤 되는 곳에 원래 관공묘가 하나 있었다. 학교는 바로 그 묘당 곁체에 있고, 관공은 본채 안에 모셔져 있었다. 덩씨 마을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모두들 묘당 본체에 향을 올렸다. 수십 년 동안 향을 올린 덕분인지 결국 피를 팔아 돈을 벌게 되자 곧바로 묘당을 허물었다. 관공을 믿지 않고 매혈을 믿게 되었다. (pp.31-32)



덩씨 마을의 쇠망

- 덩씨 마을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인구가 다 합쳐서 팔백 명도 안 되고 전체 가구 수가 이백 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이 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었다. (.....) 마을에서 관을 짜는 목공들은 톱과 도끼를 서너 개나 갈아야 했다. (.....)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다. (.....) 죽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 마을 안에 관을 짤 수 있는 오동나무 목재는 이미 다 소진되었다. (“제 2권“ pp.24-25)

덩씨 마을의 쇠망

■ 더 좋은 관에 대한 열망

-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인들이 관의 나무판 하나 하나에 새겨진 다양한 그림들 속에 황금용(金龍)과 은봉(銀鳳)을 조각하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극락세계도를 조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속에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각종 가전제품과 기계를 새겨 넣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들 옆에는 고생장연한 건물을 하나 새기고 있었다 건물 위의 기와는 고대의 반원형 기와였고 기와 바로 아래의 문설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pp.160-161)

음혼(陰婚: 영혼결혼식)

■ 풍요로운 사후 세계의 삶에 대한 욕망

- “후이 형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세요? 후이 형님은 상부에서 관을 지급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전체에서 열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짝지어 주는 일도 관장하고 있어요. 한 쌍을 맺어 줄 때마다 음혼비(陰婚費) 명목으로 이백 위안 씩 받고 있다고요.”(p.388)

음혼(陰婚: 영혼결혼식)

■ 음혼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망

- “아버지는 내게 음친을 맺어주려 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구한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름은 링즈였다. 내 누나뻘 되는 셈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인데다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켰다. 사흘이 멀다 하고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발작을 일으켜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것이었다. 이번에 음친을 맺게 된 그녀는 결혼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여자 혼령들 가운데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녀를 나와 맺어주려 하는 것이었다.”(p.417)
- “정말로 샤오창[나, 손주]에게 음혼을 치러줄 생각이냐?”
- “신 시가지 사람이예요. 현장님 따님이지요. 그 애 아버지가 현장인데 그 집에서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덩씨 마을의 쇠망

■ 지상의 천국에 건축되는 묘소

- “아버지는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소리쳐 말했다.저는 곧 현장(縣張)과 함께 웨이현, 둥징, 성도를 잇는 이 삼각지대의 정중앙인 황허 고도에 오천 무의 땅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다름 아니라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매정할 수 있는 땅입니다. 풍수지리에 맞는 보물 같은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오천 무의 능원 안에 있는 이백 무의 땅에는 황허의 물줄기가 지나고 있고 베이땅의 산마루를 등지고 있어 최상급의 묘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덩후이가 상부 사람이 되었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쫓겨우나 항저우에서 태어나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기필코 허난의 베이밍산에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겁니다.”(pp.442-443)

제8권: 다시, "꿈"

- 다행히 그날 밤, 또 비가 내렸다. 쏟아지는 것 같은 소나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드넓게 펼쳐진 평원 위에서 한 여인이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버드나무 가지에 진흙을 묻혀 높이 흔들고 있었다. 한 번 흔들자 땅에 수많은 진흙 인간들이 생겨났다. 다시 한번 진흙을 묻혀 흔들자 또다시 땅 위에 수천 수백의 진흙 인간이 생겨났다. 쉬지 않고 진흙을 묻혀, 수지 않고 흔들어들었다. 땅 위에 온통 진흙 인간들이 펼쳐 펼쳐 뛰고 있었다. 진흙 인간은 비 오는 땅에 물방울만큼이나 많았다. 할아버지는 새롭게 펼쳐 펼쳐 뛰기 시작하는 평원을 보았다. 새롭게 펼쳐 펼쳐 뛰는 세상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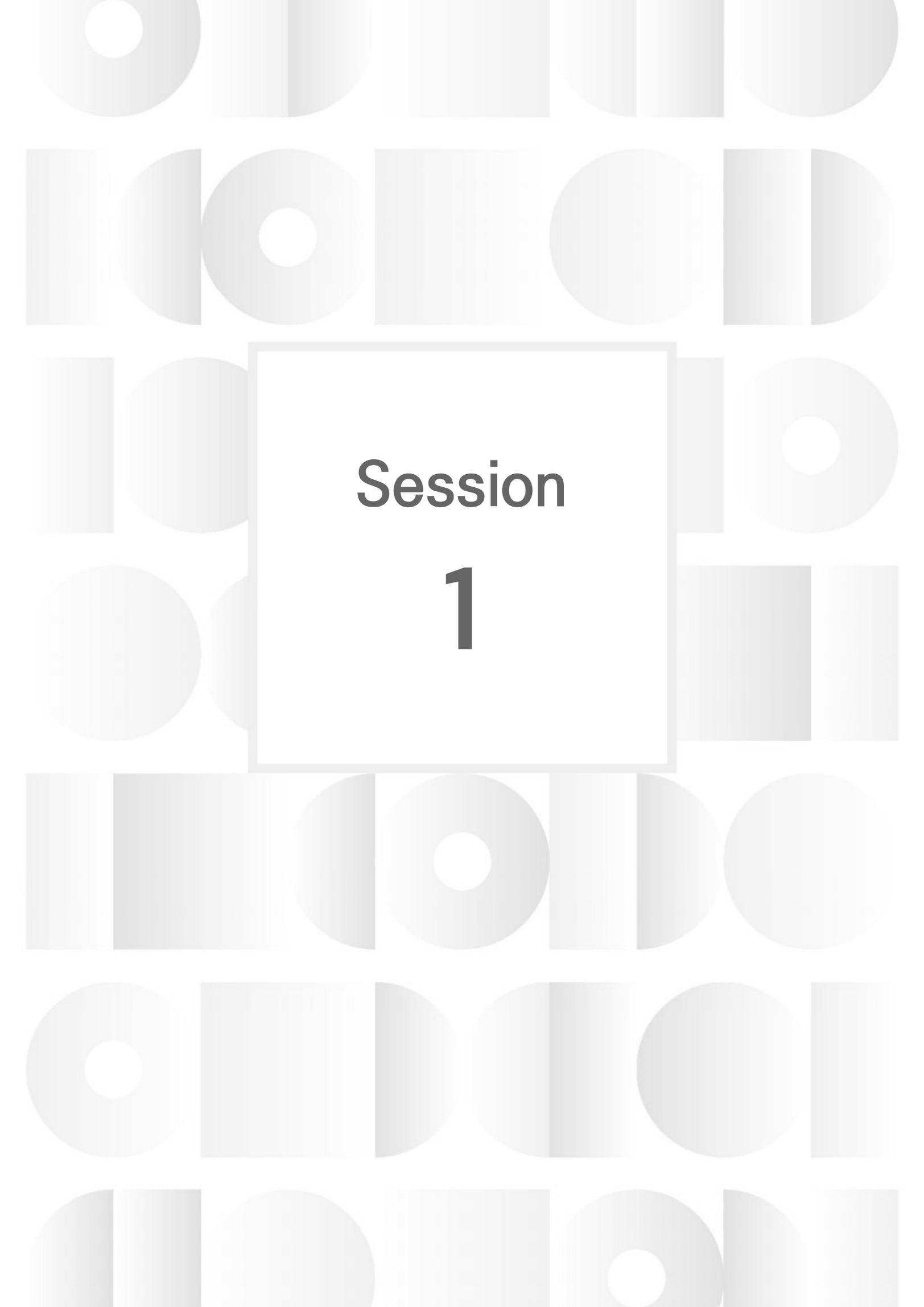
덩씨 마을의 흥망성쇠

- 물질적 풍요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매혈(정부기관, 적극적 매혈 권장, 이웃 마을과 경쟁)
- 마을 사람들의 사망: 덩씨 할아버지, 아들에게 "개두" 요구.
- 마을에는 이층집과 삼층집이 들어섬(욕망)
- 덩후이(피의 왕)의 외아들 덩창이 독살됨, 덩후이의 동생은 열병으로 사망
- 덩후이, 관을 팔아 부를 축적
- 덩후이, 음혼 주선비로 부를 축적(덩창의 음혼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 욕망)
- 덩후이, 묘지를 팔아 부를 축적할 계획
- 덩후이, 살해됨.

덩씨 마을의 흥망성쇠: 현실과 꿈

- 제1권: 성경 속의 꿈
- 제2-6권: 현실 vs. 할아버지의 꿈(보다 선명한 현실)
-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현실을 역설적으로 더욱 명징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꿈, 환상, 상상력'
- 건강한 (마을)공동체 구축이라는 현실적 목표와 '꿈, 환상, 상상력, 성찰, 감성'의 인문학적 접근
- 제8권: 할아버지의 꿈(신화, 새로운 가능성)

Thank you!



Session

1

Session 1

**연구주제 1. 가족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황해영 | 인하대**

**연구주제 2.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소정 | 강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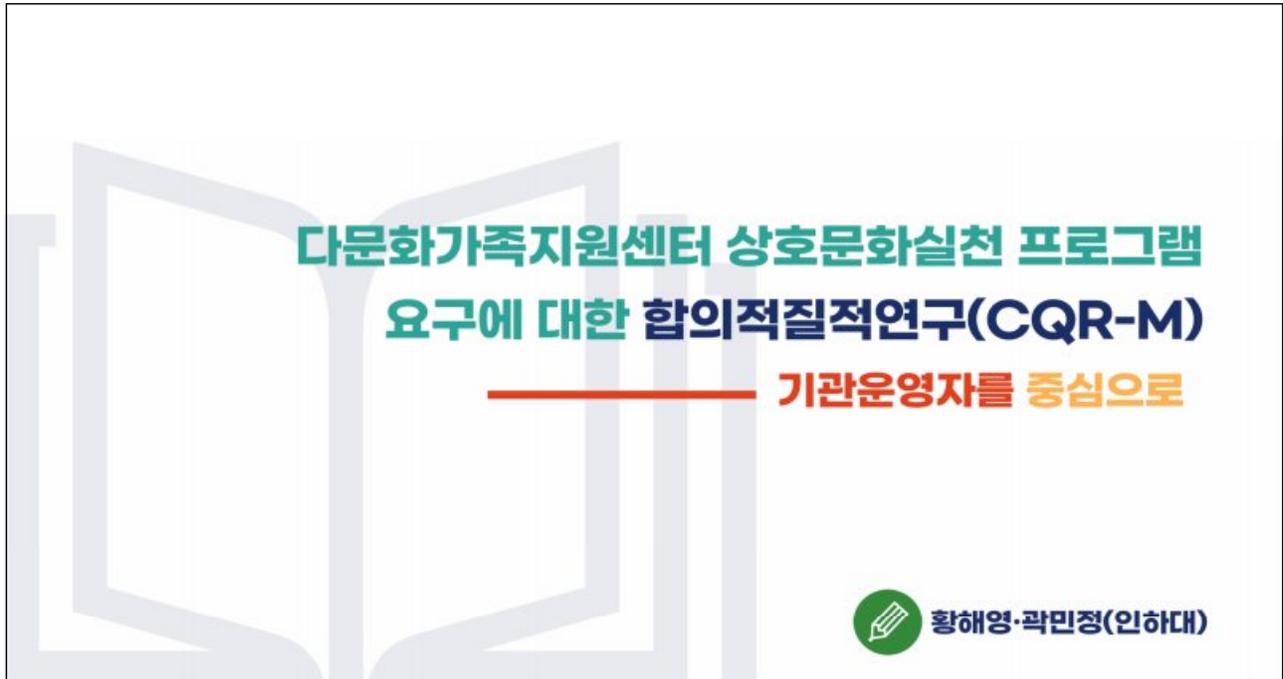
토 론 1. 이한나 | 강원대

토 론 2. 오영섭 | 인하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CQR-M): 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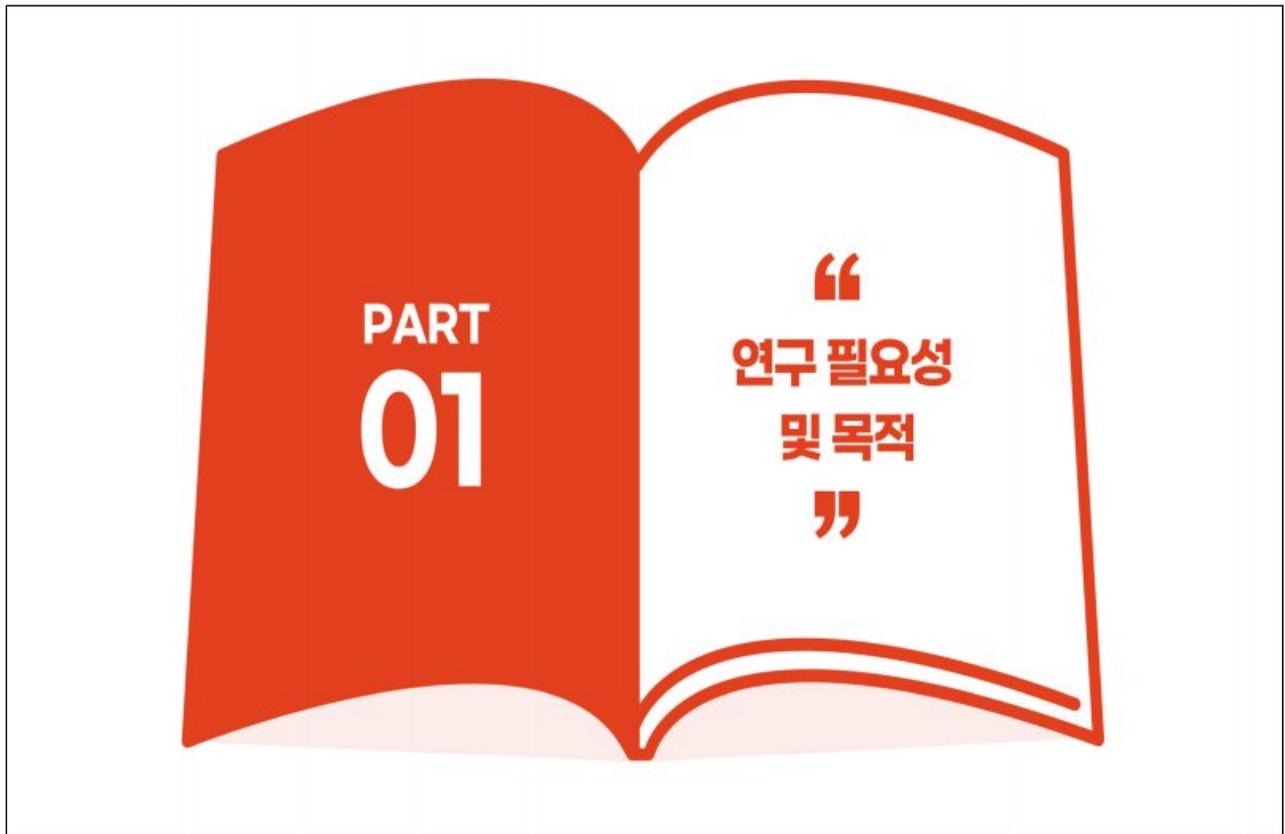
황해영**, 곽민정***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2175)"

**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PART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하대학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국내 이민인구의 증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국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체계를 구성해왔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로 총괄업무를 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전국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전달체계 마련
2023년 기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센터) 2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로 총 231개

PART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하대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문제점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부처별 사업이 조정 없이 중복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특정 사업에 집중되어 중복수혜자가 발생하기도 하며,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의 경우에는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유진희, 2020)

문제점 2

관 주도식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각 지역의 특성 및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상이한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김혜미, 2013)

PART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하대학교



기관운영자

특징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자는 정부정책과 이주외국인 사이의 중간매개자 및 소통자로서 다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 및 전달(강기정 외, 2011)

특징 2

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정책과 운영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 1

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년 이상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는 80% 이상(여성가족부, 2022)

특징 2

기존의 한국어 프로그램으로는 변화된 결혼이민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할 때 (김선정, 강현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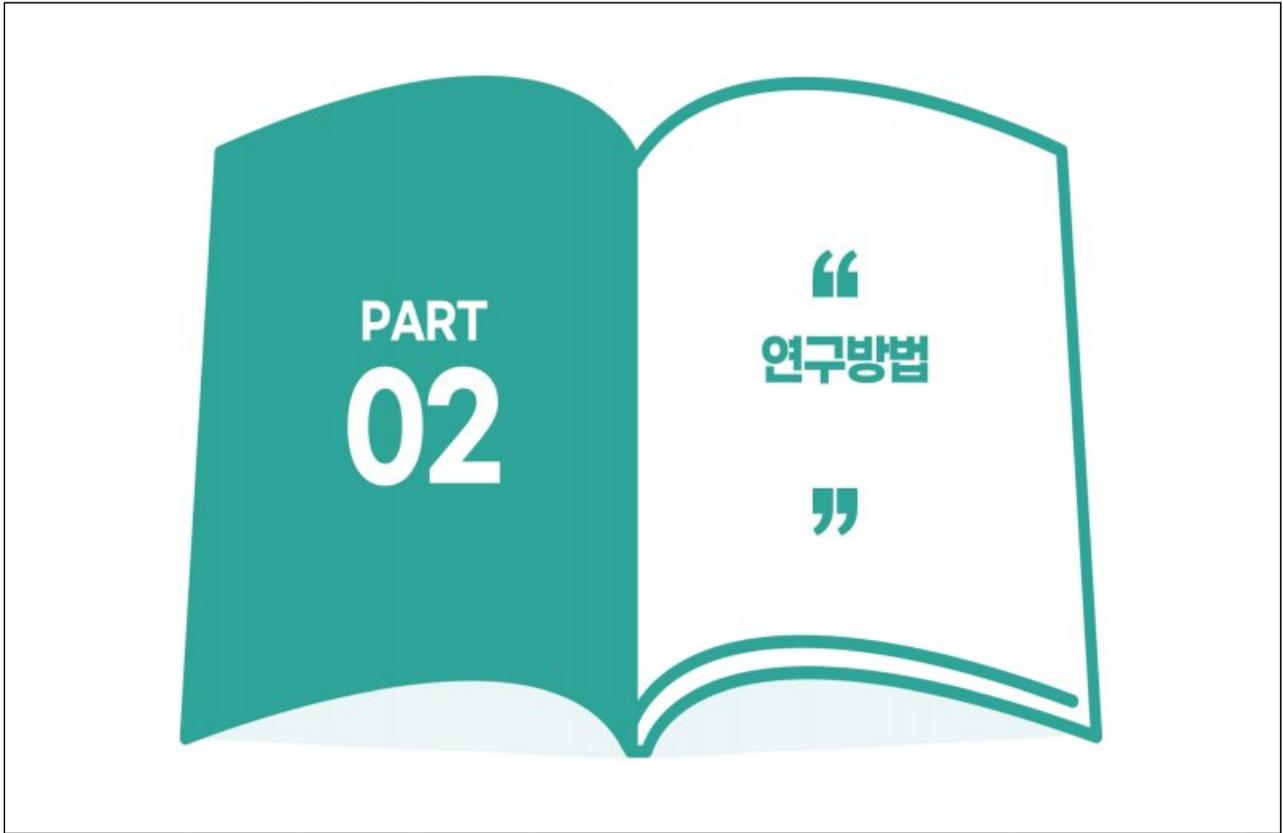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두 화자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 (De Carlo, 2011)

실천

이주민과 가장 밀착하여 접촉하고, 상호문화 실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적용을 넘어선 공존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함



PART
02

연구방법

인하대학교

자료수집

온라인설문지

개방형 질문

1. 프로그램 운영 실태
2.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연구참여자

가족센터 기관운영자

가족센터 기관 운영자(센터장, 팀장, 팀원, 통번역사, 한국어강사, 방문지도사, 상담사, 언어치료사) 113명의 설문조사 결과자료

자료분석

CQR-M

간단한 데이터를 합의팀의 합의를 사용하여 범주에 직접 코딩

새롭고 기대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현상을 탐색하는 효과적인 연구방법

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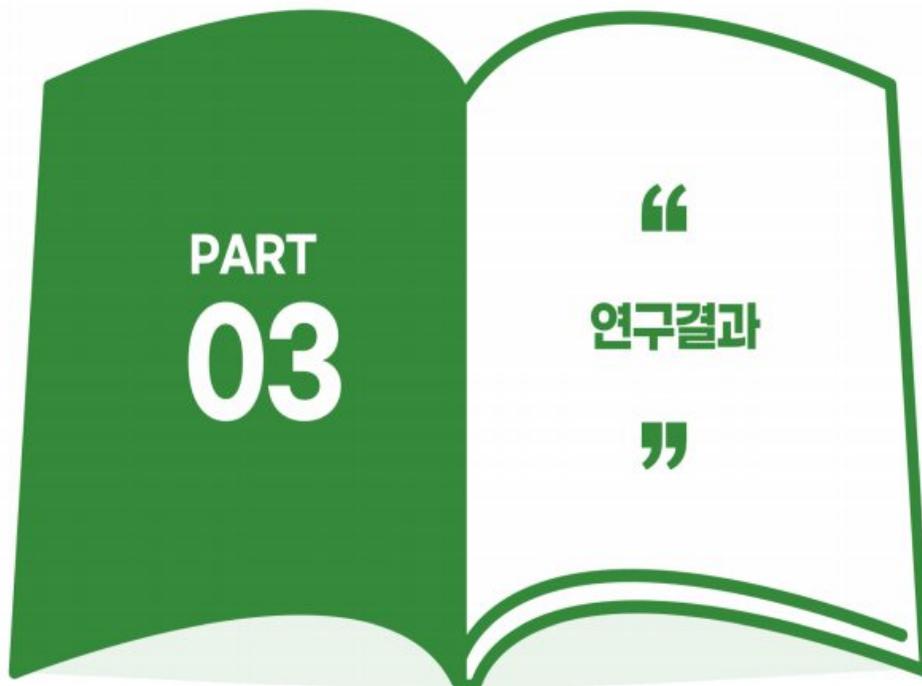
공동연구

합의팀: 공동연구진 4명, 교육학석사 1인

감수팀: 2인

<표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여	103	91.2
	남	10	8.8
국적	한국	98	86.7
	외국	15	13.3
근무기간	1년 미만	18	15.9
	1-5년	59	52.3
	5년 이상	36	31.9
지역	인천	55	49
	서울	23	20
	충청	10	9
	경기	9	8
	기타지역	18	16





PART
03
연구결과
인하대학교

<표2> 인권교육 프로그램 경험

하위영역	범주	빈도	퍼센트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있음	84	75.7
	사용자 인권교육(대상의 확대)의 필요성	101	90.9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권교육(내용의 구체성)의 필요성	27	24.3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없음	27	24.3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낌	8	7.2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함	64	75.7
	인권에 대한 무의식적인 오류 수정에 도움	34	30.4
	인권관련 현안 주제를 다루어 주기에 도움	23	20.5
	평범한 내용과 현장에 맞지 않아 교육의미를 찾을 수 없음	14	12.5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인권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개념 및 중요성 교육	40	36.1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폭력, 차별, 괴롭힘 등)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적용	36	32.0
	인권실천(상호이해, 경계지킴, 편견, 개선, 배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26	23.2

PART 03 연구결과 인하대학교

<표3> 문화교육 프로그램 경험

하위영역	범주	빈도	퍼센트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문화교육 업무에 참여한적 있다	65	58.0
	문화교육 업무에 참여한적 없다	47	42.0
	서로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필요	104	92.8
	현재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2	46.5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핍되는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 한국사회문화 습득에 도움이 된다.	33	29.5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차별, 편견,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9	25.9
	상호소통 상호이해 친목도모 정보교류 등 상호소통에 유익	21	18.8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재정 지원을 통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58	51.8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8	33.9
	한국문화, 외국문화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37	33.0
	답사, 체험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함	11	9.8
	가족프로그램이 필요함	1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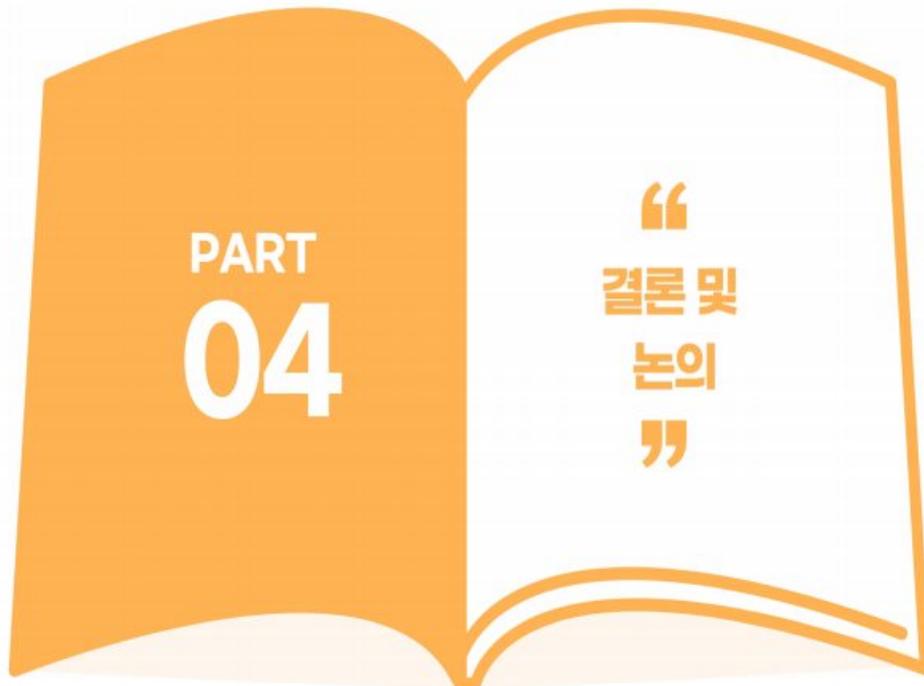
PART 03 연구결과 인하대학교

<표3> 소통프로그램 경험

하위영역	범주	빈도	퍼센트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이주민 대상의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있음	50	44.6
	이주민 대상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함	104	92.9
	현재 진행되는 상호문화 프로그램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58	51.8
	이주민들의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 필요함	2	1.8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못 느낌	9	8.0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의 어려움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58	51.8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부족	47	42.0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	45	40.2
	상호문화소통 관련 역량있는 전문가 부족	32	28.6
	프로그램에 상호문화소통에 대한 실제적 내용 부족	29	25.9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상호문화소통 이해를 위한 교육(문화다양성, 시민성함양, 차별, 편견 등)	53	47.3
	상호문화소통 관련 활동(문화체험, 탐방, 외국문화 배우기 등)	29	25.9
	기관운영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	13	11.6
	다양한 기관사용자들(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같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 구성원 등)이 함께 참여	10	8.9

<표4> 복지 프로그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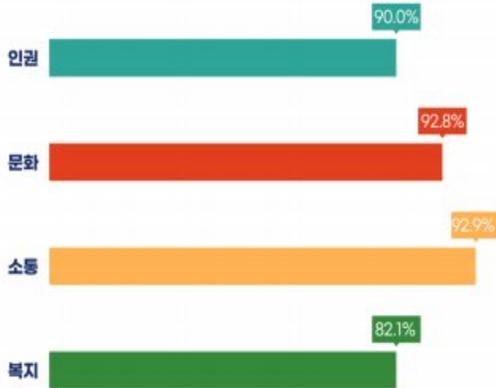
범주	내용	빈도	퍼센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가족센터 복지프로그램 운영업무에 참여한적 있다.	61	54.5
	가족센터에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2	82.1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경제, 정서, 취업, 적응, 정보 부족)	41	44.1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내용이 딱히 없다(잘 운영되고 있고, 충분하기에)	38	40.9
	복지프로그램 대상의 다양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용의 다양화	27	29.0
	중복수혜, 이벤트성, 지원예산의 부족 등을 한계점이 있음	19	20.4
	이주민 대상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	14	15.1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5	5.4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법률 상식 교육, 다문화 교육 자격증 등 취업 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	27	29.0
	없을 또는 모름 그리고 미기재	26	28.0
	경제적 지원으로 취업 지원, 후원 물품에 대한 요구	16	17.2
	지식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인 복지, 법률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음	14	15.1
	대상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취약가정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	11	11.8



PART 04

결론 및 논의

영역별 프로그램 필요성



결론

가족센터 기관 운영자들은 기관사용자를 위한 상호문화실천 프로그램 4가지 영역인 인권영역(90.0%), 문화교육영역(92.8%), 상호문화 소통영역(92.9%), 복지영역(82.1%)에서 모두 필요한 프로그램

문화영역 그리고 소통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

대상의 다양화, 내용의 다양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

PART 04

결론 및 논의



인권

인권교육을 의무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
해 주어진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능
력, 결과 지각능력, 이슈
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



문화

상호문화 실천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공통
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
한 상호문화교육 프로
그램, 자조모임을 통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
발



소통

기관운영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문
화소통 프로그램 개발
건강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



복지

각 프로그램 별 공유영
역을 찾는 등 통합적인
접근
언어, 문화, 소통, 상담
레크레이션, 교육, 치료,
각종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학문적인 요소들
을 프로그램 속에 녹여
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
상



의의

최초의 조사연구로서
향후 가족센터 상호문
화 실천 프로그램 운영
과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후속연구

향후 기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에 참여한 기관사용자
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수렴

Thank You!

이메일: huang2022@inha.ac.kr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이소정(박사과정)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3. 선행연구 검토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5. 논의 및 제언

1. 들어가는 말

-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공업화로 전환 → 도시화가 진행
- 서울, 경기 등 가속적으로 팽창 및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촌향도 현상과 인프라의 차이 등으로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
- 이후 광역시, 주변 중·소도시 등 신도시도 건설 → 인구 분포 분산, 그러나 인구는 도시로 집중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라 2021년도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살펴보면, 2021년도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5,650.1/km²로 강원도의 인구밀도 90.4/km²에 비해 약 173배
- 강원도는 총 면적 중 81.4%인 3,735.9km²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하여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는 최하위

행정구역별	2019	2020	2021
	▲ ▼ ▢	▲ ▼ ▢	▲ ▼ ▢
전국	515.7	516.2	515.2
서울특별시	15,926.9	15,839.0	15,650.1
부산광역시	4,379.7	4,348.9	4,316.4
대구광역시	2,750.3	2,728.6	2,702.2
인천광역시	2,776.6	2,765.1	2,772.8
광주광역시	2,972.7	2,948.5	2,944.0
대전광역시	2,777.5	2,758.1	2,742.8
울산광역시	1,076.9	1,069.0	1,055.0
세종특별자치시	727.3	761.3	787.7
경기도	1,305.0	1,325.3	1,338.9
강원도	90.3	90.4	90.4
충청북도	220.0	220.3	219.4
충청남도	265.4	264.0	263.8
전라북도	224.0	223.4	221.4
전라남도	144.8	144.9	143.9
경상북도	140.2	138.9	138.4
경상남도	317.6	316.2	313.6
제주도	359.4	362.6	363.8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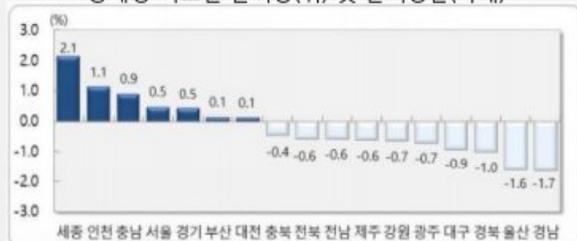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 2023년 2월 기준 통계청에서 조사한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738명), 서울(3,467명), 인천(2,56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경남(-4162명), 경북(-2,015명), 강원(-764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되었다.
-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세종(2.1%), 인천(1.1%), 충남(0.9%), 서울(0.5%) 등은 상향치이다. 반면에 경남(-1.7%), 울산(-1.6%), 경북(-1.0%), 강원(-0.7%) 등은 하향치이다.
- 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

	이동자 수(명)				이동률(%)			
	순진입	순전출	순이동	전년동일	순진입	순전출	순이동	전년동일
전국	622,411	622,411	0	0	15.9	15.9	0.0	0.0
서울	126,733	123,266	3,467	3,265	17.7	17.2	0.5	0.5
부산	40,851	40,515	336	-474	16.1	16.0	0.1	-0.2
대구	26,929	28,630	-1,701	-2,294	14.9	15.9	-0.9	-1.3
인천	38,362	35,793	2,569	2,007	16.9	15.8	1.1	0.9
광주	17,137	17,923	-786	-1,488	15.7	16.4	-0.7	-1.4
대전	20,924	20,802	122	-340	18.9	18.8	0.1	-0.3
울산	10,365	11,737	-1,372	-1,641	12.2	13.8	-1.6	-1.9
세종	6,991	6,362	629	1,869	23.7	21.6	2.1	6.5
경기	161,815	157,077	4,738	2,176	15.6	15.1	0.5	0.2
강원	17,341	18,105	-764	888	14.8	15.4	-0.7	0.8
충북	18,610	19,158	-548	354	15.3	15.7	-0.4	0.3
충남	28,380	26,918	1,462	882	17.5	16.6	0.9	0.5
전북	19,682	20,487	-805	-753	14.6	15.2	-0.6	-0.6
전남	19,617	20,462	-845	-239	14.1	14.7	-0.6	-0.2
경북	27,074	29,089	-2,015	-1,156	13.6	14.6	-1.0	-0.6
경남	31,893	36,055	-4,162	-3,558	12.7	14.4	-1.7	-1.4
제주	9,707	10,032	-325	502	18.8	19.4	-0.6	1.0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통계청 시도별 순이동(위) 및 순이동률(아래)



1. 들어가는 말

-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의 물리적 팽창으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 등의 도시기능이 침체·쇠퇴 되어있다.
- 정부는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상권의 발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창출, 문화·복지 환경의 개선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일희·이주형 2011: 102).
-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김영 외 2008: 81-95), 도시재생 영역·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서 **사회·문화적 영역과 요인의 고려가 물리적 환경의 개선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 외 2010: 247-267; 홍성우·장우진 2011: 183-206; 김경훈 2013: 1-86).
-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건축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서 도시재생의 의미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들어가는 말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출처 - 도시재생뉴딜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 들어가는 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향

주거복지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4가지 목표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센터리피케이션 원화 및 공적임대 공급



도시활력 회복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콤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상생협력 체결 활성화 지원
-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상가 공급

출처 - 도시재생뉴딜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 들어가는 말

사업유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시재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도시 소 개선과	도시소생사업(상리거점)	도시소생사업의 목표와 사업유형에 사회·문화적 요소의 측면이 약화되어있고, 물리적·환경적·경제적인 측면의 고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문화적 요소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
• (주거복)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도시경)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영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회통)		
•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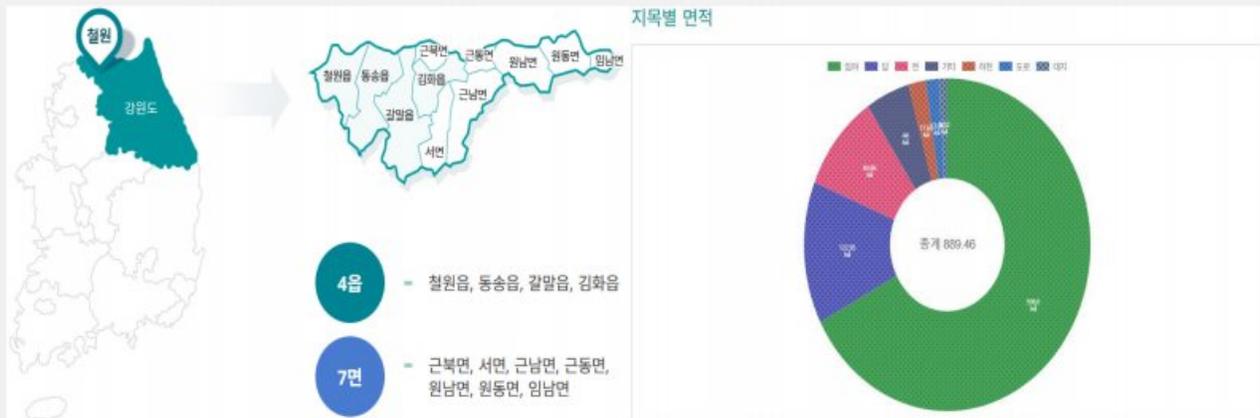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1. 들어가는 말

- 따라서 본고는 도시재생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철원군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자 한다.
- 인문케어 프로그램은 철원군 양지마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MOU(양지마을 주민협의체, 근남초등학교, 강원대학교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이며, 본 인문케어 프로그램의 실행은 철원군 양지마을의 근남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린다.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철원군의 위치 및 지목별 면적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1. 인구추이 1-1. 등록인구추이 Registered population Trend

단위 : 세대, 명 Unit : household, person

연 별 Year	세대 ¹⁾ No. of households	등록인구 ²⁾ Registered population										인구증가율 (%) Population increase rate	세대당 인구 Person per household	65세이상 고령자 Person 65 years old and over	인구밀도	
		총수 Total	남 Male	여 Female	한국인 Korean	남 Male	여 Female	외국인 For-eigner	남 Male	여 Female	인구 Density				면적 Area (㎢)	
2014	20,337	48,198	25,022	23,176	47,590	24,676	22,914	608	346	262	0	3	8,899	54.2	889.43	
2015	22,017	49,422	26,338	23,084	48,799	25,971	22,828	623	367	256	2.5	2.2	9,060	55.6	899.46	
2016	21,778	48,699	25,848	22,851	48,013	25,429	22,584	686	419	267	-1.5	2.2	9,112	54.8	889.46	
2017	21,583	47,921	25,360	22,561	47,185	24,886	22,299	736	474	262	-1.6	2.2	9,264	53.9	889.47	
2018	21,451	47,138	24,854	22,284	46,411	24,406	22,005	725	446	279	-1.6	2.1	9,464	52.9	889.47	
2019	21,216	46,295	24,209	22,086	45,584	23,767	21,817	711	442	296	-1.8	2.2	9,830	52.0	889.68	

주 : 1) 외국인 세대수 제외(1988년부터 적용) ※ 서식변경(2007년)
2) '90년까지는 인구조사결과이며 '91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포함).
자료 : 강원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도별 세대는 감소하는 추세
- 65세 이상 고령자는 증가
- 2019년도 기준 철원군의 고령인구 비율: 21.2% (초고령사회)

고령인구비율 계산 (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에 위치한 양지마을은 근남면의 상업 중심지였으나 2005년 군부대 위수지역 이 해제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퇴한 지역
-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국경없는 양지마을'에 선정

강원	삼척시	석탄도시에서 관광문화복지도시로의 재창조	총괄사업관리자
	정선군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 마을 고향	일반근린형
	철원군	생나는 마을, 新철원	총괄사업관리자
	철원군	철경지역의 생존모델, 국경없는 양지마을	우리동네살리기

2020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출처-<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78&mPid=179&menuYear=>)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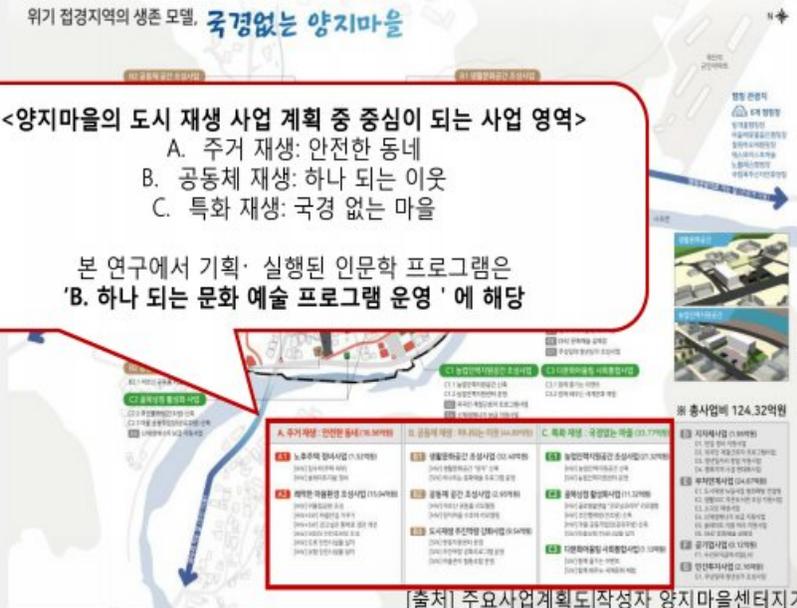
철원군 근남면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사업계획도

위기 접경지역의 생존 모델, **국경없는 양지마을**

<양지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 중 중심이 되는 사업 영역>

- 주거 재생: 안전한 동네
- 공동체 재생: 하나 되는 이웃
- 특화 재생: 국경 없는 마을

본 연구에서 기획· 실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은
'B. 하나 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남면 양지마을의 인프라

→ 2005년 군부대 위수지역 해제 후 시외버스터미널과 그 외 폐업한 상가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남면 양지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드웨어(Hardware))으로 다양한 환경 조성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철원군 평생학습관 2023 교육 현황
강좌분야: 인문교양
독서 등의 인문학 관련 활동은 X

그 외 강좌분야에서 문화예술,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프로그램, 도서 등의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음.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시민참여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자격증
IT-컴퓨터
청소년동아리
청소년프로그램
취미문화
운동
음악
도서
기타

코드번호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접수 방법	접수 인원	승인/모집 (대기인원)	교육시간 (교육요일)	선정 방법	상태
2023-정년	2023년 정년리더십 교육	최지별 상미	무료	온라인	-	17 / 20 (0 / 20)	18:30-21:30 (수)	선착순	접수진행
2023-상-13	초급 영어회화	김지영	40,000 원	온라인	-	16 / 16 (8 / 16)	10:00-12:00 (월)	선착순	접수마감
2023-상-14	중급 영어회화	이준미	40,000 원	온라인	-	13 / 16 (0 / 16)	14:00-16:00 (수)	선착순	접수마감
2023-상-15	초급 일본어회화	마쯔이 히로코	40,000 원	온라인	-	10 / 16 (0 / 16)	10:00-12:00 (화)	선착순	접수마감
2023-상-16	중급 일본어회화	한영선	40,000 원	온라인	-	12 / 16 (0 / 16)	14:00-16:00 (목)	선착순	접수마감
2023-상아-08	영어 원어민 토링	엘리 파머	40,000 원	온라인	-	16 / 16 (6 / 16)	19:00-21:00 (목)	선착순	접수마감
2023-상아-09	영어회화	김지영	40,000 원	온라인	-	10 / 16 (0 / 16)	19:00-21:00 (화)	선착순	접수마감

2. 철원군의 특성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남면 양지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소프트웨어(Software))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꼬마사서 프로그램 1~3기
- 핸드메이드 토탈공예 교실 1기
- 어린이 상상놀이터 1기
- 핸드메이드 카네이션 공예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유리공예 프로그램
- 조각보 느낌 보석함 만들기 프로그램
- 나의 생각을 3D펜으로 표현하기
- BK21과 함께하는 책놀이 통합 프로그램
- 공간 수납 3서랍 만들기(냅킨공예)
- 바다가 우리에게 건네준 유리보석
- 나만의 <라탄가방> 만들기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양말목공예 프로그램
- 근남초등학교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 마음이 따뜻해지는 베이킹 교실
-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수업
- '친구야 내 손을 잡아'(전래놀이) 프로그램
- 경제관련 교육용 보드게임 프로그램

3. 선행연구 검토

- 김선희· 강문희,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4), 2018.
- 김성리, 「농촌에서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78(3), 2021.
- 이선자· 손현동· 김은실, 「농촌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초등상담연구』 17(2), 2018.
- 이재순· 정정희· 백경미, 「초등학생을 위한 동화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교육연구』 21(2), 2008.
- 장덕현,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017.
- 지명숙· 홍상욱,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부모교육연구』 11(1), 2014.
- 진혜경· 정세진, 「농촌 초등학생 대상 미술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정서와 사회적 기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2017.

3. 선행연구 검토

- 김병진, 「국가안보 및 생존권 수호의 군 특수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군인자녀의 교육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8(3), 2018.
- 나재은· 김지현, 「직업군인 아버지의 계급과 전학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4, 2016.
- 대위 박계영· 김희순, 「초기 청소년 군인자녀의 적응유연성과 영향요인」, 『군진간호연구』 32(1), 2014.
- 방은상, 「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5(1), 2012.
- 양숙경· 문혁준,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2), 2012.
- 양명숙· 이규서, 「청소년기 군인자녀의 환경적 특성이 인생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2003.
- 장훈남,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5(2), 2021.
- 정현숙· 정선영, 「군인가족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군인배우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5(2), 2012.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왜 인문케어인가?

“인문치료란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문 정신과 인문학적 방법으로 관련 학문의 치료적 힘과 원리를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고통과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치료의 개념은 테라피, 상담의 의미로서의 개념과 치유 개념, 건강한 마음의 힘과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 그리고 코칭의 개념도 함께 포함된다.**”

“인문치료의 내용은 인문치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인문학 코칭은 인문치료를 발달적·예방적으로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개념이다(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6-19).”

-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하나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인문학은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 능력, 즉 세계에 대한 통합적 사유 능력을 발달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사회성을 길러주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확립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정창우 외 2015: 25).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문학을 활용한 인문예술치료

- 치유의 영역에 있어 책읽기는 증상의 완화, 성장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독서의 이러한 효과는 비블리오테라피나 포이트리티테라피 등의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문학치료나 독서치료에 참여하는 내담자(예방적 차원에서 삶을 고양하려는 일반 참여자도 포함)는 문학을 단순히 작품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창조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고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책읽기를 통한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서는 풍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시야와 사유의 확대, 긍정성 제고, 삶의 면역력 증대와 같은 치유력을 제공한다(강신익 외, 2020: 85-88).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 콘텐츠 선정: 동화책
- 동화 선정 기준: 춘천시 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화책을 연구자가 직접 읽어본 뒤 선택
- 동화책 선정 이유(장점)
 - 내용이 어렵지 않아 이해하기 쉽다.
 - 그림이 많아 집중하기 쉽고,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다.(스토리텔링)
 - 동화의 내용과 관련된 연계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고려한 점
 -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동화와 활동으로 구성
 - 동화와 주제와 관련되는 연계 활동을 진행하여 인문학의 가치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 사회성 발달을 위해 협동 활동도 함께 구성 → 초등학생 시기는 사회적 관계가 주로 가족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시기로, 그만큼 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1차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BK21과 함께하는 책놀이 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풍덩! 책요정들과 동화속으로

• 프로그램 목표

- 인문학(책)에 대한 흥미 유발
-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초의식(존중, 소통, 이해, 협동 등) 습득
- 사회성 발달
- 운영기간: 2022.06.20~2022.07.18 (주 1회, 총 5차시)
- 장소: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근남초등학교
- 대상자: 근남초등학교 3학년 13명
- 회기 시간: 80분(1,2교시 40분씩, 쉬는 시간 10분)

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1	찾았다, 보물!	- 작포 형성 - 책인문학에 대한 이해	- 자기소개 및 이름표 꾸미기 - 나에게 책이란? 포스트잇에 적기 - 도서관에 숨겨진 보물찾기	교실 / 도서관
2	내 동물을 소개하자!	- 자기이해 - 타인 존중 및 배려의 필요성 인식	- 자신이 되고 싶은 동물 종이모형 만들기 - 선정 사유 활동지에 작성 및 발표 - 여유와 두루미 동화 낭독 및 디플에 대한 설명 - 배려의 필요성 강조와 함께 배려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활동지 작성 및 발표/마무리	교실
3	앗, 지라이야	- 상호이해와 공감능력 기르기 - 소통과 협동	- 시간대장 큰 동화 낭독 - 인물들이 처한 상황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자기에 대한 경험 나누고 대처 방법 생각해보기 - 역할극 - 소감 나누기	교실
4	일박이가 나갔다!	- 자기인식 - 이해와 존중 배우기	- 마당을 나온 암탉 동화 줄거리 소개 - 영화 클립 감상 - 나를 담당하게 하는 곳, 사람, 상황 등과 꿈에 대해 나누기 - 등장인물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리기 - 소감 나누기	교실
5	나와 함께 그려볼래?	- 협동의 중요성 인식 - 협동 실천과 상호치지 및 격려 경험	- 공주와 심형계 동화 소개 및 퀴즈 - 공주와 심형계 동화 낭독 - 중요한중요하지 않은 보물 뽑기 스티커 붙이기 - 협동화 만들고 모아서 완성하기 - 소감 작성 및 발표 후 반응 나무 만들기 - 프로그램 마무리	교실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1차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BK21과 함께하는 책놀이 통합 프로그램> “풍덩! 책요정들과 동화속으로” 진행 결과

저학년 프로그램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강사만족도: 이소정 강사 만족도 5.0점, 김학찬 강사 만족도 5.0점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1차

1차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BK21과 함께하는 책놀이 통합 프로그램> “풍덩! 책요정들과 동화속으로” 수정 및 보완할 점

- 놀이와 간단한 글쓰기를 연계활동으로 진행 →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보였기 때문에, 글쓰기 활동의 비율을 줄이고 놀이 활동의 비율을 늘리기
- 3차시는 시간적 제약으로 역할극을 진행하지 못함. → 글쓰기 대신 역할극으로 진행
- 4차시의 콘텐츠는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였으나 장편 동화이기 때문에 대체 콘텐츠로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편집하여 20분 정도의 영상으로 시청 → 줄거리 설명 자막을 삽입하였으나, 내용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영상 내용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 콘텐츠 대체 필요
- 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1차시와 5차시에 각각 책에 대한 인식을 적는 포스트잇 활동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검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결과 -2차

2차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예정)

프로그램명: 들락날락(들樂날樂) 동화 바다

• 프로그램 목표

- 인문학(동화)에 대한 흥미 유발
- 놀이를 포함한 인문학 활동을 통해 창의력· 집중력 발달
- 자기인식, 자기표현, 사회성 발달
- **운영기간(예정):** 2023.06.~2022.07. (주 1회, 총 5차시)
- **장소:**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근남초등학교
- **대상자:** 근남초등학교 2학년 12명
- **회기 시간:** 80분(1,2교시 40분씩, 쉬는 시간 10분)

차시	차시 주제	차시 목표	내용	비고
1	나를 소개해요	- 라포 형성 - 놀이를 통한 프로그램 이해 및 자신감 형성	- 프로그램 소개, 강사 소개 - 명칭 꾸미고 소개하기 - 동화 픽을 놀이 - 동화 '들락도 권업아' 읽기 - 규칙 알려주기	교실
2	두렵지 않아	- 내 안의 두려움과 통기 찾기 - 세계에 대한 이해와 확장 - 자신감 향상	- 무서운 것 맞추기 - 동화 '고양이 피카' 읽기 - 내가 상상하는 바다(두려움) 그리기 - 내가 피카 하면 어떻게 했을까?	교실
3	나의 모래사장	- 긴장 이완 - 존재 가치 이해 - 나의 역할 인식하기	- 단어 퀴즈 맞추기 - 동화 '스금 공주' 읽기 - '스금 공주'에 대해 나누기 - 나만의 모래사장 만들기 - 모래사장 소개하고 나누기	도서관
4	감정을 맞춰보자	- 감정 인식 - 감정 해소	- 감정에 대한 소개 - 감정 맞추기 - 동화 '눈물 바다' 읽기 - 감정 과녁판 활동	도서관
5	나만의 비늘	- 긍정적 자아상 형성 - 사회성 발달	- 용고기 퀴즈 - 동화 '무지개 용고기' 읽기 - 나의 용고기 그리기 - 나의 용고기와 선물해주고 싶은 비늘 소개하기	교실

5. 논의 및 제언

- 1차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 전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익숙지 않은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다양한 놀이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상호간 소통과 협동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중 '공동체 재생: 하나 되는 이웃' 영역의 '하나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어,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다만 본 1차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사업이며 단기 진행(5회기)으로 종결되었고,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 사업 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록의 의무성(촬영)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흐름이 비교적 깨질 때가 있었다.

5. 논의 및 제언

-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발달 특성상 긴 글쓰기를 진행할 수 없었고 짧은 글쓰기 활동도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추후 프로그램 기획 시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학년 대상으로 기획한 2차 프로그램은 2023년 6월에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깊은 분석이나 학술적 접근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차이를 늘려 글쓰기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사전/사후 검사 또는 사전/사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연구자는 군인자녀의 적응을 위해 ‘소통, 적응, 자존감 향상’을 위한 회기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프로그램 기획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여러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효용성 검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군인자녀와 일반가정의 자녀에게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용성 검증 및 차이점 검토 등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 활동에 따라 저학년 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그리고 타 군사 접경 지역 초등학교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신익유건상이민용유강하정성미이영의김석수양정연박미리정락길심영섭이수진, 『인문예술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2020.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7.
- 김경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창동예술촌 조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2013.
- 김 영·이정동·김경훈·천성봉, 「통합창원시 도시재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2010.
- 이일희·이주형,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6호, 2011.
- 정창우·손경원·박영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46호, 2015.
- 홍성우·장우진, 「도시재생 영역의 중요도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1.

인터넷 자료

- 강원도청, 강원도의 위치 및 기후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1)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hy_gnurc?categoryNo=14)
-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angji_cw)
- 철원군청 (<https://www.cwg.go.kr/www/index.do>)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2023.04.21, 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8024&conn_path=I2)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조사」, 2023, 2023.04.19.,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e231a4e17f2933580a786ecac49e5b9b948d4339c245668502895238e8ebde22&rs=/synap/preview/board/205/>)
-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78&mId=179&menuYear=>)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 질적연구 -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 한 나 박사

황해영 박사님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실천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합의 질적연구-기관운영자를 중심으로」는, 상호문화주의의 커다란 담론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야 할 방향성과 실천 전략에 통찰을 주는 연구입니다. 특히 다문화사회 상호문화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비전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고 설정하고, 다음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둘째, 결혼 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셋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넷째,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토론자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세부과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다문화 가족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그간 제1차(2020년-2012년), 제2차(2013년-2017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지향했고, 제3차(2018년-2022년), 제4차(2023년-2027년) 정책에서는 상호문화주의 담론에 의해 집단, 개인,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다양성 존중이라는 인정의 방식(김영순, 2022)을 지향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시·군·구 231개로 증가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그 역할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부처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획일적인 수행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황해영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호문화 실천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였고, 이를 위한 연구로서 인권, 문화교육, 소통, 복지 영역에서 CQR 방법론을 통해 영역과 중심 개념을 도출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만 논의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듣고자 아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공간적 범위가 인천, 서울, 충청, 경기, 기타로 세분화 되는데, 기관운영자의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CQR을 통해 지역별 차이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인적 특성(업무별, 근무년수)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관운영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상호문화소통 인식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상호문화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서, 기관운영자의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44.6%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호문화소통 프로그램은 개선에 대한 요구가 51.8%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현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상호문화 실천 프로그램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원군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논평

오 영 섭 인하대

저출산과 노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인 이소정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쇠퇴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의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현안인 도심의 외적이고 물리적, 경제적 환경의 개선보다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지마을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돌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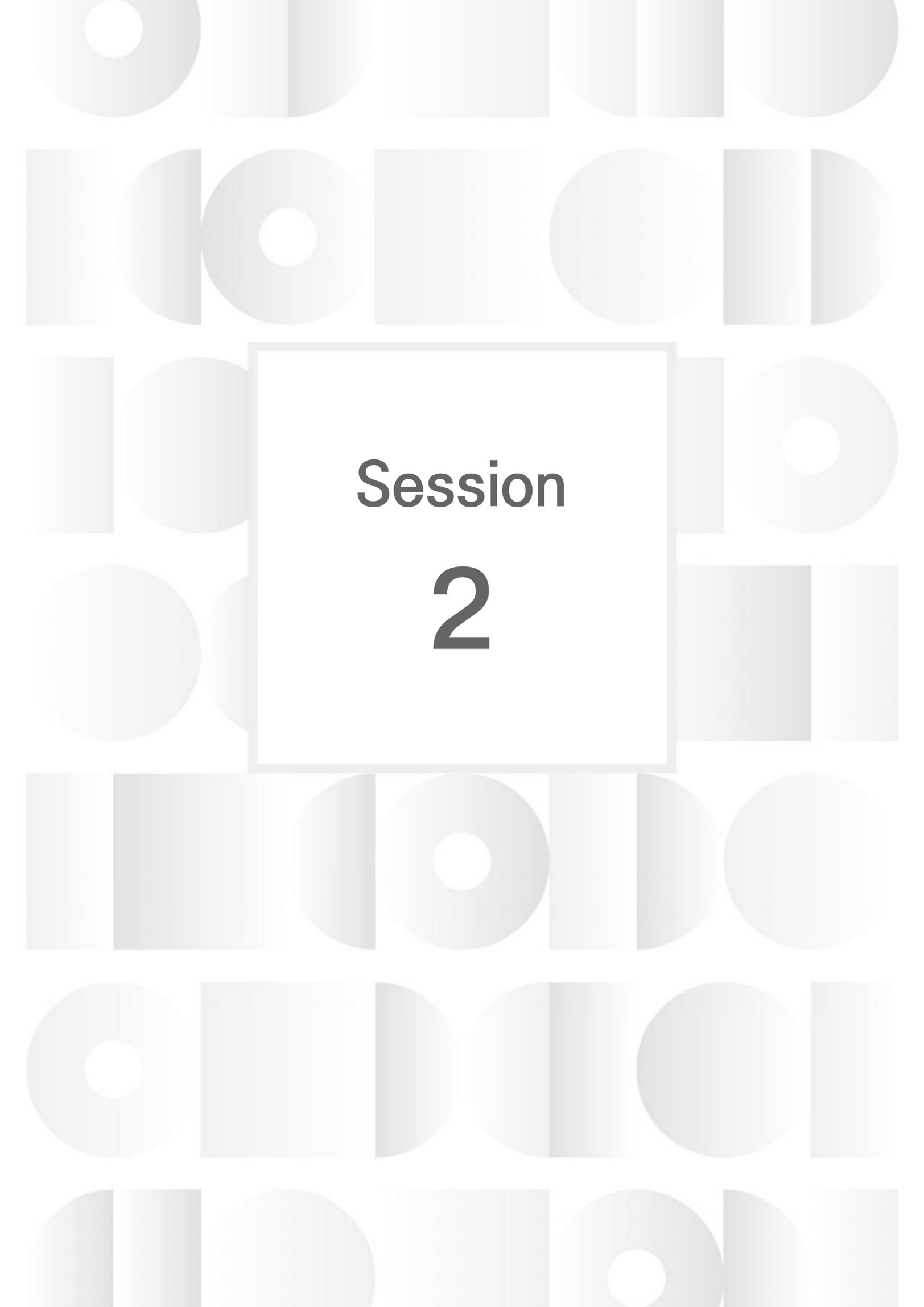
본 연구가 인문케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관심인 지역사회와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지역경제의 핵심 소비자층인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도심으로서의 활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의 인구의 현황,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적인 인프라의 실태, 특별히 인문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ISS에서 ‘도시재생 & 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참고할 만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원군 양지마을, 그 중에서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유사사례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시사점을 참고한다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인문케어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와 인문케어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가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참여자로써 군간부들의 자녀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군인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명확하지 않고, 군인자녀와 비군인자녀와 차이점과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두 집단을 같이 진행하는 것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프로그램은 2개로 나뉘어져 각 5회기 씩 총 10회기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근거를 보완하면 좋습니다. 왜 연구참여자에게 문학 및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한 놀이, 역할극, 글쓰기의 융합프로그램인지, 이 프로그램이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읽으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한 인문치료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소외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Session

2

Session 2

연구발표 3. 양구군 고령자 치매예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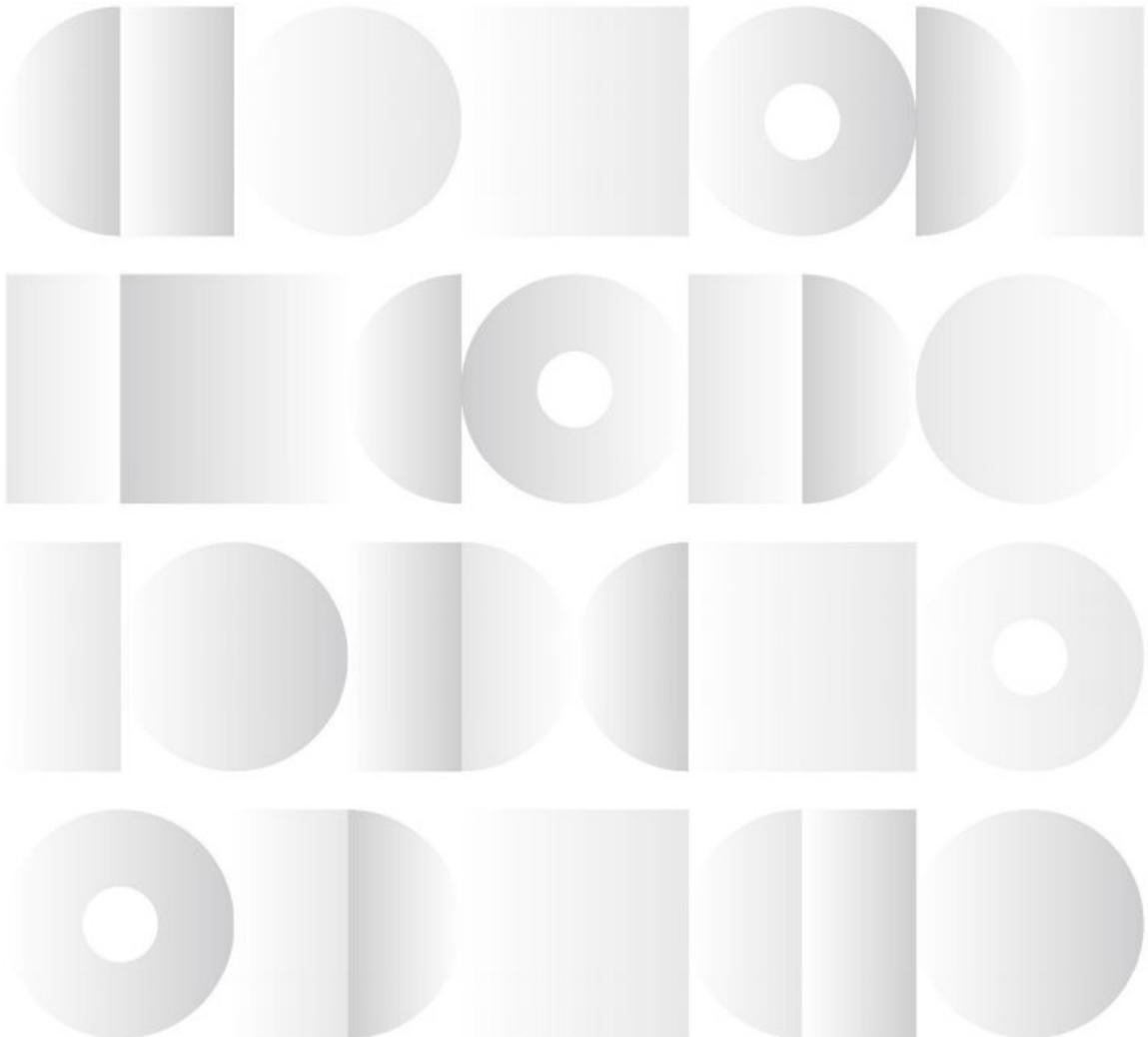
김도경 | 인하대

연구발표 4.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고희진 | 강원대

토 론 3. 조성미 | 강원대

토 론 4. 김진선 | 인하대



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도경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I. 서론

한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통계청, 2022).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¹⁾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추나현, 2021). 인구 고령화와 함께 주목할 현상은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super-old population)의 증가이다(통계청, 2022; 신윤정 외, 2021). 80세 이상의 비중이 2004년 16.2%에서 2014년 20.6%, 2020년에는 29.9%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 노인에 관한 관심이 특별히 요구된다(박재우, 2023). 초고령 노인의 증가는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연결된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와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태량, 장남서, 2021; 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독거노인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도시보다 지방이 높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0). 서울과 대전 등 도시지역의 1인 가구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와 충청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통계청, 2022).

본 연구는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양구군을 연구 현장으로 하였다. 강원도의 인구구조 특징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강원도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76,928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가 69.3%로 10가구 중 약 7가구가 여성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다(허목화, 허남재, 유지영, 2022).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은 저소득 및 저학력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문제에 있어 다른 노인집단보다 그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남현정, 2014; 동화진, 2022; 정경희, 2015). 강원도 양구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농·산촌 지역²⁾으로 도시보다 의료 및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적 접근성이 취약하여 여성 독거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고령 노인일수록 그 수준이 더 열악하다(손미선, 2022). 이에 노인 부양에 있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박현숙, 전효정, 2022; 통계청, 2022).

노년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노인의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하지만 강원도 양구군과 같은 군소도시는 지리적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수, 의료·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정책적용의 자율성 부족, 선도사업 지속의 어려움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어려움이 있다(김유진, 2020; 김윤영, 이석환, 2021; 이용재, 김효심 2019). 이에 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낮은 의료 및 복지시설과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들의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유진, 2020; Van Citters & Bartels, 2004). 또 이웃 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 만족도 등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기돌봄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허목화 외, 2022; Kim, 2017). 또한 신체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1) 초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20% 이상인 사회이다. (United Nations)

2) 양구군청 사이트 (https://www.yanggu.go.kr/user_sub.php?gid=www&mu_idx=524)

도접근이 필요하다(전용호·이석환, 2022). 정책적으로 복지비용을 증대하고 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노년의 우울, 고독, 불안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송명희 외, 2012).

마거릿 크룩셱크(Margaret Cruikshank, 2016)는 복지 및 자립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서 긍정적 신념을 꼽았는데, 이는 내적·외적 성찰과 소통을 통해 쇠퇴하는 신체 및 정신과 직면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지난 삶의 실패나 결정, 절망을 수용할 때 가능하다. 즉,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삶의 균형을 이루고기 위해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박노권(1998)은 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쇠퇴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때 노인들은 자신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절망감에 빠져들거나, 혹은 지나온 생애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다가올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아통합에 이른다고 하였다. 에릭슨(Erickson, 1963)은 자아통합이란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난 삶의 실패나 결정, 절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심리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프랭클(Frankl, 1984)은 삶에 당면한 좌절, 어려움 등의 삶의 고통에 직면하고, 실존적 공허에 빠진 개인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미라, 2020; 이종인, 2019).

노년의 자아통합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되어왔는데, 그중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행동, 계슈탈트, 로고테라피 등 상담을 통한 접근(김지현, 정효운, 김정민, 2016; 석미란, 김정규, 2011, 동화진, 2022), 자조모임, 방문보건·재가복지 등 공동체를 통한 접근(권두순, 장세나, 2021; 최균, 2002), 미술, 문학, 연극, 생활무용 등 단일 예술 증재를 통한 치료적 접근(강석영, 2014; 권인선, 윤대현, 백세윤, 2010; 김현정, 2021; 백현희, 오현숙, 2017; 오명희, 성승연, 2021; 이봉희, 2013; 정남기 2016),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접근(지미숙, 2017) 등이 있다. 선행연구 대부분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단일증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통합예술치료적 관점에서 접근된 논문도 있지만, 단일 대상과 효과를 검증한 양적 연구로 구체적 경험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천오·정동훈(2007)은 노인의 치료적 증재에 있어 신체적 긴장 완화와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기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혜원(2009)은 노인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주영(2021)은 예술 매체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인지, 정서, 신체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의 적용과 학제 간 융합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에 인문사회, 예술, 심리, 상담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학제 간 융합을 통한 접근방법이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의 내러티브 재구성을 목표로 하기에 변화의 대상은 내담자의 내러티브이다. 내담자가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 존재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진선, 김영순, 2021). 내담자는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을 의식화하며(김영옥·채연숙, 2019), 이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했던 인생의 내러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주체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다양한 배경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노인우울증자의 분석가 담화 기반 생애회상치료 경험을 연구한 권요셉(2021) 외 미비하다.

이에 강원도 양구군의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

강원도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에 들어섰으며(정성호, 2019), 2020년 지역 고령화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통계청, 2020). 또한 전국 시군구 중 46.5%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강원도는 2021년 기준 소멸 위험지수값³⁾이 0.48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이상호 외, 2021). 강원도 인구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소년인구 감소와 노인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군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읍·면 지역에 따라 고령화율이 50%를 넘기도 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그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다(허목희 외, 2022).

독거노인의 초고령화와 여성화는 경제, 건강, 소외, 무위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WHO(2022)에 의하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이란 자신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의 기대, 목표, 관심사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이라 하였다. 여성 독거노인은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노인 집단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강은나·이민홍, 2016; 김예성, 2014; 남석인 외, 2019; 윤정애 외, 2016; 임준서, 2022) 삶의 질적인 면에서 취약하며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최효진, 2019). 특히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원도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여성 독거노인은 낮은 학력, 경제적 빈곤, 만성질환,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력에 있어 65세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은 무학, 초졸의 비율이 33.4%인데 비해 여성 독거노인은 71.7%로 2배 이상 높다(허목희 외, 2022).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환경에서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진학 및 취업률이 높지 않다(신계영·김은경, 2014; 이현주, 2015; 장미혜, 2013; 전경숙·장민희·정태연, 2013).

둘째, 경제적 빈곤이다. 총소득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경제적 상태 만족도도 낮다(허목희 외, 2022).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은 소득감소 및 중단 등으로 빈곤 상태에 놓이기 쉽다.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65.1%로 1/3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여유진, 2021). 유교적 가족문화에서 여성은 고등교육에서 제외되었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 및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백미연, 2019). 이에 여성 노인은 주 소득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41.0%)가 높으며 남성은 본인의 근로소득(37.7%)이 가장 높았다.

셋째, 만성질환 및 우울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상황은 외로움, 우울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며(Lim & Kua, 2011), 신체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Cornwell & Waite, 2009).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유병률이 높고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독감 및 소외감,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윤동성, 2006).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관리 실천율, 노후 준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낮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21).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질이 낮은 만큼 의료동행 및 외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취약하여 의료기관, 복지관 등의 접근성이 낮다(허목희 외, 2022). 고령의 노인 여성의 경우 대부분 운전을 못하거나 거동의 어려움으로 거리가 먼 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독거노인의 긍정적인 특성도 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이웃,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그 값이 1.0미만(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적은 상황)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값이 0.5 미만(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이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호 외, 2021).

친족, 친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지지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 관계 만족도가 높다(허목화 외, 2022). 자녀보다는 이웃 혹은 친구와의 왕래가 빈번하며 생활지원사나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가깝게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다양화,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알선, 노인 여가 시설의 시설환경 개선, 지역 내 노인복지관 이외 다양한 공간의 노인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노년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아 통합(Ego-Integrity)'은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Erikson, 1963). '자아통합'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구성함으로써 삶에 적응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와 같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인간이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 즉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적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다(정향숙, 2019). 노년의 성숙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려는 내적인 성찰 추구를 통해 가능하다. 노인은 성찰을 통해 노화를 인간의 인생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약화된 자율성, 잃어버린 주도성, 사라진 친밀성, 홀대받는 생산력을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다(Erikson & Erikson, 1997). 즉 삶의 수용이란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고통을 견디어 내는 용기, 의연함의 태도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심정자, 2015; 박영임, 2017).

에릭슨은 지나온 삶을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 지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조망함으로써 노년기 변화를 가볍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삶의 통합 수준이 높은 노인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높은 삶의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이현지, 남현주, 2020), 그렇지 못한 노인은 자기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우울,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 표현력 저하와 사회적 관심 및 활동 축소,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등의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심정자, 2015; 한상근, 2018). 또 노년기 변화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져 욕구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도리어 외부 세계로 투사하여 남을 비난하게 된다(진영선, 2014). 높은 수준의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환경과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와 수용하는 태도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Erickson, 1994). 따라서 노인의 자아 통합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인문융합치료는 자기수용과 긍정적 조망으로서 노년의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즉, 자기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과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비로소 이전과 다른 시간,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 및 재구성함으로써 긍정적 조망을 통해 자기 내러티브의 변화를 시도한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담아내고 있는 내러티브는 고정되지 않고 상담사에게 말해지고 상담사로부터 다시 자신에게 말해지고 사회를 향해 다시 말해지면서 재해석되고 긍정적 측면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내러티브로 발전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내러티브는 새로운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이은숙, 2019).

인문융합치료에서 치료란 어원적으로 '전인적 의미의 건강을 회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라페이아'에 기원하며,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의 의미를 뜻한다(R. Beekes, 2009). 따라서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함으로써 부정적 측면 이면의 긍정적 측면을 조망하고 균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식의 재구성을 통해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여기서 프로이트는 치료적 대화

(talking cure)의 핵심 기능을 사후 대화의 재구성에 두었으며 해석학자인 가다머(H. G. Gadamer, 2003) 또한 고통을 대면하여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verwinden)을 통해 결코 바꿀 수 없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대안적 이야기를 구성하여 치유를 경험한다고 보았다(지성용, 2022). 따라서 인문융합치료에서 변화의 대상은 내담자의 내러티브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서 자신을 어렵게 했던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긍정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기에 노년의 과업으로서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강원도 양구군이라는 지방 군소도시가 갖는 지역적 특성(인구소멸위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용 제한, 초고령화 등)과 여성 독거노인의 특성(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상담사가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과 자택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며 내러티브가 '어떻게' 나타나며 '왜' 달라졌는지에 관한 연구로 경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특정한 상황, 사건, 프로그램, 현상에 초점을 두으로써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기에 적합하다(Merriam, 1988).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로서 사례를 사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Creswell, 2015).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개인, 프로그램, 집단, 현장, 맥락 등과 같은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탐구이다(김영순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체계를 가진 하나의 경계로서 특정 지역, 상담 공간, 프로그램이라는 경계 안에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사례연구는 개별 연구 대상의 특수성, 맥락성, 질에 관심으로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유기웅 외, 2018),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관찰, 인터뷰, 문서, 그 외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Yin, 2013).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이라는 특수한 대상과 삶의 맥락과 질에 관심을 둔 연구로서 상담사가 현장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정에서 얻어지는 녹취록 외에도 자택과 마을을 방문하며 살펴본 삶의 모습과 인생의 순간이 담긴 사진, 관찰일지, 상담사의 성찰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와 연구 대상 프로그램

1) 연구참여자와 특성

연구참여자는 강원도 양구군 실 거주자로서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이다. 연구참여자로 모집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연구참여 선정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다. 연구참여 선정기준은 ① 강원도 양구군 지역 거주자 ② 사별 혹은 별거로 인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75세 이상 ③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선정기준이 적합하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여성 독거노인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나이	독거기간	독거 이유	지역거주기간	자녀수	결혼 전 거주지역
A	78	3년	남편 요양원 입원	38년	2명	강원도
B	82	7년	사별	59년	3명	강원도
C	82	23년	사별	60년	2명	서울

연구참여자 A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10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집에서 했으며 3년 전 남편을 요양원으로 모신 뒤 독거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도 두 번의 암투병을 거치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지금도 자녀를 위해 농사일과 가사 일을 쉬지 않으며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연구참여자 B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고, 시집은 뒤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맘며느리이며 13명의 대가족이 있는 집에 시집와 시댁 어른과 식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왔다. 작은 체구지만 대가족의 살림을 건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 어머니로서 당연한 면모가 느껴진다.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과 잦은 만남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남편과 사별한 지 23년이 되었다. 남편과 사별 후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하고 있으며 젊어 한과 공장 대표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젊은 시절 4살의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따뜻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다.

2)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자아통합은 자기 삶을 수용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Erickson, 1997; Miller, 1981). 이를 위해 인문학, 심리치료의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합의를 팀을 각각 이루어 합의적질적연구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전문가 5명은 인문학과 다양한 심리치료의 전문가로 각각 생애사, 노인회상, 명화미술치료, 예술치료, 미술치료의 박사, 박사과정 이상이며,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융합치료 이론과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박사 및 박사과정 3~4명을 각 분야의 팀원으로 구성하여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문 1명에게 프로그램을 최종 검토받았다. 이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8>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영역	목표	프로그램 내용	활동
1 도입	생애 회상	포토텔링을 통한 생애 내러티브 탐색	○ 본 연구의 목적 및 진행 과정 소개 ○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체 삶에 대한 내러티브 조사	- 사진 가져오도록 사전 연락 - 연구동의 내용 녹음
		생애 내러티브 탐색	○ 생애 특정 사건을 개인 및 역사적 접근 속에서 조사하고 현재의 삶과 관련하여 내러티브 조사	- 관찰 일지(제보자 및 구술일지) 작성 - 현장 사진 촬영
3 탐색	정신분석 상호관계 탐색	원가족을 중심으로 관계 탐색	○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 경험한 억압과 금기, 즐거움과 욕구의 만족들을 탐색 ○ 부모와 형제들의 질서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 소시오그램: 가족인형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거리 및 안면성을 관찰하며 관계 내러티브 탐색
		현가족을 중심으로	○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 경험한 억압 금기, 즐거움과 욕구의 만족들을 탐색	- 소시오그램: 가족인형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남편, 자녀들의

단계 회기	영역	목표	프로그램 내용	활동
		관계 탐색	○ 남편과 자녀들의 질서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거리 및 안면성을 관찰하며 관계 내러티브 탐색
표현	명화 활용 미술치료	5 명화에 비친 내면 탐색	○ 지역의 박수근 미술관(디지털 미술관)을 방문하고 박수근의 작품에 비친 내면을 탐색하고 콜라주로 표현하기	- 박수근 미술관 관람 (디지털관을 중심으로) - 박수근 작품을 중심으로 한 콜라주
		6 명화에 비친 감정탐색	○ 명화 감상 후 투영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색과 핸드코트로 표현	- 다양하게 준비된 명화를 감상하고 한가지 명화를 선택하여 명화에 투영된 자기 이야기와 감정탐색을 표현
해석	생애 4컷 만화	7 생애 주요 이야기를 4컷으로 구성하며	○ 행복했던 순간 인생 2컷	- 삶의 행복했던 순간을 입체 콜라주로 구성
		8 내러티브 재구성	○ 의미 있는 순간 인생 2컷	- 삶의 의미있는 순간을 먹물 그림책으로 구성
통합	Life re-telling	생애 내러티브 사후적 재구성	9 ○ 연구참여자가 인생 4컷을 보며 자기 내러티브를 리텔링하기	- 생애 주요 4컷을 통해 가장 맘에 드는 순서로 이야기하기
			10 ○ 이야기를 긍정적 존재감, 보람, 지혜로운 등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기	- 4컷 장면의 중요성과 의미발견
			○ 연구자가 상장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요약해 전달하기.	- 생애 리텔링을 통한 상장수여식 - 활동 소감 나누기

〈표 2〉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도입’ 단계로 생애회상 기반으로 포토텔링을 통해 라포형성 및 생애 전반적인 생애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1, 2회기는 연구참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벽에 걸려있거나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생애회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생애회상(reminiscence)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과거 경험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해 떠올리며 자기이해를 향상시킨다(Quackenbush & Barnett, 1995). 버틀러(Butler, 1963)는 생의 회고(review of life)가 과거 경험을 타당하게 재구성하며 삶에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뒤 정리되지 않았던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였다. 2단계는 ‘탐색’ 단계로 인형을 활용한 소시오그램을 진행하였다. 소시오그램은 모레노가 고안한 것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김용우 외, 2013). 3, 4회기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가족과 현가족으로 나누어 구성된 간역, 금기, 욕구, 즐거움, 만족 등의 관계 역동 탐색함으로써 문제적 내러티브와 재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3단계는 ‘표현’ 단계로 명화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내면 및 주요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감상자는 명화감상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이 투사되어 역동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고 자신을 재조명하게 된다(윤수진, 2022). 5회기는 지역 내 ‘박수근 미술관’을 방문 및 관람 뒤 박수근 그림에 투영된 자기 삶을 탐색하고 박수근의 그림을 활용하여 명화 콜라주를 진행하였다. 6회기는 명화에 투영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느끼는 감정을 핸드코트에 물감을 섞어 우드락에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였다. 4단계는 ‘해석’ 단계로 4컷 만화를 응용하여 생애 주요 4컷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이 용이한 잡지 콜라주와 먹물 그림책 만들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생의 주요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리텔링(re-telling)을 통해 이전 회기에서 종합된 내러티브를 정리하고 고통으로 해석되었던 생애 내러티브를 리텔링함으로써 과거를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 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평균 2주 1회, 10회기, 회기당 60~90분, 자택 혹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기초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매회기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작품 사진,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등을 함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사가 연구참여자의 자택 및 마을을 방문하며 수집한 사진, 상담 진행 전 후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진 대화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7)의 분석 방법 5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는 자료 준비 단계로 회기 내용이 담긴 녹음 전사록, 연구참여자의 활동 작품, 관찰 및 연구자 노트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계는 일반적 자료 분석 단계이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표시하고 연구자의 생각과 핵심적인 개념들을 메모 달기를 통해 메모하여 자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였다. 3단계는 코딩 단계이다. 연구자는 문서 자료를 분류하고 코드명을 붙이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4단계는 테마 단계이다. 연구자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들을 묶어 테마를 구성하고 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붙여 상위 테마로 도출하였다. 5단계는 테마 해석 단계이다. 연구자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테마를 해석하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진행 방법 및 과정, 연구참여자의 안전보장, 자료 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해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요청시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참여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회 프로그램 진행 후 동료연구자 5인과 교수 1인의 슈퍼비전 시간을 갖고 보충할 부분을 다음 회기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프로그램 진행 전 회기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아 연구자가 놓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고 추가적으로 탐색해야 할 내용 및 질문을 보충하였다. 또 다른 한편 연구자료의 다원화를 위해 회기 내용 전사록,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현장 메모 등을 활용하여 상황적 맥락과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자기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새롭게 발견된 주체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삶의 소소한 기쁨과 삶의 긍정적 조망> 총 4개의 상위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내용을 다음 <표 3>과 같다.

<표 9>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경험의 의미

상위주제	하위주제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여성, 엄마, 아내, 며느리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지난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둘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마주침

상위주제	하위주제
	유복자로 태어나 ‘재수 없다’ 점철된 나의 자화상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 안되게 죽어야지
‘자기’ 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열정적인 붉은 꽃처럼 살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표현함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인생을 회상하며 행복을 떠올림 남편, 부모님, 자녀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던 자신을 떠올림 매체를 통해 창조적인 나와 만나는 즐거움
새롭게 발견된 주체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내 삶을 묶었던 부정적 이름에서 긍정적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함 소망하는 ‘나’를 발견하며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발견함 아들을 잃는 고통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배움
삶의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삶의 조망	이웃,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누림 집 앞 텃밭과 꽃밭은 가꾸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계획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내러티브와 마주침

75세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엄마, 아내, 며느리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자신을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로 ‘누구 엄마’, ‘집사람’, ‘방앗간 며느리’로 살며 자신의 위치가 부모님과 남편, 자녀에게 예속된 존재로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여윈 유복자로 태어나 복 없는 인생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의 내러티브를 꺼내 놓았고, 연구참여자 B는 엄마, 아내, 며느리, 자녀로서의 자신의 생애 회상을 통해 대석함의 살림을 이끌며 살아온 힘든 삶을 떠올렸으며 연구참여자 C는 삶에 인생에 가장 힘들어서 한 번도 꺼내 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였다.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낙인 찍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후반기를 지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식들에게 폐가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지’, ‘자식 고생시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남편 형제가 8명이야. 시동생 시누 또 거기다가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네 친척이 만약 집안이 안좋다 그러면 애들 갖다 여기다 놓지. 그래 가지고 일꾼까지 13명, 14명이 살았어요. 여기가 거의 종갓집 같은 집이야. 그렇게 살았어... 우리야 그거 힘든지 모르고 했으니까...” (1회기, 연구참여자 B)

“잘못됐어... 세 살인가 걸어다닐 때... 사고로 연못에...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얘기를 하면 심장이 뛰어서 지금도 가슴이 아파... 부모 돌아가시면 밥도 먹고 하지만 이런 일은 발이 땅에 안디겨... 공중에 있어... 그정도로 힘들어.” (2회기, 연구참여자 C)

“우리 친정아버지는 못 봤어, 배 속에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나 8개월 됐을 때 배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못고치니까... 옛날에 사진도 없고 아버지 사진이 어디있어... 그래서 내가 유복자야 유복자...” (3회기, 연구참여자 A)

“(저희 할머니가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딱 맞아 내가 3년 넘으면 85살이니까. 85세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잖아...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 고생시키지...” (2회기, 연구참여자 B)

‘자기’표현이 주는 카타르시스와 긍정적 자존감

인문융합치료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콜라주, 명화, 4컷만화 등 다양한 심리치러 접근법 활용하여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표현하였다. 지역 미술관 관람과 명화 감상 및 작품 구성, 잡지 콜라주, 4컷 만화 기법을 활용하여 책만들기 등을 통해 욕구, 소망,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춤추는 그림이 재밌잖아. 그 때 생각났어요 예날 춤출 때... 그 때가 재미있었지! 나는 빨간색이 좋아 환하고 열정적이고(상담자: 이 꽃이 뭘 의미할까요?) (집단원: 딱 철수(가명) 엄마네) 꽃을 어떻게 나라 그래! (집단원: 100만원짜리 그림 같네) 괜찮아? 유치하고 내가 잘 못 그렸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사시키려고?” (웃으면서 작품을 가까이 멀리 보면서 만족스러워함)

(6회기, 연구참여자 A)



“애들 모여 가지고 막 우리는 애들도 다 동네애들하고 안놀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았어... 원래 애들이 많았으니까 몇 집이야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뛰어놀고(상담자: 어머님은 어디 있으세요?) 여기(해를 가리키며) (집단원: 그래 딱 맞네)

(6회기, 연구참여자 B)



“여기 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있지... 나하고,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빨래도 하고...(어머님이 화로 같이 따뜻한 분이신가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남편도 나를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나를 엄청 좋아했어. 내가 친정에 가면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 며느리 친정 갔다고... 우리 애들도 나를 좋아해.”

(5회기, 연구참여자 C)

“색깔도 보고 촉감도 좋고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웃어 그림.” (6회기, 연구참여자 C)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 때 이런 게 어디있어... 다 처음해보는 거지... 아들한테 가서 엄마가 했다 그러고 보아줘야지...” (7회기, 연구참여자 B)

가.

연구참여자 A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힘들 때 춤을 배우러 다녔던 이야기를 통해, 힘들었지만 열정적이고 즐겁게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빨간 장미꽃으로 비유하였다. 또한 잡지 콜라주를 통해 새와 같이 자유롭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엄마, 아내, 며느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아이들로 양육하면서 누린 기쁨과 행복했던 감정을 떠올리면 삶의 보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늘 둘러쌓여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매체들을 탐색하며 낯설어하면서도 표현과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새롭게 발견된 주제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나’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형식들이며 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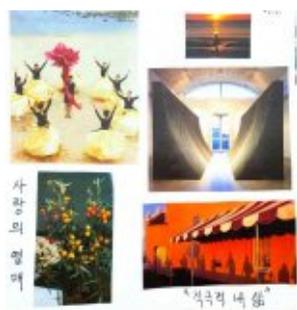
내러티브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인문융합치료의 목적은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김영순 외, 2022). 내러티브는 언어로 발화되지 않은 내면의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언어적 보편성의 한계를 깨는 작업을 시도한다. 유일한 진리에서 다양한 진리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보편성은 타자 의지적이며 주체적이지 않다. 헤겔은 보편성과 주체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타자지향은 보편성을 깨고 나와 주체적이 될 때 가능하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타자지향이 가능해진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뱃속의 아기 잘 부탁한다고 하셨데...(상담자: 사랑받으셨네요, 복이 있으시네요). (집단원: 복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어...)(상담자: 고통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들 서포트하고 자립적으로 살아오신 것이 어머님의 보람이고 기쁨이신 것 같아요)...그지 기쁨이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내 인생 빨간 꽃처럼 열정적으로 살았어. 복 받은 인생이야! 有福”
 (8회기, 연구참여자 A)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못 입어봤어 입고 싶어서...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옷 입을 일이 뭐 있어...그리고 이 립스틱도 바르고 (당당해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당당했어...이 삼으로 내가 식구 다 먹여 살렸지... 땅도 파고 밥도 푸고...13식구 다 먹여살렸지..”
 “그 고무신 가게 있잖아... 몸이 외소해진 모습을 보고 ‘아주 당당하게 열심히 사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거니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더라고.... 나이 먹고 힘 빠지고 하는 게 훈장이지”
 (8회기, 연구참여자 B)



“나는 항상 남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변화도 없는데 이제 가슴 아픈 일만 있었지 뭐... 자식들 그리고 신랑 그렇고 그대로 살다가 그게 가슴 아픈 거 일만 있었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테 약하게 못하고 더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나를 더 단단하게도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탄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입찬 소리는 절대 하기 싫고 그래.” (5, 9회기, 연구참여자 C)
 “새벽부터 늦게까지 저렇게 노을이 질 때까지 뛰면서 저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지... 신랑이 뒷치닥거리(술 먹고, 노름하고, 가게 망하고) 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쉬지 않고 일했지... 그래서 나를 다 좋아했어... 대우받고 살았어.” (7회기,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A는 세상에서 부여한 ‘유복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나 유년의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존재이며, 양아버지와 오빠에게도 소중한 존재였음을 인식하고 ‘유복자’의 이름을 ‘有福者’로 바꾸었다. 그리고 책의 이름을 ‘유복(복이 있다)’로 명명함으로써 자신을 고

통스럽게 했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잡지콜라주를 통해 ‘당당한 여성’, ‘립스틱’, ‘삽’을 배치함으로써 립스틱을 바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고르고 선택하며 땅을 일구고 13명의 식구를 부양하며 살아온 자기 삶의 모습을 ‘당당한 여성’으로 투영하였다. 그리고 남편, 자녀의 이름이 아닌 당당한 자신의 이름을 ‘OOO’라고 적었다.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 당당한 ‘나 자신’으로서 주체성이 발현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젊어서 자녀를 잃은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 연민, 긍휼 등의 심리적 자원을 얻은 사건으로 재구성하였다. 고통의 내러티브를 통한 ‘나 자신’, ‘자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해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초기 생애회상 인터뷰에서 자신과 남편을 철없이 맨날 놀러다니고 돈 모을 줄 모르는 존재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생활력 없던 남편과 자신을 분리시켰으며 장사, 농사, 협동조합, 공장 일 등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온 주체적인 삶을 노을 풍경에 뛰고 있는 사람의 사진에 투영하였다.

삶의 소소한 기쁨과 긍정적인 삶의 조망

양구군 농·산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친구 또는 지역사회 이웃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상호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허목화 외, 2022). 임정은, 이현주(2022)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웃, 친구, 자녀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유지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지역에 최소 38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이웃들과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다. 일상에서 함께 산책, 커뮤니티 모임, 종교 생활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을 도모하였다. 또한 신체기능이 쇠약해지면서 걷기 힘들고, 시력이 쇠퇴하고 잦은 질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중에도 텃밭과 꽃밭을 어떻게 일굴지 고민하고 꽃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고 텃밭을 가꿔서 자녀들과 고마운 지인들에게 나눌 계획을 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계획하였다.

나.

다. “우리 맨날 노상 그루마 끌고 동네 한바퀴씩 돌고 회관에 가잖아. 회관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토요일에는 동서들이랑 목욕탕 가고 일요일에 교회 갔다가 회관 가서 놀고... 날 풀리면 농사 짓느라 바빠.” (연구참여자 B)

라.

마. “여기 여름에 꽃이 피면 엄청 예뻐...여기다가 빨간 꽃, 하얀꽃 이렇게 심으면 괜찮을까? 그때 놀러와... 그리고 여기에는 옥수수를 심을거야 애들이 엄청 좋아해. 뭐 어떻게 또 해서 줘야지.” (상담 후 대화 기록, 2023년 3월 25일, 연구참여자 A)

바.

연구참여자 B는 평소 거동이 힘들어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걷는다. 평소 부축이 없이는 오래 걷지 못해 항상 이웃에 사는 동서와 함께 다니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건강을 위해 이웃들과 함께 산책하고 회관 모임에 나가며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연구참여자 A 역시 두 번의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 있으면서도 봄이 다가오자 마음이 꽃밭과 텃밭 가꿀 생각으로 바꿨다. 상담 이후 함께 자택으로 걸어가는 길에 집 앞 조금만 화단과 텃밭을 가리키며 어떤 꽃을 심을지, 어떤 농작물을 심을지 고민하였다. 산책, 모임과 같은 삶의 소소한 기쁨과 노동을 통한 자기 존재감, 수확물을 나눌 기쁨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을 가졌다.

사.

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독거노인이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를 통한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한 심리치료 접근방법은 생애 통합되지 않은 자기 내러티브가 드러나도록 촉진하였으며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한 자기수용을 도왔다. 포토텔링 생애회상 인터뷰는 쇠퇴된 기억력을 일깨워 잊었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고령의 연구참여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김영순, 박봉수, 2016). 사진을 매개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상호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생애 발달단계에 따라 주요 사건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인형을 활용한 소시오그램 탐색은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명료화하여 관계 역동을 탐색함으로써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건과 관계를 통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내러티브를 탐색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도왔다.

박수근 미술관 관람을 통한 콜라주 작업은 박수근은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양구에서 태어났으며 자라 고향의 사람들과 풍경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국립현대미술관, 2021). 이에 박수근 미술관의 작품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명화와 콜라주와 같은 미술적 접근은 언어로 명료화하기 힘든 내면의 무의식을 시각화하고 숨겨진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수진(2022)은 화가들이 작품 속에서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치유를 얻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림을 보는 감상자에게도 화가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고 몰입되면서 유사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자기표현은 숨겨져 있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상처를 같은 극복할 힘과 치유적 힘을 제공하기도 한다(신영선, 2014; May, 1975).

둘째,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부정적인 삶의 내러티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인문융합치료의 중심은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재구성이다. 상담사와 연구참여자는 생애회상과 관계탐색, 관계 안의 주요 감정탐색, 인생 주요 4컷 등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이야기는 청자에게 들려지고 다시 이야기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인식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혹은 자신을 부정적임을 인식하게 했던 내러티브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자기치유를 경험하고 삶에 깨어진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을 사회가 낙인찍은 '유복자'가 아닌 '有福者'로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사회문화 맥락 안에서 OO 엄마, OO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녀를 잃은 고통을 회기를 통해 안전하게 배출하였고 수용을 넘어 고통이 선물해준 사랑 성품의 열매를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고통의 내러티브를 사랑의 내러티브로 승화시켰다. 또한 남편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철없이 놓고 돈도 모으지 않았던 철부지에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온 주체적인 여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방문 상담 차원에서 진행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자발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자발적으로 기관에 방문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양구군의 여성 독거노인은 교통시설 기반이 취약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된다(허목화 외, 2022). 이에 사회적으로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문과 지원, 돌봄 상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의 접근방법임을 시사한다(유재성, 2019).

참 고 문 헌

- 권두순, 장세나 (2021). 지역 내 독거노인 행복공동체를 위한 로(老)즐마리 프로그램 사례연구,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4(3), 146-163.
- 권요셉 (2021). 노인 우울증자의 분석가담화 기반 생애회상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석영 (2014). 집단미술치료가 농촌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 109-134.
- 권인선, 윤대현, 백세윤 (2010). 생활무용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2), 15-32.
- 김용우, 박선천, 홍석우, 김태엽 (2013).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감정노동 개선을 위한 소시오그램 시각화 설계, 2013년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 1034-1037.
- 김태랑, 장남서 (2021). 독거노인 고독사 현상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 (41), 261-291.
- 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독거노인의 자살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노인복지연구 76(2), 91-130.
- 동화진 (2022). 독거노인을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 서룡, 박선미, 황규성, 김필 (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정남기 (2016). 사진을 활용한 회상 집단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목화, 허남재, 유지영 (2022). 강원도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gwfri.gwd.go.kr/Home/H30000/H30200/boardView?board_key=91980
- 강은나·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0) 47-56.
- 국립현대미술관 (2021). 박수근: 봄을 기대리는 나목, 국립현대미술관.
- 김미라(2021). Logotherapy Intermediate Level II-A: Franklian Psychology & Attitudinal Change. 빅터프랭클 로고테라피 협회: 텍사스, 미국.
- 김영순·오영섭·권요셉·김진선·지성용 외 (2022). 『호모 내러티쿠스 : 인문융합치료의 이해』. 패러다임북스.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옥·채연숙 (2019). EPI의 문학치료와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의 융합적 활용: 성인 여성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통합학회 9(5), 793-802.
- 김예성 (2014). 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保健社會研究 34(3) 400-429.
- 김용우, 박선천, 홍석우, 김태엽 (2013).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감정노동 개선을 위한 소시오그램 시각화 설계,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
- 김유진 (2020). 고위험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개입의 만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 한국노년학 40(4), 577-598.
- 김윤영, 이석환 (2021). 농어촌 복지수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정책에의 함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111-138.
- 김주영 (2021). 노인의 행복감과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적용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정효운, 김정민 (2016). 우울한 여성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3), 49-72.
- 김진선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인문융합치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천오·정동훈 (2007).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7(2), 39-59.
- 김현정 (202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남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7(4), 313-339.
- 남석인·시지혜·정예은·채주석 (2019). 노년기 삶의 의미와 우울,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4(2), 163-192.
- 남현정 (2014).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상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웃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혜진·장은하·홍석호 (2021). 독거노인의 자살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노인복지연구 76(2) 91-130.
- 동화진 (2022). 독거노인을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마거릿 크록생크 (2016). 『나이들을 배우다』. 파주: 동녘.
- 박영임 (2017). 세 남성 노인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 삶의 경험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우 (2023). 후기노년기 노인을 위한 노인 심리운동 과제 고찰, 심리운동연구 9(1), 139-158.
- 박현숙, 전효정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자아통합감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4), 307-321.
- 백미연 (2019). 초국적 정의·빈곤 페러다임 연구:한국여성노인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21 10(5), 477-492.
- 백현희, 오현숙 (2017). 농촌 독거여성노인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술치료연구 24(2), 577-600.
- 보건복지부 (2020).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1.6.).

- 석미란, 김정규 (2011).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1(1), 65-83.
- 손미선 (2022).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별 관련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8(3), 187-196.
- 송명희·채영희·한혜경·강인옥·신명호·장세호 (2012).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서울: 푸른사상.
- 신계영, 김은경 (2014). 취약계층 여성노인의 연령주기별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3), 419-431.
- 신영선(2014).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아동화적 표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윤정·고든솔·박소은·안수란·우혜봉·이다미·이원진·장인수·정연·이지혜·임지혜·계봉오·윤홍식·전광희·MA Chunhua·Toru SUZUKI·Yeun-wen Ku·Cherng-Tay Hsueh·Yue-Chune Lee·Pramote Prasartkul·Napaphat Satchanawakul ·Thang Leng Leng·Stuart Gietel-Basten (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혜원 (2009) 노인놀이치료의 통합적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정자 (2015).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의미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불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유진 (2021).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보거복지포럼 291(-), 23-34.
- 오명희, 성승연 (2021). 자선공연을 활용한 연극치료 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7(2), 247-276.
- 오승환,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0(32), 119-147.
- 유기웅 외(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유재성 (2019). 방문상담의 이해와 실제. 복음과 실천 63, 285-313.
- 윤수진 (2022). 전입신병의 명화감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정애·강지수·배명진·이나영·이재민·전우진 (2016).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비교,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8(2) 63-39.
- 이봉희 (2013). 취약계층, 무학, 독거노인 대상 문학치료 사례-내 삶의 회고: 아름다운 소풍, 문학치료연구 26(-), 39-77.
- 이용재, 김효심 (2019)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와 등급 외자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29-37.
- 이은숙 (2019).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393-408.
- 이종인(2019). 빅토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대한 철학적 분석.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5). 여성노인의 가사돌봄 노동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3), 141-177.
- 이현지, 남현주 (2020). 시설노인의 성별에 따른 상실감과 자아통합감, 삶의 만족도 분석, 인문사회21 11(3), 247-258.
- 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월적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5-45.
- 임은경, 이현주 (2022).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0(3), 100-122.
- 임준서 (2022). 소셜 로봇을 활용한 인지증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외로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생애사적 규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12), 443-458.
- 전경숙, 장민희, 정태연 (2013). 한국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 한국노년학 33(2), 275-292.
- 전용호·이석환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초기 이슈에 대한 질적연구, 노인복지연구 77(1) 225-252.
- 정경희 (2015).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건·복지 Issue&Focus 300(0) 1-8.
- 정성호 (2019).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위험, 사회과학연구 58(1), 3-22.
- 정향숙 (2019). 암환자 삶에서 인식된 죽음.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미숙 (2017).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남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교양학연구 4(1), 109-125.
- 지성용 (2022). 『융합심리분석상담치료 : 인문융합치료적 이해와 전개』. 치유하는 도서출판 공감.
- 진영선, 『노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4.
- 최균 (2002).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노년학 22(2), 147-162.
- 최효진 (2019). 독거노인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나현(2021). 주요국 고령화 현황과 대응책 비교. [Global Insight 31]. 한국경제연구원: 18-21.
- 통계청 (2020). 2020 고령자 통계. www.kostat.go.kr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www.kostat.go.kr
-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www.kostat.go.kr
- 한상근 (2018). 절망감과 자살사고의 관계: 속박감과 우울, 살아야 할 이유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tler, R. N.(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65-76.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 Health Soc Behav*, 50(1), 31-48.
- Creswell, J. W. (2013).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5).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2017).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한유리 역). 서울: 박영스토리(원전은 2015년 출판).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aperback. York: Norton.
-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W Norton & Company.
- Frankl, V. E. (1984).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Simon and Schuster(3rd edition). (Original work published 1946).
- H. G. Gadamer. 고통: 의학적, 철학적, 치유적 관점에서 본 고통』. 공병혜 역 (2003). 철학과 현실사.
- Lim, L. L., & Kua, E.-H. (2011). Living Alone,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Singapore. *Curr Gerontol Geriatr Res*, 2011, 673181-673189.
- May, R. (1975) 창조와 용기. 안병무 역(1999). 서울: 범우사.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ler, J. C.(1981). An applic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to battered women. Ph. D.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an Diago.
- Quackenbush, S. W., & Barnett, M. A.(1995). Correlates of reminiscence activity among elderly individua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2), 169-181.
- Robert S. P. Beekes (2009).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2 vols: Leiden), Brill Academic Pub.
- Van Citters, A. D., & Bartels, S. J. (2004).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outreach services for older adults. *Psychiatric Services*, 55(11), 1237-1249.
- Yin, R. K. (2013). *Case study rese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과정 고혜진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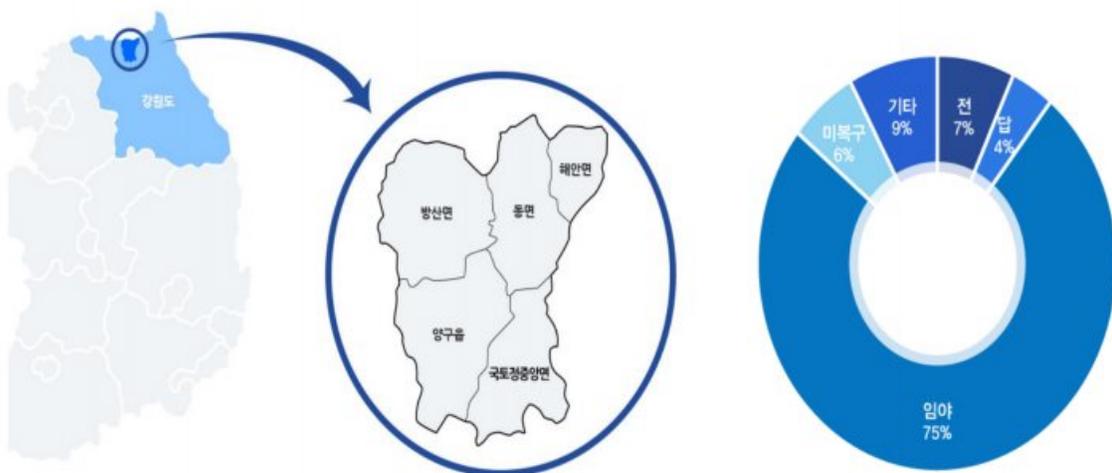
-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관 확립의 중요성
- 국가적 차원의 고등학생 대상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실시 현황
- 고등학교 교내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 현황
- 강원 지역의 18개 시군 간의 경제적 수준 격차와 경제 양상
- 양구 지역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인문케어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양구군의 특성

- 첫째, 양구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했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인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군인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 둘째, 군민들의 인구통계상 노령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향후로도 그 추세가 상승세에 있기에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젊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셋째, 지역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양구군은 한강 수계지역으로서 지역 산업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 넷째, 지형적으로도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서 개발가능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다섯째, 지역 내 영토의 상당수가 군사지역 또는 작전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박상진, 2014)

양구군 지리적 특성



국토의 경쟁양 양구군

기타 : 대지, 도로, 하천, 잡종지 등

(민원지적건축과 제공자료)

양구군 인구 현황

(2023년03월 기준 /검색일: 2023.04.17.)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양구군	21,351	10,657	2.00	11,213	10,138	1.11
양구군 양구읍	13,640	6,222	2.19	6,931	6,709	1.03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3,302	1,890	1.75	1,848	1,454	1.27
춘천시	286,850	134,626	2.13	141,586	145,264	0.97

양구군 교육기관 현황

전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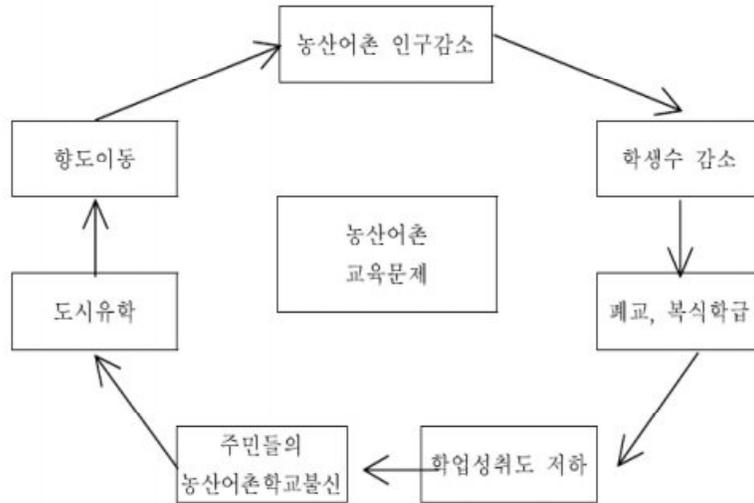


(기준일: 2021. 4. 1자)

구분	학교수	학급수(특수학급)	교직원수	학생수		
				남	여	계
유치원	10	13(1)	27	단일/혼합반		153
초등학교	10	89(8)	254	512	461	973
중학교	6	31(2)	120	254	236	490
고등학교	3	38(2)	133	439	342	781
합계	29	171(13)	534			2,455

(검색일: 2023.04.17.)

<그림 1>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



(박상진, 2014)

양구군 내 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교원수(명)	진로교사(명)	전문상담사(명)
양구고등학교	201 (9.1)	27 (남 13, 여 14)	1	1
양구여자고등학교	201 (9.6)	27 (남 10, 여 17)	1	1
강원외국어고등학교	307 (남 102, 여 205/ 8.3)	45 (남 24, 여 21)	-	-

(검색일: 2023.04.17.)

양구교육지원청 중등교육 및 학생지원 업무 현황

중등교육담당

직위	담당업무
장학사	○ 중고교육, 진로교육
진학전문지원관	○ 진학지원센터

-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71명

- 중등교육담당: 2명

- 학생지원담당: 7명

학생지원담당

직위	담당업무
장학사	○ 학생생활
상담교사	○ Wee센터 운영
상담교사	○ 상담활동 운영
상담교사	○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지원
임상심리사	○ 대외협력 연계 계획 및 운영
교육복지사	○ 교육복지센터 운영
순회보건강사	○ 보건교사 미배치교 순회

(검색일: 2023.04.17.)

춘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 및 학생지원 업무 현황

학생지원

직급(위)	담당업무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Wee) 센터 운영 관리 총괄 ☐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총괄
전문상담교사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사명 총괄 - 위기학생 지원 및 사례관리, '중증대처'운영(정) - 부모교육(정) 및 상담연력 역량강화 연수 운영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원에 연계 운영 ☐ 학교 순회상담 및 내방상담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육 운영 총괄 ☐ 찾아가는 집단상담 운영(정)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중단수리제 상담 운영 총괄 ☐ 위기학생 지원 '순환대처'운영(부)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신계 자문의 사명 운영 ☐ 외부연계(학교 지원)
전문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심리평가 보고서 및 소견서 작성
교육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사안 사안학교 지원 ☐ 교육취약계층학생 의뢰에 및 심리치료비 지원

생활교사

직급(위)	담당업무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원센터 운영 ☐ 학생생활교육 업무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 관리 ☐ 복무관리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여비, 상여금(간담회, 우편요금, 위문수당) 관련 총괄 ☐ 교육경비(학교교육비) 정산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명 관리 업무 ☐ 보건 업무
보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업무 ☐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지원센터 업무 지원

-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138명

- 학생지원: 8명

- 학교지원센터: 1명

- 학생지원센터: 1명

- 생활교육: 5명

- 학교폭력사안지원단: 8명

학교지원센터

직급(위)	담당업무
학교지원센터 장	☐ 학교지원센터 총괄

학교폭력사안지원단

직급(위)	담당업무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처리 지원 총괄(관리 포함) ☐ 정보공개,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지원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처리 지원 ☐ 학교폭력 관계회복 및 갈등전환지원단 운영(정)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처리 지원 ☐ 학교폭력 관련 연수
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관역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처리 업무 지원 ☐ 학교폭력 피해분할 조정 업무 지원
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관역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처리 업무 지원 ☐ 학교폭력 피해분할 조정 업무 지원
학교폭력 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관역별 학교(성)폭력 사안 및 민원 업무 접수, 상담 ☐ 학교폭력 관계회복 및 갈등전환지원단 운영(부)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계획 및 운영 지원 ☐ 회차록 정보공개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계획 및 운영 지원 ☐ 회차록 정보공개

학생지원센터

직급(위)	담당업무
학생지원센터 장	☐ 학생지원센터 업무총괄

(검색일: 2023.04.17.)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1. 프로그램명: 행복한 나를 위해 자진모리(자아발견과 진로성숙을 모색하는 우리)

2. 프로그램 목표:

- 인문학과 돌봄(케어)을 결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양구 지역 거주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인식 및 진로성숙도를 탐색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형화된 심리정서 검사 및 진로 체험 및 안내 활동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감정 및 욕망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적 요소를 직접 탐색하고 또래 친구들과 이를 나눔으로써 인지하지 못했던 긍정 요소들을 인지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

3. 대상: 양구 지역 거주 고등학생 중 신청자

4. 운영기간 및 회기: 2023년 8월 7- 11일(5일), 매 회기당 120분
(*50분 프로그램 후 10분 휴식, 정확한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장소: 양구군 내 학교 도서관(학교와 협의 필요)

6. 운영기간: 2023년 여름방학(정확한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명: 행복한 나를 위해 자진모리(자아발견과 진로성숙을 모색하는 우리)

회기	목표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1	자기 인식, 자기 표현	"너의 이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활동내용안내, 강사 소개 - '따 놓은 당상, 예쁜 꽃 그리기 경연대회' (꽃 그림 설명하기, 꽃이름 별칭 짓기) - '나를 닮은 캐릭터는'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 찾아서 발표하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인식하기)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2	진로 성숙도 점검, 자기 탐색	"나도 내가 궁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의 눈에서 눈을 뜨다' (클러스터 기법 - 나/ 진로) - 시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하 읽고 소감 나누기, 고쳐쓰기 - '하이 빅스비, 내 꿈을 실행해줘!' (진로성숙도란?, 시에게 나의 꿈 명령어 입력해보기 - 숨겨진 나의 욕망 탐색)

회기	목표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3	자기 탐색 및 수용, 타인 이해	"비밀(飛蜜: 꿀벌의 비상)의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飛蜜: 꿀벌의 비상)의 비밀'(1초에 200회 이상의 날갯짓을 하는 꿀벌들의 비상. '나는 어떤 날갯짓을 할 것인가'- 경험 및 성찰 나누기) - '천 번의 날갯짓도 한 걸음부터'(진로 관련 사이트 검색하기, 검색 결과 정리 및 발표, 나의 진로준비 수준 수용)
4	자기 효능감, 타인 수용	"나라는 소설을 집필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팡소리 경연대회' (미래 자서전 집필, 인생 그래프 작성하기) - 1000만원을 일주일 안에 결제해야 한다면? (인지하지 못했던 욕망) - '특종! 셉템 000 전격 분석' (내 생애 가장 뿌듯했던 일을 기사로 작성, 발표하기 / 내게 가장 소중한 감정 알기)
5	삶의 긍정요소, 긍정적 미래관	"인생 달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법의 물약 제조하기' (내가 지칠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문구나 사람 또는 노하우 적기) - '예방주사 맞을 시간' (앞으로 내 삶에 닥칠 수 있는 시련을 예상해 보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해보고 발표 및 나눔, 지지해주기)

논의 및 제언

-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행 후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닌, 프로그램 제안서의 성격을 띄기에 실제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양구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정서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도 부족하지만, 인문케어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참여하게 될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인터뷰나 설문이 선행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문헌

- 김창환, 정해용,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DMZ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화천·양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7(4), 2017.
- 김호연, 유강하, 「인문학 교육의 역할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K중학교 "인문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1), 2012.
- 박상진, 「지역 특목고가 지역역량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2(1), 2014.
- 신영환, 「예술-문화교육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창의성이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2022.
- 유강하, 「인문학, 인간다운 삶을 빛다」, 『중국어문학논집』, (65), 2010.
- 조성미, 유강하, 고혜진, 이소정, 김학찬, 「설화 리텔링을 통한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2022.
- 진기영,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9.
- 최종안, 「강원도 지역의 행복 진단」, 『사회과학연구』, 58(2), 2019.
- 허재홍, 「문화성향에 따른 긍정정서 경험빈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2011.
- 허재홍, 「긍정정서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3(1), 2012.
- 황매향, 『학업상담』, 학지사, 2014.
- 황현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2016.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 Emotion*, 14, 93-124. 2000.

감사합니다.

「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토론문

조 성 미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 1차

강원도는 현재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위험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문학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표자님의 인문융합치료 사례연구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양구지역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얻게 된 의미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학제 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기법과 매체들이 녹아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이 삶에서 자신을 어렵게 했던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재구성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수용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프로그램은 양구군 여성독거노인의 자아통합에 유의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꼼꼼한 선행연구 분석과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회기에 걸쳐 발표자께서 직접 양구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세히 기록한 결과물들을 보며 연구자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도 기대를 담아 응원을 보내드리며,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또는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낮은 학력’은 강원도 여성 독거노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연구참여자의 한글 문해력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콘텐츠 구성이나 활동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력은 프로그램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연구참여자의 학력(문해력)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었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글로써 자신의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활동보다는 사진, 인형, 미술, 구술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한글 문해력 정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쪽 작품 결과물(먹물 그림책)에는 그림과 함께 글도 관찰되는데, 연구참여자들께서는 글쓰기 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요?
2.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원들이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간 라포 형성 정도나, 공감 및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참여자의 유무에 따라 자기표현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3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 지역에 최소 38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이웃들과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다고 하였는데, 발표자께서는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그들의 내러티브 재구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프로그램 진행 시 양구 지역의 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참가자들이 더 친숙하고 흥미롭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문예술콘텐츠를 활용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지역성을 살린 인문예술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발표자님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고혜진선생님의 발표문 [지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제안 - 양구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은 강원도 양구지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연구입니다. 특히 양구지역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탐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정체성의 혼란,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통하여 부정정서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구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에 적절한 심리적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진로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양구군의 초등학생(973명), 중학생(480명), 고등학생(781명)의 분포는 일반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수의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구군 학생 수 분포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양구군을 넘어서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양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의 견해를 청해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내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은 Wee 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고 진로활동프로그램은 주로 진로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심리정서지원과 진로지원 모두를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이루고자 하는 심리정서지원의 목표와 진로지원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제시한 진로성숙은 수퍼(1955)의 진로발달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각 발달 단계마다 이루어져야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진로성숙은 자아의 이해(장석민 외, 1991; 이현림 2001)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진로성숙 정도를 통하여 자기이해 및 자기인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성숙을 탐색하는 것이 자기인식 과정이 포함된 것인데 선생님께서 자기인식과 진로성숙도를 구분하여 목표를 세우신 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크리티스(Crites, 1978)가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로발달 양적연구의 척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로 진로성숙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2. 연구배경에 국가적 차원의 고등학생 대상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현황과 그들을 위한 학교 내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 그리고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정서와 프로

그램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구지역의 특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양구지역의 긍정적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긍정적 특성을 찾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양구지역의 인구현황을 춘천과 비교하여 남녀 비율 분포를 제시하였는데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인지 프로그램 구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구지역 학생들의 특성이 궁금합니다. 양구지역 학생들의 가족구성의 형태, 1인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자료를 통한 가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지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구군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 분포는 흥미롭습니다. 초등학생(973명), 중학생(480명), 고등학생(781명)의 분포는 신혼가정의 유입이나 증가로 인한 자녀증가로 초등학생 수가 증가 되었거나 또는 중학생들의 타지역으로의 이탈 그리고 중학생의 학업중단, 중도입국학생 수 증가 또는 타지역고등학생의 유입 등의 여러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분포에서 중학생 수의 급감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희준(2019)⁴⁾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지역은 예외적으로 중학생의 급감과 고등학생의 증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 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4. 본 자료에는 박상진(2014)을 제시하였는데 10년 전 연구로 최근 자료가 궁금합니다. 양희준(2019)은 농촌지역 학생 수의 변화는 자연적 감소가 아닌 사회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저출산의 영향뿐 아니라 학생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의 이동에는 교육외적요인으로 부모의 도시이주 또는 열악한 농촌지역사회여건, 그리고 교육 내적요인으로 열악한 농촌학교교육과 좋은 대학진학압력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양구지역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프로그램의 회기 목표와 활동내용 구성의 맥락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및 수용과 타인이해 및 수용 그리고 긍정적 미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반적 내용은 일반적인 진로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양희준(2019). 농촌의 학생수 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Research Brief, 12, 1-12.

2023 다문화융합연구소 논문지도 워크숍

☑ **일시** : 2023년 5월 19일 20:00-21:30; 20일 10:00-17:00

☑ **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인문학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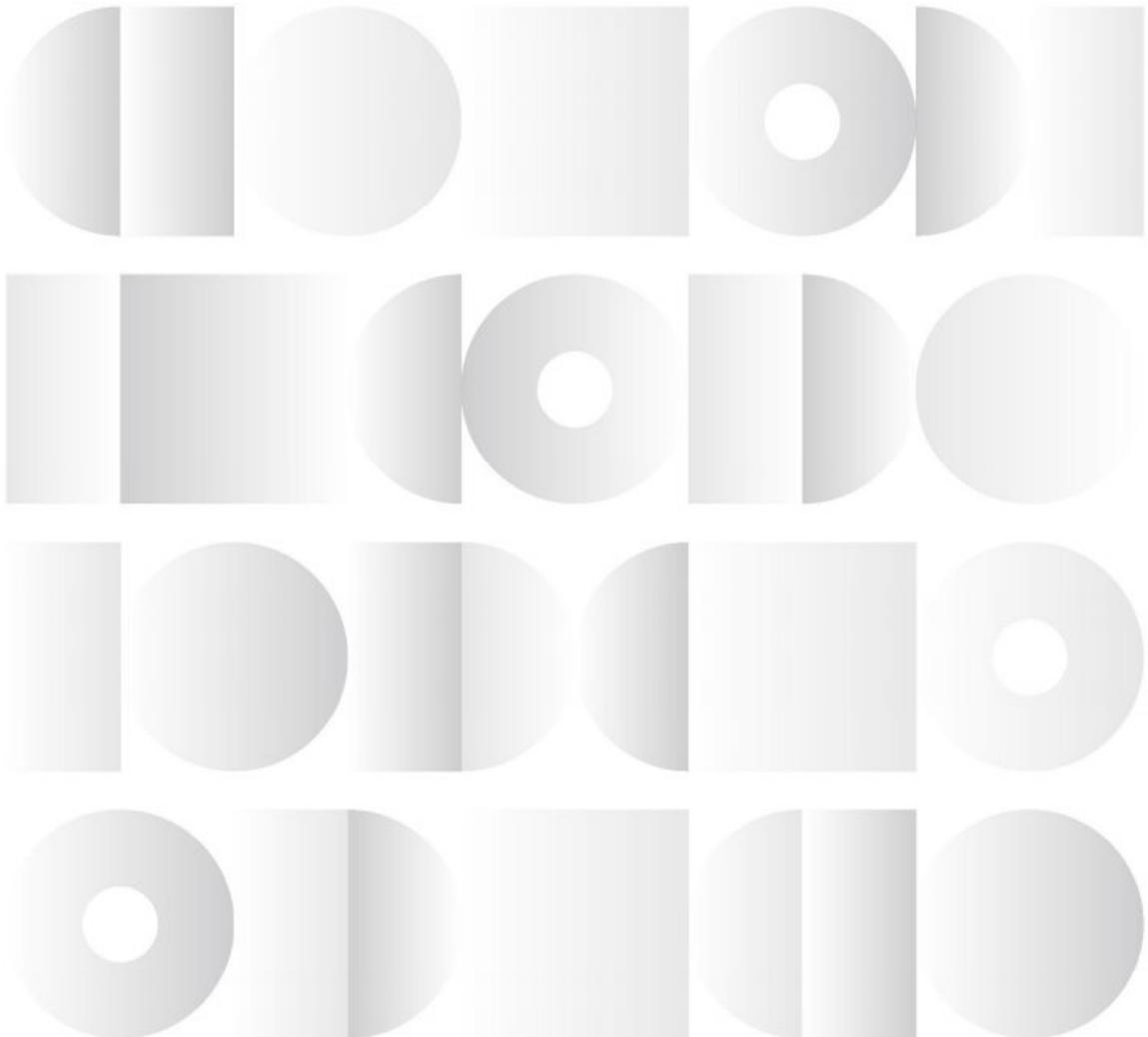
☑ **참가**

BK : 김영순(연구단장), 오영섭(참여교수), 권요셉, 장현정(연구교수), 최수안, 김혜미, 문희진, 서현주, 남정연, 최현정, 황윤아, 곽민정, 유희수, 함보연 (참여원생)

멘토박사 : 황해영, 정경희, 김진선, 윤수진

지도원생 : 김도경, 강번영, 정대영, 정연주, 김은희, 김명희, 홍근호, 정화정, 신혜정, 박지성

☑ **주최**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상호문화실천팀),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 프로그램

날짜	구분		내용	시간		지정논평
19일	서현주	4차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20:00	20:30	권요셉
	김혜미	4차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에 관한 여성주의 생애사	20:30	21:00	정경희
	신혜정	5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 프로그램 사례연구	21:00	21:30	오영섭
20일	김영순 교수님		개회사	10:00	10:20	
	남정연	5차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0:20	11:20	황해영
	김도경	4차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1:20	12:20	윤수진
	점심식사			12:20	13:20	
	문희진	4차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혼합연구	13:20	13:50	장현정
	김형석 교수님 특강			14:00	15:00	
	김은희	5차	대학생의 다문화 멘토링 참여경험에 나타난 행위자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15:30	16:30	장현정
	정화정	7차	비행청소년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경험연구	16:30	17:30	권요셉
	정연주	4차	노인 대상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프로그램 실행연구	17:30	18:00	김진선
	김영순 교수님		폐회사	18:00	18:20	

중도입국 청소년의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 현 주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주요 현상인 국제 이주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다(김송렬·장안서, 2021).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은 최근 들어 국제결혼가정 외에도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 부모와 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독립국가연합(CIS) 권역출신 고려인 후손 등을 포함하며 그 유형과 수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서은주, 2021). 그중 외국에서 성장기를 거쳐 입국하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양미진 외, 2012; 연보라 외,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모국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연령인 자”라 정의한다(여성가족부, 2022).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생애 발달과 환경적 특성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주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고향과 친구들과의 준비 없는 이별 경험으로 인해 상실과 애도에 대한, 해결되지 않고 억압된 정서가 있다. 이주 후에도 새로운 가족과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와 미해결되어 억압된 정서는 이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과 맞물려 부적응을 초래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밖에 교육 제도권의 보호나 심리·정서 지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어려움 등 자립에 대한 요구 또한 무거운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위축, 자신감 상실 등을 경험하며 이는 건강한 발달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김명정, 2011; 한은진, 2013).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교육지원의 필요성(김은경, 김현주, 2017; 김진희, 2011), 심리·정서지원의 중요성(서현주, 오영섭, 2022; 성수나, 2021; 오영섭, 2019; 왕금미, 2017; 최미희, 박재연, 2022), 대학 진학, 진로 선택, 취업 등 자립과 정착을 위한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확장하였다(고은영, 2022; 김민선 외, 2022; 채소린, 2022; 최성지, 김민선, 2022). 이 밖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첫째, 이주 후 초기 적응(송민경 외, 2017; 양미진 외, 2012; 이재희 외, 2014), 둘째, 가족생활 적응(석희정 외, 2015; 최영미 외, 2020), 셋째, 학교생활 적응(이남주 외, 2017; 이병철 외, 2011), 넷째, 문화 적응(강수경, 2021; 김영순 외, 2012; 남부현 외, 2017), 다섯째, 사회 적응 영역을 탐색하였다(김효정 외, 2018; 박선

용 외, 2013; 전경숙, 2020; 설진배, 2021). 이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학교·사회 등의 관심과 지지 및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까지 더하여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고 적응을 돕는 비언어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의 중재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 정서를 경험하던 중도입국 청소년이 예술치료에서 흥미 유발, 부정 정서 이완 등을 통해 억압된 내면의 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김연정, 2015). 예술치료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혼란스러운 이중문화 스트레스 속에서도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자기주도적인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로 상호 소통의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민향식, 2017; 황현정 외,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중재적 개입에서 예술치료는 이들의 정서 안정 및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기 개념을 정립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자신의 주체성을 생성하는 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할 때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현예술치료는 무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글쓰기, 시, 이미지, 명상, 즉흥극 등을 통합하여 내담자의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창조성을 일깨우도록 촉진한다(나탈리 로저스, 2007). 이러한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기개념을 확립하도록 돕고 주체성을 일깨워 가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을 통해 심리·정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체성 생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융화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발전과 공존을 모색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이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를 주체성 생성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이중 문화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 등 적응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2. 이론적 논의

2.1. 중도입국 청소년과 주체성 생성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유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이들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도입국자녀, 미등록 이주아

동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 자녀, 탈북청소년을 통칭하여 부른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크게 두 유형으로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와 한국에 취업 이민 온 부모를 따라 동반 이주한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를 ‘다문화가족 자녀’로 통칭하며,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취업 이민 온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혹은 ‘이민 배경 자녀’로 쓰고 있는데, 이렇듯 정부 부처마다 사용하고 있는 정책 용어와 관심 대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선택이라기보다 부모의 환경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함으로써 부여받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한국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전경숙, 2017).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이중 문화 적응과 이주 과정에서 겪는 가족 내 갈등 심화나 부모와 자신 간의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외상과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이은정, 2019).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교육 및 직업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정서 발달과 적응의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이들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과 주체성 생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집단표현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는 창조적 예술과 치료적인 작업을 통합하여 심리치료 과정의 한 측면인 창조적 생명력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eativity'란 라틴어의 'Creo(만들다)'를 어근으로 하는 'Creatio(창조)'에서 유래되었다(김명철, 2007). 창조성 혹은 창의성(creativity)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산물을 의미하며, 고차원적인 지적 과정과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순영, 1987). 표현예술치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무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글쓰기, 시, 이미지, 명상, 즉흥극 같은 것을 포함한다. 표현예술치료는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이용한다.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합한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창조성을 일깨우도록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깊은 내적 정서로부터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과 외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나탈리 로저스, 2007).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경계(Boundary)’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상 체계를 구분해 주는 일종의 테두리로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로 구분된다. ‘체계(system)’란 경계로 구분된 테두리 내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즉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보고자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상세히 기술하게 한다(Stake, 1995).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연

구 방법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에서의 삶을 이루며 다양한 적응과 자립의 과정에 있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라는 독특성과 고유한 맥락 내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 5명 정도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할 예정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집단표현예술치료 집단프로그램 프로그램 12회기를 주 1회, 매 회기 90분 진행하여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예술작품 및 자료, 소감문, 음성녹음 파일, 연구자의 연구자 노트를 수집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심층 면담 자료를 2차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 참여자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기별 녹취록을 프로그램 진행 당일 전사하고, 기초 분석이 끝난 후 다음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한 자료, 연구자가 기록한 회기 관찰 메모, 문헌 자료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봄에 내용을 파악하고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결과를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분석한 자료는 지도 교수와 멘토 교수, 동료 연구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심리상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및 예술심리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경(2021). 다문화사회와 국제이민자 문화적응 연구 : 러시아어권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이론적 검토). 러시아유라시아연구. 6(-), 41-58.
- 김명정(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학회지, 17(2), 55-76.
- 김민선·김재훈·장현진·이수현·전경숙(2017).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택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1-141.
- 김송렬·장안서(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네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 김연정(2015).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2), 93-115.
- 김영순·김금희(2012).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 사업 참여 대학생 멘토의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0(33), 453-476.
- 김은경·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진희(2011).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다문화교육연구. 4(2), 43-72.
- 김효정·조규필(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 59-103.
- 나탈리 로저스(2007).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이정명, 전미향, 전태옥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부현·김지나(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1), 63-90.
- 민향식(2017).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중국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웅·우현정(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 중도입국 학생의 적응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이론. -(4), 211-258.
- 서은주·차승은(2022).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119-141.
- 서현주·오영섭(2022).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중재프로그램 관련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교육치료연구. 14(2), 267-285.
- 석희정·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성수나(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융합연구. 4(1), 51-78.
- 송민경·김진원(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입국 전·후 삶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 103-139.
- 오영섭(2019).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 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금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미진·고홍렬·김영화·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 여성가족부(2022). <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2023.01.27. 인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2019). 이주배경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승환·좌현숙(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0(32), 385-412.
- 이남주·김민(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 이병철·송다영(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3(4), 131-154.
- 이은정(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 하위 유형별 우울의 변화와 예측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희·김기현(2014).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눈을 통해 본 이주 후 초기적응 경험-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0(45), 103-130.
- 전경숙(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 채소린(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3), 177-211.
- 최미희·박재연(202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2), 1-29.
- 최영미·송영호(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4), 189-213.
-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 가족 자원 경영학회지. 17(2), 195-218.
- 황현정·이윤정(2016). 푸드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55-176.
-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3편.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Stake, R.(1995). *The art*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려들로 함께-되기에 관한 여성주의 생애사

김혜미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1. 서론

인간의 사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항의 대립에 갇혀 있었다. 남성/여성, 인간/비인간은 대표적인 이항 대립적 사유의 산물이며 여기에서부터 위계와 서열이 발생하게 된다(김은주, 2014: 102). 이분법의 항들에서 앞에 오는 항이 동일성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뒤따라오는 두 번째 항은 열등하고 모자란 것이 되기 때문이다(최유미, 2016: 27). 그러한 사유에서 보편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차이는 부정적인 것이 된다(김성금, 2015: 19).

현대 철학자들은 기표의 유희, 의미의 불확정성, 차이와 반복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이러한 이항의 구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이창재, 1999: 140). 서구의 이분법적 사색 틀의 뿌리를 해체하고자 하였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물론이고(김영주, 2004: 185) 이항 대립의 해체를 통해 기존의 구조 속에 작동하는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였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시도는 인류의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조애리·김진옥, 2016: 267). 나아가 이항의 경계 유무에 의문을 제기한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변칙 범주(anomalous categories)’⁵⁾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김영순·정찬영, 2009: 119). 어떤 것도 완전한 개별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성찰에서다. 이와 같은 사유의 흐름은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연구에서 주요한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이 된다(김영천, 2016: 79).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에게도 이항의 해체는 중요한 테제이다. 해러웨이는 두 번의 선언(manifesto)을 통해 급진적인 방식으로 기존 사유의 전복을 시도하였는데 사이보그 선언과 반려종 선언이 그것이다. 여성-동물-기계가 융합된 모습으로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재형상화함으로써 그녀⁶⁾는 출산과 양육만을 담당하는 전통적 여성상의 기호를 뒤흔들고자 하였다(최유미, 2020: 26). 해러웨이에게 있어 기존의 형상을 해체한 결과로 일어나는 경계들의 혼란은 도리어 즐거운 놀이에 가깝다(김애영, 2016: 21).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명명된다. 2023년 2월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2,162,358명으로(법무부, 2023) 이주배경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김상수, 2023; 심민규, 2022). 위에서 설명한 철학자들의 노력이 무색하도록, 이분법적 사유는 다문화사회로 수식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정주민/이주민이라는 이항의 구도에 갇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다. 이때의 정주민은 시혜의 주체로 고정되며 이주민은 수혜에 감사로 응답해야 하는 타자가 된

5) ‘변칙 범주’란 이항대립된 양쪽 범주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어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범주를 의미한다(김영순·정찬영, 2009: 119).

6) 학문적 글쓰기의 관례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비판적 의식에 기반한 프락시스(김영순, 2020: 30)로서 ‘그’가 아닌 ‘그녀’라고 지칭한다. ‘그’는 대부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삼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다(김성금, 2015; 우라미, 2019; 조영달 외, 2012; 조혜영, 2017). 다시 말해, ‘도움을 주는’이라는 항을 중심으로, 반대의 항은 ‘도움을 받는’이 되는 식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주민은 항상 도움을 받는 객체이어야만 할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⁷⁾의 생애 과정에 나타난 여성 이주민과의 함께-되기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여성 목회자는 정주민으로, 정주민/이주민이라는 이항의 구분으로 볼 때 여성 목회자는 정주민, 여성 이주민은 이주민이라는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들에게는 이항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변칙 범주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모두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때의 소수와 다수는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한정현, 2016: 283)으로, 다수자가 정한 사회적 척도로 인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을 소수자라고 지칭할 수 있다(김성금, 2015).

여성들은 주체인 남성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오랜 시간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왔다(최현경·강진숙, 2020: 141). 이러한 이해에서 여성 이주민이 소수자라는 것은 비교적 쉽게 수긍된다. 여성과 이주민이라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첩되므로, 남성 이주민과 비교할 때 여성 이주민이 직면하는 역압은 다면적이며 교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정현주, 2015). 그에 비해 여성 목회자가 소수자라는 것은 다소 의외로 들린다. 여성으로서는 소수자일지 몰라도 기독교의 지도자인 목회자로서는 다수자에 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지도자임에도 여성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지도력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강남순, 1998; 김혜미·김영순, 2022; 이정숙, 2003, 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 역시 소수자의 위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남성 중심적인 한국 기독교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강희수, 2013; 김모란, 2013; 김은혜, 2009; 김진호 외, 2018; 강호숙, 2020).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여성 목회자와 여성 이주민은 그들을 둘러싼 차이들이 있음에도 여성으로서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여성 목회자와 여성 이주민의 정주민/이주민으로서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중요한 변칙 범주이며 해러웨이의 전복적인 사유는 그 경계를 마침내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움을 준다.⁸⁾ 그러나 여기서 해체는 데리다의 주장처럼 의미의 무의미화를 추구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김영천, 2016: 79) 궁극적으로 이 해체는 정주민이나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길을 열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해러웨이의 대안적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사이보그 선언보다 반려종 선언에 있다. 반려종은 빵을 함께 나누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 단어 ‘반려’에 생물학적 분류인 ‘종’을 붙인 것으로(Haraway, 2008: 373) 해러웨이가 이야기하는 식사 동료로서의 반려는 부계 중심의 혈연관계로 연결된 식구와는 다른 의미의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이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자가 혈족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최유미, 2020: 31) 한국 사회 특유의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일에도(임혜정, 2017: 1) 유용한 개념이다. 해러웨이가 개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려종은 반려동물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주이며 장내 미생물, 곡류, 기계 등 ‘덕분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⁹⁾ 포함한다(최유미, 2020: 32). 반려종

7) 본 연구에서 여성 목회자는 개신교의 여성 성직자를 가리키며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와 제도의 미비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목회자, 즉 여성 전도사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본래 기독교의 범주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모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러웨이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자연문화’라고 말의 형상을 바꾸었듯이(Haraway, 2008: 373) 정주와 이주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정주이주’라는 새로운 말을 직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9) 해러웨이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었던 아버지의 목발마저도 함께 유능한 신체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하나의 반려종

선언을 통해 해러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성의 패턴이며, 그녀에 의하면 반력종의 모든 파트너들은 관계하기에 앞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함께-되기의 결과이다(Haraway, 2008: 29). 이러한 해러웨이의 사유는 함께-되기의 존재론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현남숙, 2021: 86) 정주민/이주민의 이항 구도에 갇히기 쉬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다중 간의 응답 능력¹⁰⁾에 주목한 해러웨이의 반력종 개념에 착안해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력들로 함께-되기¹¹⁾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들의 함께-되기 경험 안에 정주민/이주민이라는 이항의 구도가 어떻게 해체되며 재구성되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자문화중심주의가 강력한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한국의 다문화사회(김도희·장임숙, 2016; 김학태, 2015)에 새로운 관계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목회자의 생애 과정에서 응답 능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여성 목회자의 여성 이주민과 반력들로 함께-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3.1. 방법론: 여성주의 생애사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여성주의 생애사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 여성 목회자로서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질적 연구는 구성(construction) 그 자체이며 구성자인 연구자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김영천, 2016: 155).

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백소영, 2018: 20). 생애사 연구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이동성, 2015: 29) 이 둘은 무관하지 않다. 여성 연구는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강현아, 2002: 171),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교회 구조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 목회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여성 연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며 기존의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비판적/페미니즘(김영순 외, 2018: 28)을 기반으로 한다.

으로 제시한다(Haraway, 2008: 213).

10) 해러웨이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영어 단어를 해체하여 응답(response)+능력(ability)으로 재구성한다. 그녀는 함께 사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환하며 응답 능력을 함께-되기의 핵심으로 제시한다(최유미, 2020: 43).

11) 해러웨이가 '종'을 관계의 개념으로 재의미화했음에도(현남숙, 2021: 86), 언어의 기호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종을 뺀 뒤 '반력들로 함께-되기'로 명명하였다. 반력종 선언은 인간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까지를 논의의 범주에 포함하지만(최유미, 2020: 23),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함께-되기를 탐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 반력들의 함께-되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생애사 연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발견된다. 생애사 연구는 1940년대 중반부터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들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영천, 2013: 201). 그러나 여성주의 생애사 연구가 생물학적 여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두 은유로서 여성이며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백소영, 2018: 21).

참 고 문 헌

- 강남순(1998). 페미니즘과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 강현아(2002). 5·18 민중항쟁과 여성 활동가들의 삶: 여성주의적 접근, 한국사회학, 36(1), 171-194.
- 강호숙(2020). 보수기독교 내 젠더인식과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학과사회, 34(2), 109-148.
- 강희수(2013). 한국 여성신학과 여성목회현장의 만남, 651, 34-45.
- 김내훈(2021). 프로보커터, 서해문집.
- 김도희·장임숙(2016).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적 고찰, 민족연구, 68, 141-161.
- 김모란(2013). 양성평등적 목회를 위한 여성 지도력 연구, 한국여성신학, 77, 94-116.
- 김상수(2023).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담론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6), 53-62.
- 김성금(2015).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창조적 소수자'의 가능성 모색 - 탈근대적 가치탐색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4(1), 5-29.
- 김영순·정찬영(2008). 구조/탈구조와 우리: 한국 전통 장례에 대한 레비-스트로스 기호학적 분석: "변칙 범주"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4, 115-140.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순 외(2020).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박이정.
- 김영주(2004). 시민사회이론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데리다 사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 데리다의 로고스중심주의와 이항대립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NGO연구, 2(2), 179-216.
- 김영주(2021).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절과 공생: 계층과 종족의 역학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55(4), 71-117.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녀(2021).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275, 22-30.
- 김용민(2011). 상호돌봄으로서의 목회적 돌봄과 페리코레스시스, 복음과실천신학, 23, 246-274.
- 김은주(2014).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 새로운 신체 생산과 여성주의 정치, 한국여성철학, 21, 95-119.
- _____ (2019).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 김은혜(2009).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교회 여성운동, 한국여성신학, 69, 11-15.
- 김애영(2016). M. 데일리의 여성신학과 D.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 대한 비판적 연구, 신학연구, 53(1), 7-33.
- 김진호 외(2018). 혐오와 여성신학, 동연.
- 김학태(2015).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9(1), 281-301.

- 김혜령(2022). 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으로서의 한국 교회—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 신학사상, 196, 307-346.
- 김혜미·김영순(2022).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여성연구, 115(4), 363-387.
- 박보경(2016). 선교적 과제로서의 젠더 통합적 리더십(Gender Inclusive Leadership) 형성을 위한 방안, 선교신학, 41, 147-178.
- 법무부(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2월 통계월보.
- 백소영(2018).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 백은미(2017). 기독교 교육과정에 내재한 여성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 41-73.
- 신지영(2008). 들뢰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 그린비.
- 심민규(2022).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3), 161-182.
- 오정란(2001). 언어기호의 한계성에 대한 이상의 고발과 시적 변용, 인문언어, 2, 21-46.
- 우라미(2019).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정자(2021). 교회의 유리 천장 깨기—구술사를 통한 북미 한인 이민 여성 리더십의 초국가적 교차적 차별성 인식, 신학사상, 193, 335-369.
- 윤유석(2016). 표상주의, 변증법, 역사성 = 헤겔의 경험 개념에 근거한 표상주의 비판, 철학사상, 61, 217-244.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 이정숙(2003). 한국개신교 여교역자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 113-171.
- 이창재(1999). 이분법적 사유와 탈이분법적 사유. 철학연구, 46, 139-167.
- 임혜정(2017).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임희숙(2012). 한국 교회여성의 의식 분석과 한국 교회의 과제, 신학과사회, 26(3), 73-101.
- 정소민·김영순(2015). 시민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프락시스 개념 탐구, 시민교육연구, 47(4), 241-271.
- 정현주(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289-303.
- 조승미 외(2014).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서울: 동연.
- 조영달·박선운·박윤경·김재근(2012).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학교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2), 163-197.
- 조애리·김진옥(2016). 들뢰즈와 가파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연구, 16(1), 265-284.
- 조혜영(2017).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11(3), 135-159.
-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 최은주(2007). 포스트휴먼 시대에 재배치되는 성과 몸: 다너 해러웨이의 공의존적 복수주체. 비평과이론, 12(2), 169-195.
- 최현경·강진숙(2020). 20대의 미디어 여성 이미지 재현에 대한 인식과 '여성-되기'에 관한 질적 연

- 구, 한국방송학보, 34(2), 140-176.
- 한정현(2016). 들뢰즈/가타리 관점에서 본 소수자 신학 연구, 신학사상, 175, 281-313.
- 현남숙(2021).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함께-되기'와 '응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5, 79-106.
- Haraway, D. J. (2008). When Species Meet. 최유미(역)(2022).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 Haraway, D. J. (2016). Manifestly Haraway. 황희선(역)(2019).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 Haraway, D. J. (2021).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최유미(역)(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 마농지.
- Nussbaum, M. C. (2018). The Monarchy of Fear: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임현경(역)(2020).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알에이치코리아.
- Reichholf, J. H. (2017). Symbiosen Das erstaunliche Miteinander in der Natur. 박병화(역)(2018). 공생, 생명은 서로 돕는다. 이랑.
- Schneider, J. (2005). Donna Haraway: Live Theory. 조고은(역)(2022). 도나 해러웨이.

다문화청소년의 Flourish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 실행연구

신혜정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표”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해마다 세계 146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591로 57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린이재단이 2023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¹²⁾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86.9%에서 행복지수가 상중하 가운데 ‘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은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했고 공부시간은 적정기준에 비해 14.5%가 초과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충동적 자살사고, 보호자의 방임, 학대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2022년 대비 7.7%에서 10.2%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베일런트(George Eman Vaillant)는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성인기에 자기감정을 존중하며 긍정적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Vaillant, 2010).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분분하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은 행복의 일원론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행복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웰빙의 개념으로 Flourish한 삶을 제시했다. Flourish란 라틴어 ‘Florere(꽃이피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꽃이 활짝 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번성, 번영으로 해석되고 있다(Seligman, 2011). 긍정심리학은 기존 심리학의 문제중심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적 패러다임은 앞에서 제시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웰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심리치료적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금의 한국사회는 세계적 흐름인 초국적인 문화교류와 이주로 인해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12) 국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23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2,231명을 조사한 결과, 86.9%에 달하는 1,940명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상,중,하 가운데 ‘하’로 나타났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 인구가 자국민 총 인구의 5% 이상일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 되기 시작했다(손한결, 2020).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23년 3월 기준 2,246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37%이다. 이는 COVID - 19 영향으로 2019년 4.87% 수준에서 2021년 기준 3.79%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출입국통계월보, 2023). 이러한 흐름 속에 다문화가정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현재 총 인구대비 15.8%인 814만 7천명으로 전 년도에 비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8.6%인 16만여 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a).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다문화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정책의 혼돈과 부재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다문화가족들의 우리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다양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정체성은 부정 응답율이 2018년 대비 9.3%에서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중단의 이유에는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54.5%로 가장 높았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왕따)경험은 전체의 49.1%로 가장 높고 말로 하는 헐박이나 욕설 등 폭언의 경험은 43.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 2022).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부적응, 또래관계에서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교적응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래혁, 2020).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인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3). 신체적으로는 이차성징과 함께 성적성숙이 이루어지며 인지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발달로 인해 논리적 반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서적 변화로는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감정기복이 심해지며 짜증과 신경질, 우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의존관계에서 정서적 독립을 시도하며 또래관계를 중시하게 된다(도현심 외, 2011; 정옥분, 2021).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청소년기는 입시 위주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또래 괴롭힘, 게임 중독, 가출, 흡연과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이 나타나는 시기이다(박아청, 2004).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실패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부족,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고(하승수, 2015)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교육부, 2018). 이들은 또래관계 문제 발생 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 보니 경직된 성향을 드러내거나 부정적 사고와 문제 회피의 방법으로 등교 거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기력과 무관심, 비자발적 태도이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감(Erikson, 1963; Marcia, 1966)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해 가고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긍정적 대인관계 확립에 필수적인 요

소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정옥분, 2016; 한상철 외, 2012).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입시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의 팽배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청소년 우울이나 또래 괴롭힘, 게임 중독, 가출, 흡연과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아청, 2004; 하승수, 2015).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대처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직된 성향을 드러내거나 부정적 사고와 문제회피의 방법으로 등교 거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기력과 무관심, 비관적 사고, 비자발적 태도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핵심 주역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학교나 심리상담의 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현장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놀이치료가 활용되고 있다(김희정 외, 2022). 보드게임 집단 놀이치료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진행되며 규칙 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긴장을 완화 시키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또래관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희, 2011; 김보라, 2015; 최혜선, 2015). 또한, 보드게임 집단놀이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감소,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일명 외, 2006; 이화영 외, 2007; 조혜영, 2007; 권희연 외, 2012; 조아라 외, 2013; 구향남외, 2015 이영애, 2016; 김보라 외, 2016; 안선정 외, 2018; 박경민 외, 2019; 이지희 외, 2021). 특히, 보드게임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력과 집중력, 순발력, 언어이해력, 공감능력 등 인지능력과 긍정적 정서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경민, 2018; 조영란, 2018; 홍주연, 2017; 권윤정, 2017; 선우현, 2007; 조혜영, 2007).

이 밖에도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ADHD 아동(임영진, 2013, 이윤정 외, 2018; 김민석, 최진아, 2015), 학대받은 아동(이영애, 2016), 방임아동(2006)을 대상으로 한 보드게임 놀이치료에서도 사회성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아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집단 보드게임 놀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오혜진 외(2021)와 추아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공격성향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드게임 집단 놀이치료에서 이들의 공격성향 감소, 자기조절능력 향상, 또래관계 긍정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인경(2020)은 경계선 지적기능 장애 아동에게 보드게임을 실시한 결과 실행기능이 향상되며 인지능력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놀이치료 현장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Schaefer, 2012). 상담에서는 다양한 내담자의 사례와 주 호소문제, 증상 등에 맞추어 다양한 상담학적 이론이 접목되고 있다. 하지만, 보드게임놀이치료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이론적 관점에서 비구조화된 놀이치료가 적용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놀이치료 현장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숙련 놀이치료사 조차도 보드게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보드게임의 선정과 활용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김연순 외, 2016; 안선정 외, 2018). 특히, 놀이치료 분야에서 다른 매개체를 활용한 연구 수에 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보드게임을 전 회기에 적용하여 구성된 질적 실행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와 긍정심리학 기반의 강점을 결합하

여 다문화청소년의 Flourish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문제 중심의 심리치료에서 간과해 온, 개인의 강점과 낙관성에 초점을 두고 Flourish를 증진하여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존 심리학의 문제 중심의 부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웰빙의 5요소인 팔마(PERMA)를 통한 내면의 긍정심리 강화에 관심을 둔다(Seligman, 2011). 팔마는 웰빙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Flourish 증진은 팔마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 기반의 Flourish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잠재된 강점과 내면의 긍정심리를 강화시켜 그들이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Flourish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드게임 놀이치료 현장에서의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드게임을 놀이치료에 활용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2-1. 긍정심리학과 플로리시

긍정심리학은(Positive Psychotherapy)은 1998년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에 의해 창시되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내면의 긍정심리를 확장시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Flourish 증진 추구에 그 목적을 둔다(Seligman, 2002). 셀리그만은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적 질병과 질환에 집중하여 그 해결방안과 심리적 치료에 몰입 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심리치료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 하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간과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측면과 미덕, 강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로 재직 당시 “손쓸 도리없이 망가진 삶은 이제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언하며 미하이 칩센트 미하이, 레이 파울러 등의 심리학자와 함께 긍정심리학의 기초 이론을 만들고 발표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초기 이론은 인간의 행복에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행복’의 일원론적인 한계점¹³⁾을 보완하여 Flourish의 개념으로 확장하며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Seligman, 2011).

Flourish란 라틴어 ‘Florere(꽃이 피다)’에서 유래하여 13세기 중세에는 ‘Florris(꽃)’로 쓰였다. 이후 14세기 중반 번성, 번영의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Seligman, 2002). 플로리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13) 마틴 셀리그만은 일원론의 한계점에 대해 인간의 모든 동기가 하나로 귀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원론은 최소의 변수에서 대부분의 결과를 추론해 내며 가장 단순한 답이 바른 답이라는 철학적 원칙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최소 수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변수가 너무 적어 특정 현상의 다양성과 미묘한 차이를 해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어떤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한다(Seligman, 2011).

통합적 개념으로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다(Schotanus Dijkstra et. al., 2016; Xu, chan-chan et. al, 2022에서 재 인용). Flourish 증진을 위한 세부 목표로 웰빙의 5요소인 팔마(PERMA)가 있다. 팔마는 긍정심리학에서 Seligman이 강조한 모델로 사람들의 성취감과 Flourish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팔마는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를 의미하는 단어의 앞 글자를 의미한다. 팔마는 곧 웰빙을 의미한다. 셀리그만은 팔마를 통해 플로리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요소로는 웰빙의 측정이 불가능하며 각 요소가 각각 중요하다. 다섯 가지 팔마의 요소 중 일부는 주관적 측정이 가능 하지만 객관적 측정이 사용되기도 한다.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는 기쁨, 편안함, 존경, 따뜻함, 희망, 만족 등의 긍정정서를 의미하며 플로리시의 첫째 요소이다. 긍정정서는 과거,현재, 미래의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함양과 지속성을 확장하는 기술로 이루어 진다(우문식, 2021). 몰입(Engagement)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빠져들어 몰입한 상태를 이르며 긍정 정서와 더불어 주관적 측정의 요소이다. 웰빙의 요소에서 긍정 정서와 몰입은 다른 요소를 얻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몰입은 어려운 과제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경험되기 쉬우며 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표 강점을 찾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의미(Meaning)는 웰빙의 세 번째 요소로 긍정정서의 범주에 속하며 주관적인 가치와 생각을 포함한다. 의미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중심점이 되는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관계(Relationships)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긍정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뜻한다(Seligman, 2002, 2011). 다섯째, 성취(Accomplishment)는 개인의 진보와 발전을 뜻하는 주관적 개념이며 PERMA 모형에서는 인지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역량과 강점, 기술과 재능, 노력등을 활용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Butler, Kern, 2013).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플로리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행복감을 넘어 긍정적 정서에 많이 노출되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몰입을 자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자지향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역량을 살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Flourish 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보드게임 집단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

보드게임이란 게임판, 게임말, 카드 등으로 구성 되어진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스토리텔링 기반 놀이이다. 보드게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플레이어의 역할과 행동을 제한하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지적 호기심을 일으킨다. 보드게임의 규칙은 자율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고 정서적 조절과 규칙 수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을 발달시킨다. 게임놀이는 일반적인 놀이보다 자아의 기능을 필요로 하며 게임놀이 과정을 통해 자아발달과 성장을 촉진한다(Schaefer& Reid, 2001). 게임놀이는 결말이 주어지므로 성공과 실패경험이 가능하다. 게임에서의 실패경험을 통해 도전성을 기르고 타인공격, 패배 인정, 비평 감수, 적대감이나 거절감 등의 불편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Landreth, 2002).

Piaget(1962)에 따르면, 게임놀이는 걸음마 시기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유치원시기에 즐기지만 규

칙을 동반한 게임은 학령기부터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는 심리치료에서의 언어적 수단에만 의존하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주된 놀이 활동으로 선호된다(Schaefer, 1993).

Mead는 게임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연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배운다고 하였다. 집단놀이치료는 집단치료 과정을 훈련받은 치료자와 둘 이상의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계의 놀이치료이다.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집단 놀이치료는 자기성장과 자기탐색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또래관계 형성과 인격발달에 도움이 된다(Sweeney & Homeyer, 1999).

보드게임 놀이치료의 치료적 요소에는 즐거움, 의사소통 촉진, 정서적 건강증진, 사회적 능력 향상, 자아강화, 치료적 동맹, 논리적 사고능력과 통찰력 향상 등이 있다(홍주연, 2017; 유미숙 외, 2016). 치료적 현장에서 보드게임에 임하는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 관찰을 통해 진단적인 임상적 정보를 획득하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계 어려움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당면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치료적 방안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쿠르트 레빈(Kurt Lewin)의 나선형적 순환과정의 실행연구로 수행한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란 질적 연구를 가장 ‘질적 연구답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로 현지인의 연구(native research), 연행적인 연구(performative research)와 더불어 교육학, 사회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각광 받는 접근방법이다(조용환, 2015).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삶의 문제점을 발견한 뒤 현장 개선과 변화를 목적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연구이다(김영순 외, 2018).

오늘날 사용되는 실행연구는 쿠르트 레빈(Kurt Lewin)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레빈(Lewin, 1946)은 당시 미국 사회의 빈곤, 인종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연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문제의 당사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뒤, 과정 및 결과를 성찰하고 이후의 또 다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과정을 반복해 나갔는데 이 과정이 오늘날 순환적 특성을 가진 실행연구의 기틀이 되었다.

실행연구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목적으로 action과 research의 변증법적 발달 도모를 내포한다(박창민 외, 2016). 실행을 통해 생성된 지식은 이론의 정립에 기여하고 이러한 이론은 다시 더 나은 실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행동하기 위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실행은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는 이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현장의 현실에서 괴리된 채 이론가들에 의해 생성된 지식은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천가들이 직접 연구자가 되어 실재를 변화시키거나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생성하고 이를 적용해봄으로써 최상의 실재를 위한 시도를 하고, 이러한 시도는 더 나은 이론의 생성을 도모하며 발전을 촉진한다.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증진을 위한 보드게임 집단프로그램의 현장성 검증으로 실행연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인 ①문제상황 및 출발점 찾기, ②실행계획 혹은 가설 설정, ③실행연구의 실천과 반성, ④계획의 수정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실행연구의 순환적 특징에 따라 연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연구의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이 부족했다면 되돌

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성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며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차후 프로그램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실행연구이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I시 B구 가족센터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슷한 연령의 6-8명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신청 받는다. 1차 신청자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연구참여동의서를 학생편에 보내어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 연구동의서와 논문, 연구과정의 모든 기록에는 센터의 명칭이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기록한다.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연령 기준은 현행 법무부 청소년의 연령인 9세-24세를 기준으로 삼되, 연령차이가 2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또래관계의 청소년들로 선정한다.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집단 프로그램 실시 전, 긍정심리척도(PPTI)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서 긍정심리척도(PPTI)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된 과정을 확인하고 연구결과 분석에 반영한다.

3.2. 프로그램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Flourish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보드게임 집단 프로그램 실행연구이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therapy)은 1998년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에 의해 창시 되었으며 인간의 긍정적 측면과 긍정심리학의 5요소인 성격강점을 확장시켜 내면의 긍정심리를 증진시키고 웰빙의 삶인 Flourish를 지향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은 인간의 질병, 고통, 우울등의 발생 이면에는 강점과 미덕, 탁월함도 주어진다라고 보며 인간의 긍정감정과 강점을 활용한 건강한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웰빙이 주제이며 이를 위해 Flourish증진을 그 목표로 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웰빙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Martin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의 목표인 Flourish증진을 위해 긍정심리학 기반 집단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한 뒤 놀이치료와 상담심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 4인을 선정하여 자문과 검증을 거쳐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구안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실행을 통하여 보완, 수정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션 구조는 매주 약 90분 동안 10-12회기로 구성한다. 각 세션은 간단한 체크인 및 소개로 시작하여 게임 플레이 및 토론이 이어지고 마무리 활동으로 종료된다.

둘째, 집단의 구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슷한 연령의 6-8명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이 그룹은 긍정적 심리학과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훈련된 보드게임 놀이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보드 게임은 Seligman의 PERMA 모델 원칙에 맞게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과정을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신중하게 선택한다. 게임은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고,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목표 설정 및 성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각 세션의 주제는 탄력성 구축, 공감 개발 또는 감사 함양과 같은 PERMA 모델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각 세션에서 선택한 보드 게임은 세션 주제와 일치하고 주제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IRB승인 후 시점부터 I시 B구 가족센터에 연구내용 및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보호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자원신청을 받는다. 자원신청한 연구참여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그들의 보호자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학생편에 보내어 연구참여동의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녹음, 녹화에 관한 동의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아 최종 연구참여자로 5인을 선정한다. 또한 연구참여시,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어지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하여도 되며 수집된 자료의 폐기,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본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의 연구윤리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개인신상 관련 민감한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보호된 후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두 폐기됨을 고지 한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Krippendorff(2004)의 질적 내용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한다. (예, 좌절인내력, 규칙준수, 감정조절, 사회성, 낙관성, 성취등으로 차원화하고 각각의 주제로 범주화한 뒤 하위범주로 세부화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혜, 이정숙(2019). 집단게임놀이치료를 통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분노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2(1), 37-56
- 권윤정(2017). 분노조절과 규칙수용에 문제를 보이는 ADHD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게임놀이의 활용, 26(3), 65-81.
- 김유숙(2016). 아동과 청소년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연순, 김광웅(2016). 놀이치료에서의 보드게임 활용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11(1), 25-52.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연구의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희정, 양지웅(2022).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드게임 활용 상담자의 경험 탐구. 질적탐구, 8(4), 205-229.
- 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2011). 인간발달과 가족. 경기: 교문사.
- 박경민, 손명희(2019).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 연구. 23(1), 47-60.
- 박아청(2004).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현아, 공마리아(2022).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증진을 위한 소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정서, 행동장애연구, 38(3), 213-239.
- 박창민, 조재성(2016).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손명희, 송영혜(2009).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3(1), 19-43.
- 안성정, 이영애(2018). 게임놀이치료시 학령기 초기 내담 아동들의 게임놀이행동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 21(2), 245-271.
- 우문식(2021). 마틴셀리그만의 팔마스 중심 긍정심리학, 서울:학지사.
- 이영애(2016). 학대받은 아동의 게임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저어 요인과 치료과정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 19(2), 69-101.
- 이화영, 여은진, 이경옥(2007). 보드게임활동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정. 방과후아동지도연구, 4(2), 53-75.
- 조영란(2018). 보드게임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양지원(2015).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민, 남아영(2019).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경험한 '관계맺기'양상에 대한 질적사례연구:가정형 위(Wee) 센터 입소생을 중심으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3).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 <https://www.childfund.or.kr>.
- Butler, J., & Kern, M. L.,(2016). The PERMA-Profilier. 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6(3), 1-48.
- Curlette, W. L., & Granville, H. G.(2014). The four Crucial Cs in Critical Friends Group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0(1), 21-30.

- Drewes, A. A., Bratton, S. C., & Schaefer, C. E.(2011). Integrative play therapy. Hoboken, NJ: Wiley.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Krippendorff, K.(2004).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3), 411-433.
- Landreth, G. L.(200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2nd ed). New York NY: Brunner-Routledge.
- Lewin, K.(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 34-46
- Mills, G.(2003). Action Research: A Guide for the Teacher Researcher. 강성우 외 (역)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서울: 우리교육.
- O'connor & Schaefer, 2016)
- Piaget, J.(1962). Play, Drem, and Imitation. New York: Basic Books.
- Reid, S. E.,(1993). Game play. In C. E. Schaefer(ED), The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Schaefer, C. E.(1993). The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Schaefer, C. E.(2011). Prscriptive play therapy. In C. E. Schaefer (ED), Foundayions of play therapy.. Hoboken, NJ: Wiley.
- Schaefer, C. E., & Reid, S.E.(2001). Introduction: The Psychology of play and Game. New York: John Wiley & ons.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긍정심리학, 김인자, 우문식 역 (2011) 서울: 물푸레.
- Seligman, M. E. P.(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Vaillant, G. E.(2002). "What Makes Us Happy?". 행복의 조건, 이시형 역(2010). 서울: 프린티어.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남 정 연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1995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국제결혼은 2000년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결혼이주민의 관점과 한국 사회의 맥락을 결합하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빈곤과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탈피,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비용의 결혼이주,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수요, 넷째, 농촌의 성비불균형의 증가이다(류유선, 2021). 앞의 두 이유는 글로벌 이주의 시대에 이주민 개인의 맥락과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뒤의 요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생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 방식이다(류유선, 2016, 2018). 이는 이주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이주민 개인의 선택이거나 개별국가의 정책, 세계적 트렌드로만 본다면 자칫 편협한 시각일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개인과 국가, 나아가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된 과정인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 삶이 그렇듯이 이주민의 삶 또한 이주할 당시의 목적에만 맞게 살아지지 않는다. 생애과정에서 생기는 목표에 따라 생애기획 및 목적이 변경되고 이주 목적도 변경이 된다. 따라서 결혼을 주목적으로 한 결혼이주여성 과 노동을 위해 이주한 이주여성노동자를 구분하여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노동을 위해 호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 가운데 시민권 확보 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이용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시민이자 엄마, 부인이자 노동자라는 중첩된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Piper, Nocola and Rocés, Mina, 2003).

이렇듯 이주민의 경제활동참여는 이주민 개인의 이주배경과 한국사회, 출신국, 세계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교차된 현장이다. 또한 출신국의 가족과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경제적 상황, 개인과 가족의 미래계획, 자아실현 등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실천된다(류유선, 202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독립이나 본국과 한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이를 통한 가족의 인정, 자기 정체성의 확인, 사회적 역할과 승인과 연계된다. 취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높이는 한편, 다른 문화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우울, 고독 등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희, 201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은 한국인 되기, 정체성의 확인과 역량강화의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감각을 획득하기도 한다(황정은·한송이·김효진, 2017).

경제 활동참여와 경제적 자립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다. 특히 언어와 문화, 국적이 다른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 학력, 교육문제, 자녀양육,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낮은 임금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유진희, 2014; 김인숙, 2021;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2021).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의사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사회관계망 부족,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안나·최승아, 2013; 박능후·선남이, 2010; 박미은 외, 2012; 이은정, 2013; Drever, 2008; Jones, 2012).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사회생활 수행능력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저하, 소외감과 박탈감,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효순, 2016).

또한 공공기관들이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순, 2013a; 박미숙, 2014). 2021년에 1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 중 미취업 인구는 35.5%였으며, 취업인구 64.5%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35.9%를 차지하고 상용근로자는 47.7%였다.¹⁴⁾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한 일자리와 취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성취감을 얻으며 나아가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에 그 대안으로 상정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창업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미숙련 임시직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주체적 삶의 실현과 성취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책은 물론, 관련 연구 역시 아직은 미흡하다. 결혼이주여성에 특화된 전문 창업지원 기관이 드물어 언어적 특수성이나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이 어렵고, 관련 정책도 대체로 창업보다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이다(조상미 외, 2019).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장기화, 취업에 대한 욕구, 배우자의 고령화 등을 반영해 정부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진출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당사자가 처한 환경 또한 가족 안팎에서 이들이 삶의 역동적 주체로 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강희영 외, 2016:4). 이런 상황 가운데 자영창업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결혼이주여성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주체적인 여성으로 간주하고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정책 지향적 접근에서 벗어나(최인이, 2016) 실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주체성 형성 과정을 삶의 경험에 밀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은 어떠한가?
2. 자영창업 경험에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프락시스(praxis)의 어원은 희랍어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유래한다. ‘포이에인(poiein)’은 ‘포이에시스’의 동사형으로 사물에 관계된 제작(making) 또는 생산(producing)으로서의 활동을 나타

14) 무급가족종사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적합한 일자리 찾기 및 유급가족종사자 대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날 때 사용된다. ‘프라테인(prattein)’과 ‘프락시스(praxis)’는 각각 ‘포이에시스(poiesis)’의 명사형과 명사로 인간의 자기 주체적 활동으로서의 실천(acting)의 개념을 갖는다. 프락시스는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이론과 성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행동주의가 아니며, 행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지성주의도 아니다(Freire, 1980: 17-26).25). 프락시스는 이론과 성찰(reflection)과 행동(action)을 기반으로 하는 반복적인 실천(praxis)이다(정지현, 2015). 다시말해 프락시스는 이론과 성찰과 행동이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 즉 주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체적인 활동은 행위자성과 주체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1. 행위자성과 주체성

행위자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정세명, 2022).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데에는 행위자성 개념 자체가 많은 이론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Bandura(1982)는 행위자성은 의도성과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의도성(intentionality), 선견(forethought), 자기 조절(self-reactiveness), 자기 성찰(self-reflectiveness)의 네 가지 주요 특성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성을 설명하였다. 행위자성의 개념은 더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행동 능력이나 잠재력,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Priestley et al., 2015)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Biesta와 Tedder, 2007), 자신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Taylor(1977), 지배적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과 변혁의 힘(Lipponen과 Kumpulainen, 2011) 등 주로 개인역량의 결과로 정의되었다.

Bandura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행위 주체의 개인적 측면과 인간의 역량을 강조한 한편,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Giddens는 행위 주체(agent)를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자기반성적이며 자기 감시적인 존재로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 행동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의미한다. 또한 Giddens(1984)는 행위 주체를 가지성(knowledgeability)과 성찰성(reflexivity)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행위주체자는 구조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의도적이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Lasky(2005)는 사회 구조와 문화도구가 어떻게 인간의 신념, 가치, 행동을 형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성의 맥락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Emirbayer와 Mische(1998)는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성을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의 행위자들에 의해 시간적으로 구성된 행위’로 정의하였다. Emirbayer와 Mische(1998)는 세 줄을 가진 하나의 화음(chordal triad)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면서 행위자성에는 반복적(iterational), 투사적(projective), 실천적 평가적(practical evaluative)인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Biesta와 Tedder(2007)는 행위자성을 개인이 소유하는 특성이 아닌, 어떤 생태학적 조건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생태학적 현상’으로서 파악하며 행위자를 둘러싼 맥락과 개인 역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행위자성 개념은 행위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이용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행위자성의 성취는 개인적인 역량, 가용한 자원, 상황 및 구조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Biesta & Tedder, 2007: 137).

주체나 주체성에 대한 용어의 표현과 개념 정의는 사회학, 정신분석학, 탈구조주의, 페미니즘, 탈근대적 접근 등 시대와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김효숙, 2017). 주체성(agency)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고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하희수, 2019).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며, 외부 환경적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으려는 주체성을 지닌다(Frankl, 2006; Hitlin & Elder, 2007). 인간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이 있을 때, 외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을 조절할 수 있다(Ryan & Deci, 1985). 주체성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거나 결정한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다(OECD, 2018). 또한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한 시각화 전략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Kundu, 2020).

Marcuse(1967)는 인간에게는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과 사회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사회를 초월한다는 것은 사회 변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늘 일정한 조건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조건들을 뛰어넘으면서 나름의 독특한 삶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을 인식하고 넘어서는 실천을 ‘주체성’이라고 표현하였다(이규호, 2005).

철학자이자 실천가인 프레이리(Freire, 1970)는 사회적 모순과 억압 현상을 해방학습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의식변화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실재를 변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 즉 의식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식화(conscient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Goffman(1961)은 인간이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 반성하고,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아를 사회 속에서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체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주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들과 서로 반대되는 기대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대결하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주체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성격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규호, 2005: 202). 이와 같이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은 개인이 항시 소유하고 있는 불변의 실체나 성격이 아니고,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반응과 작용의 사회적 행동에서 역동적으로 생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성의 구성은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변화하는 기대들에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식을 해체하기도 하고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규호, 2005: 202; 김효숙, 2017).

2.2.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연구자적 시선은 크게 자본주의 가부장제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지점과 행위자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적 접근과 내러티브를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구조적 환경의 제약 속에서 전략을 형성해 가는 행위자성(agency)의 복원에 중점을 둔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Kim, 2013; Piperand

Roces, 2003:8-9, 최인이, 2016:6). 그 대안적 개념으로서 코르트베그는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성(embedded agency)”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역사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성을 의미하며, 한 사회 내에서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자들의 행위는 지배와 복종의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s)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주도적 행위’ 혹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으로 나타난다(Korteweg, 2008:437, 최인이, 2016).

그간 진행된 행위자성 복원에 기반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신부(bride) 또는 노동자(worker) 등의 특정 범주에 가두는 연구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여성의 이주에서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은 늘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통해 이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이주는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주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다(유은주, 2010: 201; Piper and Roces, 2003: 7). 결혼이주여성의 국가 간 이주는 여성 개인의 삶을 주변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김태원(2011)은 주변인(marginal man)의 개념을 “한 사회나 집단의 중심적 가치에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 사회 또는 문화적 집단에서 어느 사회에도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는 여성가족부(2022)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의논할 사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 자녀교육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항목별로 30~40%가량이 가족을 제외하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한국에 ‘없다’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 2022).

다양한 목적으로 자영창업을 한 결혼이주여성 역시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marginal man)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자영창업의 계획 및 실행과 운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주변인(marginal man)은 점차 그들과 관계없는 맥락이 되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안주에 저항하는 태도, 삶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동성과 능동적인 행위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자영창업을 결정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성 및 주체성이 적합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창업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탐구한다. 즉 개인의 내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영향, 그들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개인적 역사가 점철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주 사회적 탐구-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실재의 반영-의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며, 개별인간의 경험에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구성되고 표현되고 활성화되는 사회의, 문화의, 기관의 내러티브에 또한 관심을 가지는(Clandinin & Rosiek, 2007: 41-43) 내러티브 탐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을 살펴보고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무엇보다 일 관련 경험과 개인의 진로 성취에 있어 환경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과 내러티브 탐구가 지향하는 바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기회적(opportunistic) 샘플링과 스노우볼(snow ball) 샘플링을 적용했다. 연구의 방향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는 문헌연구¹⁵⁾와 현장 조사를 함으로써 예비 연구를 실시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취업 등 경제활동 경험의 제반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비 연구를 통한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①연구참여자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5년 이상이며, 창업 자영업 운영 기간은 3년 이상된 자 ②한국 거주기간과 영업 기간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고려 ③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일지라도 현재 배우자가 한국 남성인 연구참여자로 한정 ④특정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보다 다양한 업종을 탐색하는 것이 유의미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체성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의미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을 발췌하고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한다. 연구참여자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체성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15) '스코핑 방법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2년 한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투고계획 예정.

참 고 문 헌

- 김상봉(2007). 서로주체성의 이념. 서울: 길.
- 김연화 외(2018),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에 대한 현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남미자, 김영미, 김지원, 박은주, 박진아, 이해정(2019).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가능성 탐색.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미은·신희정·이미림(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서운경·고명희(2013), 「프로젝트중심학습을 적용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사례」, 학습과학연구 , 7(1), pp.49-77.
- 손원영(2000), 「프락시스 교육이론의 비판적 성찰」,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철학과 신학분과 자료집 , 220-243.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유용모(2021)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나타난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 탐구
- 유진희(2014),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논문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윤효녕, 윤평중, 윤혜준, 정문영(2007).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규호(2005). 사회화와 주체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은정(2018).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과 의미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0), 183-214.
- 이찬훈(1999). 현대사회 구조와 주체성. 대동철학, 5, 253-278.
- 정세명(2022). 산림 여성의 행위자성에 관한 질적 연구
- 하희수 (2019). 학생 중심의 과학 학습 공동체 이해를 위한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론적고찰.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1), 101-113.
- Bandura, A. (1992). Exercise of personal agency through the self-efficacymechanism.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action (pp. 3-38). Washington, D. C.: Hemisphere.
- Brookfield, S. D(2012a). Teaching for critical thinking: Tools andtechniques to help students question their assumption. SanFrancisco, CA: Jossey-Bass.Brookfield, S. D. (2012b). Critical theory and transformative learning.In E. W. Taylor & P. Cranton (Eds). The handbook oftransformative learning (pp. 131-146). San Francisco, CA:Jossey-Bass
- Capurro, R. (2012). Toward a comparative theory of agents. AI & Society, 27,479-488.
- Coope, U. (2004). Aristotle’s account of agency in physics III.3. Proceedings of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Retrieved Aug, 15, 2021, from

- 
- Elliott, A. (2001). *Concepts of the self*. 김정훈 역(2007). *자아란 무엇인가*. 서울: 삼인.
- Frankl, V. E. (2006).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MA: Beacon.
- Foucault, M. (2001). *L'herméneutique du sujet*. 심세광 역(2007). *주체의 해석학*. 서울: 동문선.
- Freire, P. (1970, 1993).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nuum. 남경태 역(2002).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김도경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자기치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WHO(2022)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으며, 2040년쯤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의학 발달로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문제가 결합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1년 16.5%에서 2060년 43.9%로 증가,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0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초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노년기는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심리적 고독감, 공허함, 여가 활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특히 비 독거노인과 비교해 독거노인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강현욱, 2016; 김소희, 곽진영, 2022). 사회적 고립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며(석희정, 2014; 손지훈 외, 2019) 일반 노인집단보다 더 높은 자살률(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위험 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소희, 곽진영, 2022).

노인 관련 문제들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와 함께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하며 늙어가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노인의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을 국정과제로 도입하였다. 이후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 정책은 신체 노화에 따른 사회·제도적인 복지 문제나 경제 차원에서 부양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윤경 외, 2021). 전용호와 이석환(2022)도 노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물질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돌봄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복지비용을 증대하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돌봄을 실천한다 해도 노년의 우울, 고독, 불안 등 심리·정서적 차원의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무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송명희 외, 2012). 이에 다양한 심리치료 및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필요하다(전용호, 이석환, 2022).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치유에 관한 등재 학술지 논문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는 25편, 질적연구는 6편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가 많았으며 치료적 접근방법에 있어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 문제해결중심치료 등 다양한 단일 접근법을 통해 대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문과 학제 간 융합을 시도한 연구는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한 이은주(2019)와 뉴로 피드백, 뇌 체조, 한방차를 병행하여 적용한 정은실 외(2016)로 미비한 상황이다. 노년기에 당면한 어려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중재에 있어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탐색, 성찰, 실행을 통합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학문과 학제 간 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최효진, 2019). 인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학문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도와주며 다양한 예술적 접근은 신체적 긴장 완화와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균형을 이루고 치유적 경험을 확장할 시켜준다(김천오, 정동훈, 2007).

인문융합치료는 독거노인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로서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에 인문, 사회, 예술, 심리상담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공존의 가치 추구를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김진선, 2022). 외적, 내적 균형을 잃은 인간이 주체의 조화를 찾는 자기조정의 방법이며 자기성찰적 접근이다(김영순 외, 2022). 이에 내담자의 증상은 고쳐야 할 질환이 아닌 주체의 현상의 일면으로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어 통합하고자 하였다(김영순 외, 2022). 따라서 인문융합치료의 변화의 대상은 내러티브이며 내담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해 존재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진선, 김영순, 2021).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고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내담자는 경험, 감정 기억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며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김영옥, 채연숙, 2019). 이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했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여 주체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다(김영순 외, 2022). 내러티브에서 '경험'은 단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의 중첩으로 생겨나며 전혀 새로운 경험을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이때 언어가 주요 매개체로써 치유의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가 된다(김영순 외, 2022). 프로이트는 치료적 대화(talking cure)의 핵심 기능을 사후 대화의 재구성에 두며 치료적 대화란 감정의 카타르시스뿐 아니라 자기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고통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해석학자인 가다머 역시 고통을 대면하여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verwinden, 극복하다)을 통해 결코 바꿀 수 없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영순 외, 2022).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라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관계적 작업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며 어떻게 자아통합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치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

2-1.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

통계청(2021)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수는 2037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2047년에는 407만 1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독거노인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인 경우가 증가하며 독거노인의 초고령화 현상을 전망하였다. 성별 비율에 있어 남자 독거노인은 9.7%인데 비해 여자 독거노인은 27.4%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독거노인은 도시보다 농·어촌의 독거노인 비중이 더 높고 농촌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중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은 약 68%에 달하며, 이는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인 32%보다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21).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초고령화와 여성화는 경제, 건강, 소외, 무위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WHO(2022)에 의하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이란 자신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의 기대, 목표, 관심사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이라 하였다. 여성 독거노인은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노인집단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 취약하며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최효진, 2019). 특히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여성 독거노인은 농촌, 여성, 독거라는 중첩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사회·문화, 경제, 건강 측면에서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만의 독특한 특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김희경 외, 2010).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부장적인 사회환경에서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해 65세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은 무학, 초졸의 비율이 33.4%인데 비해 여성 독거노인은 71.7%로 2배 이상 높다(허목화 외, 2022).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진학 및 취업률이 높지 않다(신계영·김은경, 2014; 이현주, 2015; 장미혜, 2013; 전경숙·장민희·정태연, 2013).

둘째, 경제적 빈곤이다. 총소득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경제적 상태 만족도도 낮다(허목화 외, 2022).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은 소득감소 및 중단 등으로 빈곤 상태에 놓이기 쉽다.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65.1%로 1/3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여유진, 2021). 유교적 가족문화에서 여성은 고등교육에서 제외되었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 및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백미연, 2019). 이에 여성 노인은 주 소득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41.0%)가 높으며 남성은 본인의 근로소득(37.7%)이 가장 높았다.

셋째, 만성질환 및 우울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상황은 외로움, 우울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며(Lim & Kua, 2011), 신체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Cornwell & Waite, 2009).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유병률이 높고 2~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독감 및 소외감,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윤동성, 2006).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관리 실천율, 노후 준비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낮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21).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정서적 학대, 차별 경험, 우울과 자살 생각 등이 비독거노인보다 높게 나타나며(강은나·이민홍, 2016; 김예성, 2014; 임준서, 2022),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김예성, 2014; 남석인 외, 2019; 윤정애 외, 2016). 특히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의료동행 및 외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취약하여 의

료기관, 복지관 등의 접근성이 낮다(허목화 외, 2022). 고령의 노인 여성의 경우 대부분 운전을 못하거나 거동의 어려움으로 거리가 먼 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방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농촌의 여성 독거노인은 주변에 도와줄 가족 구성원이 없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최효진, 2019). 이에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2. 인문융합치료를 통한 자기치유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융합 적용한 것이다(김진선·김영순, 2021). 인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의 융합하여 자기 내러티브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는 삶을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며 자기 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탐색된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과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비로소 이전과 다른 시간,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 및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내러티브의 변화를 시도한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담아내고 있는 내러티브는 고정되지 않고 타자에게 다시 말해지고 자기에게 다시 말해지고 사회를 향해 다시 말해지면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내러티브로 발전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내러티브는 새로운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았다(이은숙, 2019). 여기서 치료란 어원적으로 ‘전인적 의미의 건강을 회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라페이아’에 기원하며,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의 의미를 뜻한다(R. Beekes, 2010). 따라서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해야 할 차원으로 보았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아 통합(Ego-Integrity)’은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Erikson, 1963). ‘자아통합’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구성함으로써 삶에 적응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와 같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노인은 성찰을 통해 노화를 인간의 인생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약화된 자율성, 잃어버린 주도성, 사라진 친밀성, 홀대받는 생산력을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다(Erikson & Erikson, 1997).

인문융합치료는 자기 내러티브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자기수용을 높이고 긍정적 조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에서는 심리·정서적 증상은 질환이 아닌 주체의 일면으로 보기에 고쳐야 하거나 처치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거나 통합함으로써 부정적 측면 이면의 긍정적 측면을 조망하고 균형적인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김영순 외, 2022). 히포크라테스는 치유는 의사의 치료가 아니라 인체 내의 자기 치유력에 기인하며 정신건강의 영역까지 확장하였다(Mott, 1923; Logan & Selhub, 2012; Thomson, 1914). 자기치유를 개인의 자기 회복 능력을 일깨우는 것으로,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최적의 방법은 그들의 내재적 자기 치유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도 노인의 자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인문융합치료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자기치유력 증진을 돕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내러티브-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이야기로 경험을 연구하는 방법이며, 연구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 현상인 경험을 특정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6: 477). 즉,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기억과 경험, 체험 등을 조직화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접근방법이다(박민정, 2007; 배영민, 2008). 연구 결과 4장의 연구참여자의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을 다룰 때 각 연구참여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과정 안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말하여진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내기(reliving)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적 사례연구는 개인, 프로그램, 집단, 현장, 맥락 등과 같은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탐구이다(김영순 외, 2018). 특정한 상황, 사건, 프로그램, 현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기에 적합하다(Merriam, 1988). 또한 사례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별한 그룹의 사람이 구체적인 과제에 어떻게 대면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하나의 체계 또는 경계를 가진 체계 내에서 탐색하며(Creswell, 2017), 현상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사례가 드러내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례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제공하며 사례와 연관된 독자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이에 연구 결과 5장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해 나타난 자기 치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①독거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②사별 혹은 자발적 계기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③심리·정서 지원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 및 선정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OO시를 선정 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2. 프로그램

본 연구는 양구군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자아통합은 자기 삶을 수용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Erickson, 1997; Miller, 1981). 이를 위해 인문학, 심리치료의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합의를 팀을 각각 이루어 합의적·질적연구 절차에 따

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전문가 5명은 인문학과 다양한 심리치료의 전문가로 각각 생애사, 노인 회상, 명화미술치료, 예술치료, 미술치료의 박사, 박사과정 이상이며,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융합 치료 이론과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박사 및 박사과정 3~4명을 각 분야의 팀원으로 구성하여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문 1명에게 프로그램을 최종 검토받았다. 이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자아통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 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평균 2주 1회, 10회기, 회기당 60~90분, 자택 혹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기초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매 회기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작품 사진, 연구자 노트, 관찰일지 등을 함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사가 연구참여자의 자택 및 마을을 방문하며 수집한 사진, 상담 진행 전, 후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뉜 대화 내용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7)의 분석 방법 5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0) 47-56.
- 강현욱 (2016).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2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2) 995-1009.
- 김소희, 박진영 (2022). 집단미술치료가 독거노인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술심리치료연구, 2(1) 43-66.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외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순, 오영섭, 권요셉, 김진선, 지성용, 오정미 외 (2022). 『호모 내러티브: 인문융합치료의 이해』. 페리다임북스.
- 김영옥, 채연숙 (2019). EPI의 문학치료와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의 융합적 활용: 성인 여성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5), 793-802.
- 김예성 (2014). 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保健社會研究 34(3) 400-429.
- 김진선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 인문융합치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진선, 김영순 (2021). 청소년 대상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인문과학연구 0(42) 145-182.
- 김천오, 정동훈 (2007).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7(2), 39-59.
- 김희경, 이현주 (2010).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노년학 30(2), 279-292.
- 남석인, 시지혜, 정예은, 채주석 (2019). 노년기 삶의 의미와 우울,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4(2), 163-192.
- 남혜진, 장은하, 홍석호 (2021). 독거노인의 자살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노인복지연구 76(2) 91-130.
- 박민정 (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69-93.
- 배영민 (2008). 사회과 수업연구 방법의 새로운 대안 모색, 사회과교육 47(2), 229-258.
- 백미연 (2019). 초국적 정의-빈곤 페리다임 연구:한국여성노인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21 10(5), 477-492.
- 보건복지부 (2020).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1.6.).
- 보건복지부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석재은 (2013). 한국의 노령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61-102.
- 석희정 (2014).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29-53.
- 손지훈, 안성희, 조성준, 서화연, 김경남, 유지민, 박지은 (2019). 도시 지역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독거, 사회적 고립, 그리고 우울장애, 노인정신의학 23(2) 58-64.
- 송명희, 채영희, 한혜경, 강인욱, 신명호, 장세호 (2012).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서울: 푸른사상.
- 신계영, 김은경 (2014). 취약계층 여성노인의 연령주기별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

- 호학연구 28(3), 419-431.
- 여유진 (2021).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보거복지포럼 291(-), 23-34.
- 오승환,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0(32), 119-147.
- 윤정애, 강지수, 배명진, 이나영, 이채민, 전우진 (2016).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비교,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8(2) 63-39.
-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 이선희 (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 정책보고서.
- 이은숙 (2019).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393-408.
- 이은주 (2019). 통합예술치료가 자살 위험군 독거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293-318.
- 이현주 (2015). 여성노인의 가사·돌봄 노동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3), 141-177.
- 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월적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5-45.
- 임준서 (2022). 소셜 로봇을 활용한 인지증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외로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생애사적 규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12), 443-458.
- 전경숙, 장민희, 정태연 (2013). 한국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 한국노년학 33(2), 275-292.
- 전용호, 이석환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초기 이슈에 대한 질적연구, 노인복지연구 77(1) 225-252.
- 정은실, 이정은, 정현모, 윤미경, 이은한 (2016). 뉴로피드백 · 뇌체조 · 한방차를 병행한 통합요법이 독거노인의 뇌기능 향상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2) 569-581.
- 최효진 (2019). 독거노인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 허목화, 허남재, 유지영 (2022). 강원도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조사.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72-6420607-000144-01.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 Health Soc Behav*, 50(1), 31-48.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6).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교사와 교육과정: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 Creswell, J. W.(2017).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한유리 역). 서울: 박영스토리(원전은 2015년 출판).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W Norton & Company.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ler, J. C.(1981). *An applic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to battered women*. Ph. D.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an Diago.
- Mott, F. W. (1923). An address on the vis mediatrix naturae. *Lancet*, 202(5231):1171-1220.
- Logan, A. C., & Selhub, E. M. (2012). Vis Medicatrix naturae: Does nature “minister to the mind”? *BioPsychoSocial Medicine*, 6, 11.
<https://doi-org/10.1186/1751-0759-6-11>
- R. Beekes (2010).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2 vols: Leiden).
- Thomson, J. A. (1914). The popular lecture: vis medicatrix naturae. *The British Medical Journal*, 2, 2797:277-279. <https://doi-org/10.1136/bmj.2.2797.277>
- WHO (2022). WHOQOL : Measuring Quality of Lif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tools/whoqol>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행위자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 은 희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1. 서론

교육 현장은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개인적 삶의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배움의 태도와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Learnig Compass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웰빙’을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행위자성(agency)을 발달시키는 것을 미래 교육의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다(OECD, 2019). ‘Education 2030’은 과거 DeSeCo 프로젝트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여 이전에 학습자의 역량을 ‘성공(success)’으로 표현한 것을 걷어내고 ‘웰빙(well-be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인과 공동체의 성공보다는 웰빙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공’, ‘탁월함’, ‘앞서감’ 등 과거 교육 담론이 지배했던 논리를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상은, 소경희, 2019).

다문화 교육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주적 행위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지만(정현선, 2007) 다문화 교육의 실천 장에서는 정작 학생들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며, 타인들과 관계 맺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특정 문화와 역사,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과 배움을 연결시키고, 배움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에 이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배영주, 2016).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며 공공의 웰빙을 추구하는지를 다문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멘토들이 발현하는 행위자성은 사회적 실천을 통한 공공의 발전뿐 아니라 개인을 행위의 주체로 서게 하며(유용모, 2021),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 나타난 갈등과 모순을 발견하게 함으로써(나윤경 외, 2007)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행위들을 재구성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황정숙, 황성희, 2019).

행위자성(agency)은 학문 분야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는 행위자인 개인이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이 놓여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Archer, 2000; Giddens, 1984; Klemenčič, 2015). 최근 ‘변화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특성을 행위자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행위자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행위자성 성취의 과정이 개인과 개인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정책 체계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다문화 교육의 실행 주체로 보고 이들의 행위자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행위자성에 대한 논의는 멘토링 실천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대학생 멘토의 멘토링 실행에 대한 이해는 주로 멘토가 가진 신념과 인식, 자기 효능감, 성찰 등 멘토 개인의 특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멘토들이 형성한 의미와 신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멘토링 실행을 둘러싼 맥락과 멘토의 실천에 대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며, 멘토와 맥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멘토의 선택과 성찰,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멘토링의 성공 여부를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 학생인 멘티의 긍정적 변화 측면에서 평가하여 다문화 멘토링 실행 과정 전반에 나타난 다양한 긴장과 갈등, 문제해결 과정, 멘토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의 경험을 멘토의 신념과 의지, 선택과 갈등, 변화와 성장, 구조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멘토링 실행에 담긴 멘토의 행위자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멘토의 행위자성에 대한 논의는 멘토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과 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주목함으로써 멘토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차원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멘토링으로 행위자성 실천의 장을 확장하고자 한다. 다문화 멘토링은 나와 타자의 만남을 전제로 타자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고, 주체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변화의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참여 현장을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멘토들의 실천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행위자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멘토링 실행 과정의 구체적 탐색을 통해 멘토들이 멘토링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통해 행위자성을 성취하는지를 이해하고, 멘토의 행위자성 성취가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

행위자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형성과 결정에 있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어떻게 고려되는가와 관련된 논쟁으로 흘러왔다(소경희, 최유리, 2018: 96). 행위자성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정리하고 이를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개인적 관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행위자성을 이해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행위자성을 “한 사람

의 통합된 자아에서 나오는 동기 부여된 행동”으로 해석한다(Ryan & Deci, 2006). Bandura(2008)는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이해한 것을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에 의한 사건의 기능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능력”(Bandura, 2008)으로 행위자성을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이 외부의 자극 혹은 타인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엄장희, 2022: 21) Bandura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믿음’을 인간 행위자의 주요 매커니즘으로 제시하고(유용모, 2021) 행위자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통해 자신의 목표의 유형과 도전, 목표에 대한 헌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2015). 이와 같이 행위자성을 인간 개인의 자질, 개인의 정신적 사건의 측면에서 이해한 시각은 개인이 환경과 무관한 존재라고 본 것은 아니나(엄장희, 2022: 21)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과 맥락이 개인의 의지와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여 인간의 정신적, 인지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혜경, 2022).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고려하여 행위자성을 설명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가 사회 구조에 의해 통제된다는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며 인간의 행위가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엄장희, 2022; Giddens, 1984).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에서 개인의 행위자성을 소극적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행위자를 능동적으로 행위하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성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구조와 개인 역량에 대한 대립의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행위자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의지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사회적 구조인지에 대한 논쟁 이후 행위자성은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성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변증법적 관점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Giddens, 1984). 이러한 관점은 후에 사회적 행위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행위자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가 가진 선천적 자질이나 능력이라기보다 개인의 노력과 맥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성희, 2021: 130).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view of agency)은 “내재된 능력”으로서가 아닌 환경적 조건에 따라 “출현하는(emerge)”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의 기틀을 마련한 Emirbayer과 Mische(1998)는 “행위자를 둘러싼 구조적 맥락과 행위자의 능력을 분리하여 분석”할 것과 “시간적 개념(flow of time)”을 도입하여 행위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Emirbayer & Mische, 1998: 964). Emirbayer와 Mische는 행위자성을 “습관, 상상, 판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에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 시간적으로 구축된 참여(the temporally constructed engagement)”로 정의하고(Emirbayer & Mische, 1998: 970) 행위자성이 “행위자가 과거와 미래, 현재를 지향하며 자신이 속한 맥락 안에서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적 개념에서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에

자유 의지(free)와 결정론(determinism)이 지닌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자성을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행위자성이 개인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미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과 함께 일시적으로 구성된 참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맥락과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삶에서 주체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맥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일 대 일로 관계를 맺고 멘티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언어 소통,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대책」수립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 멘토링의 도입 배경과 목적은 국내 다문화 학생들이 맞닥뜨린 교육적 문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매년 큰 규모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5.4%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학생의 3.2%에 해당하는 168,545명으로 2015년 이후부터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3)¹⁶⁾. 이와 같이 국내 학생 구성원의 변화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그간 다문화 학생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공교육 진입 문제는 진학 비율 상승 등의 긍정적 결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그러나 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는 긍정적 변화와는 달리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진로·진학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조인제·김다영·홍명기, 2020). 다문화 학생들의 상급학교로의 저조한 진학률과 학업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지는 학업중단률은 다문화 학생의 성장과 사회진출,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다문화 학생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윤예린·오범호, 2020). 또한 다문화 학생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과 그로 인한 학습 부진,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초·중등에 관계 없이 학교 부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인제 외, 2020).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개입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 경험이나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비다문화학생들 보다 적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어(오성배·김성식, 2018; 전경숙, 2020) 지역사회 학교 및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적 차원의 사회적지지 체계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오혜정·손병덕, 2020).

16)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학생 수는 588만 명(5,879,768명)으로 전년 대비 77,350명(1.3%)이 감소하였다. 다문화 학생은 각종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학생이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5.4%(8,587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 수가 2019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것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3).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행위자성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행위자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통해 참여자들의 관점과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특정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터뷰 대상과 관찰 장소 등 자료 수집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경계 지어진 사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특정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정지현, 2018).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방법과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되는 행위자성 개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의 한 범주인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의 두 가지 원리(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① 한국장학재단과 지역 대학 및 초·중·고가 연계되어 실시되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자 ②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고려 ③ 멘티 연령과 학교급, 이주배경 특성 고려 ④ 멘토링 참여 기간의 지속성과 차이성 고려 ⑤ 장기간 및 자발적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서 발견되는 주요 이슈를 살피고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사진, 문서, 연구자 노트, 현장 노트, 문자 및 이메일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행위자성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의미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을 발췌하고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한다. 연구참여자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자성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참 고 문 헌

- 나운경, 강미연, 장인자, 허수연. (2008). 결혼 이후 여성들의 행위자성과 평생교육의 지향점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185-213.
- 배영주. (2016). 프레이리(P. Freire)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활용한 실천적 다문화교수법 구상. 현 대사회와다문화, 6(2), 1-24.
- 신경립, 조명옥, 양진향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용모 (2021).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나타난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 탐구. 한국교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은, 소경희(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39-164.
- 이성희 (2021). 생태학적 "교사 행위주체성"의 한계와 대안: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관계적 교사행 위자성' 개념모델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1(1), 129-154.
- 이혜경(2022). COVID-19로 인한 원격교육 상황에서 과학 교사의 교수 실행의 변화와 행위주체성 발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현(2018). 사례연구: 경계 지어진 세계 들여다보기(267-302). 질적연구의 즐거움, 김영순, 김진 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 서울: 창지사.
- 정현선(201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황정숙, 황성희 (2019). 전업어머니의 모성 수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행위자성'을 중심으 로. 학부모연구, 6(2), 79-100.
- Archer, M. S. (2000).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2008). The reconstrual of "free will" from the agentic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In J. Baer, J. C. Kaufman, & R. F. Baumeister (Eds.), Are we free? Psychology and free will (pp. 86-127).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Biesta, G. J. J., & Tedder, M. (2007). Agency and learning in the lifecourse: Towards an ecological perspective.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9, 132-149.
- Emirbayer, M., & Mische, A. (1998). What Is Agency? American J ournal of Sociology, 103(4), 962-1023.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a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menčič, M. (2015). What is student agency? An ontological exploration in the context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Student engagement in Europe: Society, higher education and student governance, 11-29.
- OECD (2019).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Concept Note.
- Ryan, R. M., & Deci, E. L.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 Determination, and Will? J ournal of P ersonality, 74(6), 1557-1586.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 화 정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7차

1장 서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경력이 많지 않았던 연구자가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 속에서의 성찰 과정을 돌아보며 ‘상담경력이 더 쌓여 숙련상담자가 된다면 비행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호기심과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담이 편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만나 변화하듯이 상담자도 내담자들을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상담은 혼자가 아닌 현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가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은 2011년 100,032명에서 2020년에는 64,480명으로 34.8%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대검찰청, 2022).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에서 소년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전과 5범 이상의 상습적인 재범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최지선 외 19명, 2021).

상담은 다른 치료 영역과 달리 치료의 구조화가 유연하며 상담 실천의 축척과 자기성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Urofsky, 2013).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담 경험을 쌓고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자기관리 능력으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조은희, 천성문, 2021).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문제나 증상보다 문제의 근원과 핵심적인 역동에 더 주목하여 상담전략을 수립하였고(이윤주, 2001), 사례개념화¹⁷⁾ 수행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김계현, 이윤주, 2002: 269;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256). 다양한 상담이론 중 효과가 높은 상담이론의 우열을 가리는 연구에서 ‘도도새 판결(dodo bird verdict)’¹⁸⁾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한 상담이론이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질적인 관계가 공통적인 상담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담경력이 쌓여 숙련상담자가 되면 상담자들은 이론적 정향에 상관없이 범이론적 전략과 패턴으로 임상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장유진, 2021; Gutierrez, Jones & Fallon, 2018). 결과적으로 각 분야의 이론 탐구만큼이나 실천 경험이 많은 상담자의 상담 경험의 과정을 탐구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상담이론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통해 상담자의 주관적 체험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 그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 퍼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7)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278).

18) Rosenzweig(1936)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소설에 나오는 도도새 이야기를 차용하여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는 소수의 효과적인 변화 요소를 공유한다는 것을 밝혔다.

- 연구 퍼즐 1. 비행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 퍼즐 2.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10년 이상 담당한 상담자의 임상 경험과 성장에 관한 내러티브로 연구 퍼즐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의 연구 퍼즐은 상담자의 상담 경험의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였다. 연구 퍼즐 1은 비행청소년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따라 경력이 쌓여가며 초심에서 숙련에 따른 변화로 현재까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나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경험했는지를 상담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퍼즐 2는 상담자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 퍼즐 1의 결과에 접근하여 ‘비행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 상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상담자로서 역할과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상담자의 내러티브에 숨겨진 기제들을 분석하였다. 숙련상담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연구는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 발달과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질 높은 상담을 위한 구조화나 보수교육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비행청소년 상담 분야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장 이론적 논의

본 장은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이론을 다룬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독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한다(Murray & Farrington, 2010). 이를 위해 1절은 청소년의 신체 심리적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비행의 현황과 요인을 살펴 청소년과 비행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한 분야의 상담을 오랜 기간 해온 숙련상담자들의 특성과 비행 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숙련상담자의 비행 상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공존적 존재로 바라보고 상담자들의 경험에서 공존을 실천하는 삶으로 해석하기 위한 철학적 렌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연결성과 관계성의 인간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공존과 자기 성찰이 상담의 현장에서 어떻게 공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논함으로써 해석에 이해를 도왔다.

2.1. 숙련상담자와 비행 상담

상담자의 숙련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호간(Hogan, 1964)은 숙련상담자를 상담 전문가로 상담 동기가 안정적이며 통찰력도 깊은 수준에 이르는 단계라고 언급하고, 이 단계가 되면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적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발달과정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가 개인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가는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킵홀트(Skovholt, 2003: 63)는 상담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자기 돌봄을 꼽았고, 모든 상담자가 임상적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상담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즉,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성찰이 없다면 진정한 상담자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잘 활용하는 것이다(Neufeldt, 2004). 김나진(2021)

또한 범죄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 태도와 자기성찰, 상담 관계라는 다양하고 복잡 하면서 특수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내담자를 조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깨닫고 성장하기에 상담자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이어스와 지브스(Myers & Jeeves, 1995: 113)에 따르면 인간은 특이한 본성으로 겉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내적으로 더 큰 질서와 균일성을 가정한다. 어떠한 한 분야에 경력이 쌓이면 유력한 증거에 따르는 과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나뭇의 이론적 가치를 매길 때, 신학자가 교리를 해석할 때,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적 문제를 안고 찾아온 환자를 진단할 때도 이러한 지나친 자만에 근거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자유를 요구한다(Myers & Jeeves, 1995: 114). 비행청소년 상담도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접근이 인간이 지닌 가능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경각심이 지니고 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2.2. 공존을 실천하는 삶

공존이란 둘 이상의 존재가 각자 존재하거나 한 존재의 심리적 표상에 다른 존재와 함께하며 타인과 상호작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의 타자성과 상호성 실천을 포함한다(김영순 외, 2022: 14-15). 인간이 공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서의 학습이 필요하다(조운주, 2017: 8-9). 인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은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니체와 하이데거 및 존 듀이의 인간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관춘, 2021: 390). 니체는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를 허무주의 시대로 진단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회의 가치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이상엽, 2020: 332). 니체는 인과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의 본질을 『선악의 저편』 36절로 설명하면서 필요에 따라 구성한 인과 관계는 병든 인과 관계로 모든 인간중심적 해석에서 병든 인과 관계를 소거해 가면 남는 것은 ‘힘에의 의지’라고 결론 내렸다(이현주, 2023: 3-4). 니체의 철학에서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이성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정신과 의지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존재이다(이상범, 2018). 하이데거 또한 타자가 인간인 현존재와 공동운명체로서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진다고 주장했다(이관춘, 2021: 394). 하이데거는 타자 혹은 타자와 분리된 자기를 규명하기보다 타자와 그때그때 관계 맺는 방식에서 자기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박현정, 2012). 자기와 타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타자와의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전제(임현진, 2017)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공속¹⁹⁾관계에서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배려에서 찾았다(이관춘, 2021). 인간은 세계-내-존재이기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배려라는 것이다.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 즉 ‘눈앞의 존재’와 ‘손안의 존재자’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다른 현존재에 대해서는 배려의 태도, 즉 무언가를 행하거나 보살핀다. 하이데거는 걱정과 배려를 합쳐서 ‘염려’라고 말하며 이러한 현존재의 염려를 곧 ‘현존재의 존재’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존재 방식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이관춘, 2021: 396). 존 듀이(John Dewey) 또한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성은 상황 속의 존재가 교변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함께 있다고 주장하였다(정철희, 2021).

양승권(2021)은 타자와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장사상의 ‘비움’을 통한 자기 극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자도 내담자의 영향을 받기에 상담자의 자기 자각은 필수적이다(허찬

19) 공속(共屬)은 서로 나눌 수 없이 깊이 얽혀있고, 돌이면서 하나라는 의미로 ‘불일이불이’(不一而不二)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김도남, 2021: 148).

희, 이지연, 2020). 상담자는 실수와 실패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퍼비전을 받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와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상담일지를 놓고 고민하며 내담자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간다(이은영, 2015).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의식하여 갖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상적인 자신을 사유함으로써 승고의 감정을 경험한다(오윤정, 2022). 이는 타자와의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성찰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김영순(김영순 외, 2022)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모든 문제는 자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조건은 자기성찰이다(Giddens, 1991).

니체는 모든 정신은 결국 육체를 통해 가시화된다(Nietzsche, 1881: 70)고 보았기에 신체성은 인위적으로 제거되거나 전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극대화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니체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신체성은 생물학적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 느낌, 사고, 정서의 역동적 복합성을 통해 의지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조윤주, 2017). 양대종(2018)은「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우리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져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사랑은 삶보다 힘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소유욕으로부터 자라난 충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니체는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주변의 있는 이웃이 아닌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Nietzsche, 1885: 102). 니체 철학에는 이것을 가장 먼 것에 대한 사랑이자 이기적인 사랑의 승화 가능성을 둔 운명애(amor fati)라고 불렀다(손경민, 2015: 58-59). 니체의 사랑에 관한 철학은 우리 사회가 지닌 차별과 배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준거를 제시한다. 니체는 인간의 운명애와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은 각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김주휘, 2012: 162-163). 즉, 나와 다른 다양성을 지닌 타인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방법 :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의 기초를 제공한다(Clandinin, 2015: 31). 내러티브 탐구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는 개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의 문제, 시간성이 어떻게 변화와 학습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제도가 우리의 삶의 틀을 어떻게 잡고 조직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한 숙련상담자들의 다분히 관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적 삶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숙련상담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의 문제, 시간의 흐름이 어떠한 변화와 성장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숙련상담자들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 비행청소년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그들의 개인적 삶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3.2. 연구 절차

연구자는 2013년부터 H공단에서 갱생 보호 사업에서 출소자들을 만나다가 2016년 I시의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랑의 교실과 법무부의 수강명령 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담자로서 부족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고민과 반성은 지속되었다. 클래딘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동기가 내러티브 탐구를 선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내러티브를 써보게 하였다. 연구자의 자서전적인 경험적 이야기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전문적 지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염지숙, 2003). 연구자는 본 연구 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청소년상담사이며 대학원생이 수련과정을 통해 ‘무지한 나’에서 ‘협력적 나’로 변화하고 ‘돕는 어른의 정체성’을 향해 성찰하고 성장한 경험을 탐색했다(정화정, 김영순, 2022). 이러한 과정은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면면이 들여다보는 데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 NO. 221008-2A)을 받은 후 시작하였고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가 만나는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전문가이며 연구자들이 숙련상담자의 특성(남희경, 2016; 심홍섭, 1998; 전수경, 2016; Skovholt & Rønnestad, 1992)으로 언급된 숙련상담자의 조건과 상담자 발달에 관한 동향 연구(정옥신, 2019)의 결과 등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비행청소년을 10년 이상 상담한 자이다. 둘째, 석사 이상의 상담 학위를 소지한 유급 상담자이다. 연구자는 상담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을 고려하였다. 셋째, 자기의 경험에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담자들로 비교적 자기 경험을 선명하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가명)	비행청소년 상담시작	현 소속
김영호	2009년	S구 청소년상담센터 센터장
유상민	2009년	대학상담실 상담사
김선아	1999년	D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현주	2011년	프리랜서 상담사
박성희	2011년	M구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참 고 문 헌

- 김계현, 이운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경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나진 (2021). 범죄자를 상담하는 보호관찰상담사의 심리적 경험. 차의과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남 (2021). 독자 현존재의 텍스트 이해 특성 고찰. 새국어교육, -(126), 145-180.
- 김영순, 오영섭, 권요셉, 김진선, 지성용, 오정미 외 (2022). 호모 내러티브: 인문융합치료의 이해. 경기도: 패러다임북.
- 김주휘 (2012). 니체의 사유에서 영혼의 위계와 힘의 척도들. 철학사상, 46(-), 155-184.
- 남희경 (2016). 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2012).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서 유한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경민 (2015). 니체 철학에서 실재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흥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대중 (2018) 니체 철학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哲學研究 145.-, 297-324.
- 양승권 (2021). 노장(老莊)사상에서 ‘비움’을 통한 ‘자기 극복’과 타자와의 공존 - 니체(F. Nietzsche)의 ‘거리를 두는 파토스’(Pathos der Distanz)와 칼 융(C. G. Jung)의 ‘무의식’에 입각하여 -. 동양철학연구, 108(0), 275-307.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오윤정 (2022). 니체 사상에서의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 : 칸트 미학의 창조적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8(-), 315-341.
-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상담자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이관춘 (2021). 평생교육철학, 서울: 학지사.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상범 (2018). 니체의 개념 “힘에의 의지”의 심리학적 해명. 니체연구, 34, 46-100.
- 이상엽 (2020). 니체, 허무주의와 운명애. 동서철학연구, 0(98), 331-356.
- 이운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은영 (2015). 아동상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23). 니체의 관계론적 세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현진 (2017). 타인과 더불어 있음의 현사실성 - 하이데거의 실존범주 “심려” -. 철학논집, 51(-), 183-212.
- 장유진 (2021).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7(1).
- 전수경 (2016). 상담심리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지각된 숙련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상담, 6(1), 23-41.

- 정옥신 (2019). 상담과정 기반의 학교상담자 셀프 슈퍼비전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77-99.
- 정철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는 공존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듀이 '자연과의 상호의존성' 개념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3(3), 127-148.
- 정화정, 김영순 (2022). 인문융합치료학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성장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5(4), 85-130.
- 조윤주 (2017). 니체의 인간상(Übermensch)에 기반한 '삶의 예술가'로서의 교사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희, 천성문 (2021). 청소년상담 슈퍼바이저 발달과정. 상담학연구, 22(4), 289-326.
- 최지선, 황지태, 배상균, 조성현, 이천현, 안성훈 외 (202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0).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610.
- 허찬희, 이지연 (2020).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393-40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6).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 2000년 출판).
- Clandinin, D. Jean. (2015). 내러티브탐구의 이해와 실천[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공역). 경기도: 교육과학사. (원전 2013년 출판).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7). Teacher education—A question of teacher knowledge. In Shaping the future (pp. 89-105). Brill.
- Myers, D. G., & Jeeves, M. A. , (1999).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Psych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원전 1987년 출판).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tierrez, D., Fox, J., Jones, K. & Fallon, E. (2018). The treatment planning of experienced counselors: A qualitative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6(1), 86-96.
- Hogan, R. A. (1964). Issue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Murray, J., & Farrington, D. P. (2010). Risk factor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Key findings from longitudinal studie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10), 633-642.
- Neufeldt, S. A. (2004). Critical factors in supervision: The patient, the therapist, and the supervisor. Core processes in brief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dvancing effective practice, 325-341.
- Nietzsche, F. (2008). 니체전집10. 『아침놀』[Morgenröthe(M)]. (박찬국 역). 서울: 책세상. (원전 1881년 출판).
- Nietzsche, F. (2010). 니체전집13.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ZA)]. (정동호 역). 서울: 책세상. (원전 1885년 출판).

- Rosenzweig, S. (1936). Some implicit common factors in diverse methods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12.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homas M.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The resilient practitioner]. (유성경, 유정이, 이윤주, 김선경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1년 출판).
- Urofsky, R. I. (2013).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quality i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4.

노인 대상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실행연구

정 연 주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 4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2). 이에 새로운 노인층이 등장하면서 노인세대가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969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0,0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2008년 24.4%에서 2020년에는 49.3%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 활동이 37.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은 노인세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노인세대는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 대해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만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정신건강을 이루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은 이 시기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무력감, 사회가 더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외감,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과의 갈등,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나타나며, 노인의 생활 전반에 체념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언행 등으로 표출된다(김영숙 외, 2015). 이러한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중재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남향자, 2012). 이안(2022)에 따르면, 한국 노년교육학 분야 질적연구의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임양미, 오민석, 2020)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은 정보화 및 미디어, 문화예술, 문해가 총 7편씩 동 비율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밝혔다. 노인 프로그램 중 정보화 및 미디어 연구는 정체성 회복과 소통의 즐거움, 문제 해결력 신장의 내용이며, 문화예술 연구는 자아존중감 회복과 감성 및 공감 향상, 의미있는 관계 맺기에 대한 내용이고, 문해 연구는 교육에서 배제된 삶, 의존에서 독립과 해방에 대해 다루었다.

포토텔링은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사진(photo)과 스토리텔링의 텔링(telling)에 기반하여 고안해 낸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이다(김영순, 박봉수, 2016). 또한 포토텔링을 통해 재구성된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내러티브는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하여 인간에게 나타난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인문융합치료학에서 그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김진선, 2022). 인문융합치료학은 맥락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연구참여자는 삶을 회상하고 자신의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이해 및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다(김영순 외, 2022).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포토텔링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포토텔링을 활용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어떠한가?

3. 선행연구

4. 연구동기

2. 이론적 논의

2.1. 노인과 노화

2.1.1. 노인의 개념

2.1.2. 노화의 특성

2.2. 로고테라피

2.2.1. 기본개념과 가정

2.2.2. 노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

2.2.3 로고테라피의 치료기법

2.3. 포토텔링과 인문융합치료

2.3.1. 포토텔링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 집단에게 기억을 재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포토텔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시각 매체로써 사진은 이야기가 향유되는 총체적인 과정을 통찰하는 단계, 즉 이야기 안과 밖, 이야기 저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유용하다. 내러티브의 매체로써의 사진이미지의 차용은 사진이 가진 객관성과 서술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중성을 담보해줌으로써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여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김영순, 박봉수, 2016).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이용하여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행위를 이끄는 데 사용한다.

포토텔링 기법의 특징을 통해 포토텔링이 어떻게 내러티브를 형성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포토텔링 기법은 사실적 기록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 물건,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사진 속 장면을 일깨울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되어 시간과 기억이라는 보편화된 주제로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는 사진을 통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흥미롭게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기억에 의해 사실과는 다르게 내러티브가 왜곡되어가는 주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오래된 사진 이미지들은 시간성이 더해져 최근에 찍은 사진과는 다른 독특한 깊이의 내러티브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내러티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2. 인문융합치료

2.3.3. 포토텔링 활용 인문융합치료의 치료적 요인

3. 연구방법

3.1. 실행연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탐구하며,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박창민 외, 2016). 실행연구에서 실천적 특징을 강조했던 대표적 학자는 Elliott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Elliott, 1991). 실천적 특징에 따라 연구자는 스스로 자주성과 의지를 연구에 투영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에서 반성적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즉 규칙적인 숙의 또는 반성은 연구자로 하여금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이는 곧 실재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김영천, 2013:418). 또한 실천적 실행연구는 측정이나 통제 대신 인간적 해석, 해석적 소통, 숙의 등의 상세적인 기술 등을 선호한다. 이 유형의 실행연구의 목적은 실재를 이해하고 즉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실천적이라는 것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연구의 과정에 관련된다. 이는 기술·공학적 실행연구 모형이 강조하는 결과물보다는 과정적 접근을 선호한다(Mckernan, 1996:40). 즉, 실천적 실행연구는 단순히 연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 과정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실천적 특징은 연구자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Elliott(1991)가 제시한 실천적 실행연구의 연구 과정을 따른다. 먼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한다. 다음은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며, 실행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연구 과정을 다시 성찰하고 반성할 점을 반영하여 수정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도출된 아이디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되고, 수정된 계획을 반영하여

재연구 과정을 거친다. 요약하면 Elliott(1991)의 실천적 실행연구의 연구 과정은 ‘문제인식 → 문제 분석 → 계획 → 실행 → 효과분석 → 평가 → 계획 수정 → 재연구’으로 진행된다. 연구자의 숙의적 탐구 과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연구는 정교화되고 문제는 점점 명확해진다. 숙의적 탐구 과정은 실천적 실행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Mckernan, 1996:42).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에 관한 면담, 인터뷰, 프로그램 소감 등에 관한 질적연구자료를 확보한다.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실행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 연구현장

3.3.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000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연구참여자 4인을 선정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인 실행연구 방법에 따라 1차 프로그램 실행에 연구참여자 2인이 참여하며, 2차 프로그램 실행에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연구참여자와는 다른 연구참여자 2인이 참여한다.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선정한다. 성별은 구별하지 않으며, 글쓰기와 구술이 가능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연구공간은 000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추후 협의하여 진행한다.

3.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 개발 이론으로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행연구의 선구자인 Lewin은 당시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행연구를 제시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관찰과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실행한 후, 과정과 결과를 성찰함으로써 또 다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했다(한상희, 2013).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실행연구의 ‘나선형적’ 순환 과정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하며(이혁규, 2009), 나선형적 순환 과정을 기반으로 변형한 다양한 단계를 제시했다. 그 중 본 연구는 실천적 실행연구의 연구과정으로 Elliott(1991)가 제시한 흐름을 따른다.

- 1단계 : 문제 인식
- 2단계 : 문제 분석
- 3단계 : 계획
- 4단계 : 실행
- 5단계 : 효과분석
- 6단계 : 평가
- 7단계 : 계획 수정
- 8단계 : 재연구

실천적 실행연구의 문제 인식은 연구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조재식, 2002). 연구자는 평소 내러티브를 통한 인문융합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실생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를 경험하면서 내러티브를 통한 치료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혼자 역량만으로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왜곡은 혼자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문융합치료학 박사들과 연구 교수(노인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자발적 실행연구 모임을 통해 기획 과정에서의 문제상황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문제 인식이 명확해지면, 문제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분명히 인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문헌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계획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요인의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설계한 1차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수행 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해 1차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2차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과 반성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더 넓은 지평을 통해 다시 실행 및 반성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지속적 성장을 이끌며 순환된다(강지영 외, 2011). 재연구 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5. 자료수집 및 분석

3.5.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포토(photo)를 활용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실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포토(photo)란, 연구참여자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포함하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사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시 회기 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창의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포함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사진, 디지털 사진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에 따른 모든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실행연구에서 주로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는 관찰하기를 통한 자료와 발표, 회의, 면담을 통한 자료,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로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실행연구 수행에 있어 각 자료들을 모두 수집할 필요는 없으며, 너무 많은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수 있다(박창민, 조재성,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하기 위해 관찰하기를 통한 자료 수집과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한다. 관찰하기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눈으로 본 내용을 연구자가 설정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관찰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는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관찰하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현장기록’이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현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현장기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연구를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들에 대해 연구자의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오류와 편견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중요한 내러티브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로 활용될 수 없다. 현장기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적어 놓는 방법과 신속한 기록 작성 방법이 있다(박창민, 조재성, 2016). 신속한 기록 작성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구 과정 중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상황을 메모한다. 둘째, 아이디어, 관찰, 또는 통찰이 발생한 경우를 분류하여 따로 보관한다. 셋째, 연구 과정 중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뒷면이나 여백에 메모를 남긴다.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은 총체적인 연구자료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관찰하기의

‘현장기록’방법과 함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기본적으로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거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연구자는 면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면담질문지를 활용한다. 면담 질문지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짧은 단문 형태의 질문들로 작성한다. 면담을 하기 전에 준비한 질문들 외에도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변화나 정서를 반영해야 함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적 연구결과물들도 수집하였다.

3.5.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행과정을 연구자의 성찰일지로 기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녹취록은 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재차 읽고 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코드화하는 과정에서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Denzin과 Lilcoln(2011)이 제시하는 삼각검증을 사용한다. 삼각검증이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현상을 이해하여 해석의 오류를 줄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이경숙, 2015:7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집단 면담 자료, 개별 면담 자료,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지와 연구자의 성찰일지, 회기별 기록지, 관찰지, 전사록 등의 자료들을 사용한다. 이어 연구자가 통합으로 수집된 자료를 2명의 동료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연구자 1인의 편견과 왜곡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행과정 중 한 회기가 끝나면 수집된 자료들을 읽어가며 각 자료들을 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회기의 자료가 수집되면 하위 영역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3.6. 연구윤리

참 고 문 헌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숙, 임지향(2015). 사진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회상기능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2(1), 249-261.
- 김영순(2022). 질적연구와 문화기술지의 이해. 경기: 패러다임북.
- 김영순, 오영섭, 권요셉, 김진선, 지성용(2022). 호모 내러티브: 인문융합치료의 이해. 패러다임북.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1: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선(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인문융합치료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남향자, 박중규, 김정모(2011). 일반노인 대상 회상치료 프로그램의 자아통합 및 우울, 죽음불안의 개선효과. 한국노년학, 31(1), 49-61.
- 박봉수, 김영순(2018).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K씨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 한국민족문화 335-362.
- 박창민, 조재성(2016).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아카데미프레스.
- 박창민, 조재성(2016). "실행연구(Action Research): 패러다임들, 접근들, 그리고 학위논문쓰기."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 1-28.
- 보건복지부(2023). 2020 노인실태조사.
- 윤지현(2005). 개인 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 사기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15). 교사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한 가정과 교사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실행연구.
- 이은정(1997).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2016). 노인 독자의 문식 활동 입문으로서 그림책 독서 실행연구.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이지영, 김경화(2018). 노인 독자의 그림책 독서 실행연구: 문식 입문 수준 노인 독자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0.46 : 67-106.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재성(2020). 내러티브 면담에 관한 방법론적 탐구. 질적탐구, 6(1), 41-69.
- 여인숙, 김춘경(2006).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2(2), 79-104.
- 여인숙(2005).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 회상집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숙(1994). 노인의 심리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지지집단 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2). 2022 고령자 통계.
- 하양숙(1991).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혼합연구

문 희 진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연구대상을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첫째, 같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을 공유한다는 점과 둘째,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40.4%, 베트남 국적이 22.7%로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45).

연구자는 외국어 교육(foreign language teaching)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선 의사소통”이라는 Byram(2021: 12)의 지향점을 공유한다. 또한, 한국문화 교수·학습 상황 안에서 상호문화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정초하여 상호문화주의를 교수·학습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은 1990년대 초, “한국어 교육에 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탐구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윤여탁, 2000: 295).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에서 문화 항목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하여, 문화요소를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독립된 교육의 형태로 인정하면서 한국어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중섭, 2017: 194). 이후,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나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함께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0). 법무부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언어 문제’가 61.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9.9%, ‘학업 관련’이 8.5%,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 문제’가 5.7% 순으로 나타났다. 총 12개의 영역 중 상위 4개의 영역이 총 85%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 문화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업·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 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한국어 학습자가 습득한 문화 및 의사소통 기능이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연결되어 통합·확장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고 있다(김옥선, 2011; 문희진·김영순, 2022; 박시균 외, 2023; 윤영·손경애, 2016; 주현정, 2020). 이인혜(2023)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탈동기 요인은 “한국어로 인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이며, 재동기 요인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동료와의 협업 및 경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

어적인 문제와 함께 상이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란숙, 2017: 421-422). 그러므로, 한국어 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사회와 대학에서의 경험과 인식은 향후 자국에서 구전(口傳)되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민혜·최윤철, 2017: 368). 이들은 유학 과정을 마친 후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문화와 모국문화 사이에서의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가 될 수 있다. Bourdieu(1985) 사회학에서의 ‘문화매개자’란 대량 생산의 문화의 장에서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생산의 장에서도 창작자와 공중(公衆)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기구(機構)를 일컫는 말이다. 환언하면, ‘문화매개자’는 사회 내에서 문화의 생산을 지원하고 중간문화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이상길, 2010: 163).

환언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사회와 대학 내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한국인과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관점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경민, 2019: 15). “intercultural”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이문화, 간문화적, 문화간, 상호문화’ 등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상호(相互)문화’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 지식 습득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하고 있다(강재희·송현정, 2022: 105). 즉,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교육의 장(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을 지양하고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호 간의 낯섦과 이질감을 넘어선 공존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윤영, 2016: 38),

Mall(1995)은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철학의 출발점을 “문화들 사이의 소통과 이해”라고 하였으며, 상호문화소통은 “유비적(類比的, analogy) 해석학”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설파하였다(조해정, 2014: 518-523). Mall은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비적 해석학’을 제시하였다. ‘유비적 해석학’은 이미 현존하는 겹침들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증가시켜 가는 과정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문화 사이에서 보이는 겹침을 ‘확고부동한 교집합’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겹침은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언어와 종교가 같다면 겹침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넓혀갈 수도 있다. 따라서, ‘유비적 해석학’은 낯섦과의 거리를 좁혀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반대의 상황도 참이다. 이것이 상호문화철학이 생각하는 “이해”이다(주광순, 2015: 38-44).

“유비적 해석학”은 문화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며,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일부 영역에서 “겹침(중첩, Überlappung)”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겹침’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겹침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앎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한병옥, 2022: 94).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다층적 문화 겹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진가연 외

(2022: 237-238)에서는 ‘아기장수’ 화소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문화 간 ‘겹침’을 다층화한다는 점이 상호문화철학의 지향점에 더 가깝다고 본다”는 진가연 외(2022)의 논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와 철학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텍스트는 세계문학이다. 세계문학은 국민문학(Nationalliteratur)에 대응하는 말로, 작가의 개성이나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어와 국가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성을 추구하는 문학을 지칭한다(권오현, 2003: 1).

세계문학(Weltliteratur)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동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성진, 2015: 49-50).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층적 문화 겹침을 통해 문화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로 세계문학 중에서도 광포설화(廣布說話, Widely spread folktale)을 활용하고자 하며, Aarne-Thompson(AT, 1961)의 민간설화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광포 설화’이란 한국문학으로만 한정되어있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국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연대가 길고 오래된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이다. 또한, ‘AT’는 세계 각국의 민간설화를 2499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Antti Aarne(1910)가 개발하고, Stith Thompson(1961)이 완성한 설화분류체계이며, 『Types of the Folktale (민간설화 유형)』이라는 제목의 저서로 출판되었다(손은주, 2012: 299).

설화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구비 문학의 보편적·대표적 장르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가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류 공통의 흥미와 욕구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갈래이다(고화정 외, 2017: 272-302). 설화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민족의 원형적인 문화를 탐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상상력’의 공감대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어 형성되어진다(안미영, 2008: 113). 문학에서의 상상력은 상상의 원천이 언어를 통하여 구성되며, 언어로 표상된 대상에 대해 정서적 공명(共鳴)을 하게 됨으로써 상상적 체험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박선희, 2021: 26). 그러므로, 세계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야 말로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텍스트이다(한새해, 2019: 226).

한편,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권미경, 2021; 김선정·강현자, 2019; 김수현, 2005; 김영순 외, 2017; 김윤주, 2015; 김현권·허용, 1999; 박영순, 1989; 양민정, 2008; 오정미, 2012; 오지혜, 2023; 윤영, 2014; 이성희, 2013; 조옥이·박석준, 2011; 조항록, 2004; 튀르코쥬 픽셀, 2003)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전반적인 학습자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리, 2018: 189).

문화는 정적(靜的)이거나 정형화(定型化)되어 있기보다는 시대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국어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 주제의 편중, 협소한 문화 범주, 제한적인 연구 대상(교사 대상 연구 부진)” 등으로 수행되어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숙정, 2021: 305). 차숙정(2021)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문화교육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발표된 총 12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결과를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① 주제별 연구 동향은 ‘교수 방안’, ‘교육 자료’, ‘교육 내용’ 연구가 74.2%로 주제가 편중되어 있다. ②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문화 범주는 문학과 언어문화, 역사문화의 범주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③ 문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매개체로 시대와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여 사고할 수 있는 ‘광포 설화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광포 설화 텍스트에 내제된 한국문화와 자국문화의 ‘겹침’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낱말의 구성은 ‘inter(속, 사이, 상호)’라는 접두어가 “어떤 물건이 짜여져 있다는 것”에서 나온 ‘text(원문, 본문)’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만드는 어미” ‘ity’가 덧붙여져 만들어진 신조어다. 어휘의 의미로 생각하면 텍스트가 내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도남, 2003: 98). 이 연구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상호문화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다중 텍스트 읽기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장현정·장성민, 2022: 190).

학습자는 다중(한국, 중국, 베트남) 텍스트의 내적 해석을 통하여 텍스트 안에 담겨 있는 ‘문화의 역사’, ‘전통문화’, ‘문화적 가치’ 등의 요소를 발견하면서 자문화의 특성을 재인식하고, 외적 해석을 통하여 문화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천착을 통해 Audrey Nicholls와 Howard Nicholls(1978)의 교육 프로그램 모형인 ‘순환 모형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향적이고 고정된 한국 문화 지식을 전달하거나 일회성 체험과 같은 ‘보여주기식 수업’에 머물러 있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문화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이전 단계에서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와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천착을 통하여 한국어 문화교육의 구성요소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맥락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을 반복하면서 체계적인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상호문화역량(Cultural Intelligence Scale: CQS) 신장을 의도하는 한국어 문화교육으로써, 그 효과를 Mores(1991)의 ‘양적→질적 순차적 설계’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상호문화 의사소통’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인적, 지식적, 인식적 및 태도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구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과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장된다(Byram, 2021: 5).

연구자는 현재 한국어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문화교육의 적용성 및 전이성이 용이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적 접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수·학습 설계를 연구의 기본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어 문화교육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은 상호문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상호문화 역량 변화는 대조집단, 통제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참여경험은 어떠한가?

2-1.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2. 광포 설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학습 경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의미화하였는가?

참 고 문 헌

- 강관숙(2017).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발표 연습 도구로 Voicethread 활용에 관한 교수·학습 사례 연구. *문화와융합*, 39(5), 421-446.
- 강재희, 송현정(2022). KSL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수업 방안. *교육과학연구*, 24(2), 99-118.
- 고경민(2019). 상호문화교육과 스토리텔링.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7, 15-34.
- 고화정, 서유경, 송미경, 송혁기, 이민희, 이성환, 이현일, 이호승, 전길운, 정지영, 최광석, 최윤영, 하운섭, 이민희, 이호승, 고화정, 하운섭, 송미경(2017).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창비교육.
- 권미경(2021). 유학생의 문화인식과 한국문화 학습에 관한 연구: 중국 국적 유학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1), 247-258.
- 권오현(2003). 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 -현황 및 제안. *헤세연구*, 10, 1-14.
- 김선정, 강현자(2019).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857-876.
- 김성진(2015). 문학교육, 세계를 생각하다: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35-58.
- 김수현(2005).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구성의 방향. *한국어 교육*, 16(2), 25-44.
- 김영순, 안경화, 원미진, 오장근, 윤영(2017). 학습자 변인과 한국어·문화 교육. *언어와 문화* 13(2), 217-234.
- 김옥선(2011).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의 내용과 평가: 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8, 5-29.
- 김윤주(2015).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상호문화교육 모형에 기반하여. *漢城語文學*, 34, 295-318.
- 김중섭, 김정숙, 이정희, 김지혜, 박나리, 박진옥, 이수미, 강현자, 장미정, 홍혜란(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현권, 허용(1999). 원격교육을 통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 교사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0(1), 83-107.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2020).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문희진, 김영순. (202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학습생애사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5), 103-129.
- 박시균, 이창용, 김민정(2023). 지방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18, 1-19.
- 양민정(2008).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4), 307-331.
- 오정미(2012). 문화적응을 적용한 문화교육 수업 사례 연구: K 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49), 69-92.
- 오지혜(2023). 한국어 교육에서 시 텍스트의 문화적 해석에 관한 고찰 : 시와 그림 간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1), 321-339.
- 유리(2018). 세계 시민 교육 관점의 문학교육 방향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9(3), 187-212.

- 윤여탁(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1), 291-308.
- 윤여탁(2011).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7(3), 163-181.
- 윤여탁(2020). 포스트 휴먼 시대의 한국어교육: 그 현재와 미래. 국어교육연구, 46, 283-306.
- 윤영(2014).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방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208-244.
- 윤영, 손경애(2016).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12(3), 123-154.
- 이상길(2010). 문화매개자 개념의 비판적 재검토: 매스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52(4), 154-176.
- 이성희(2013). '화성인류학자'를 활용한 예비 한국어 교사의 상호 문화 능력 교육 방안: '정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2), 225-246.
- 이인혜(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변화 추이와 탈동기·재동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8, 135-162.
- 장현정, 장성민(2022).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 다문화 교육의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 "콩쥐팍쥐"와 "신데렐라" 간 비교 활동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62, 187-208.
- 조옥이, 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 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217-238.
-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試論). 한국언어문화학, 1(1), 199-219.
- 조해정(2014). 말(Ram Adhar Mall)의 상호문화적 해석학과 문화적 증첩. 범한철학, 74, 501-531.
- 주광순(2015). Mall의 유비적 해석학과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철학연구, 109, 27-49.
- 주현정(2020). 한국어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14(1), 103-131.
- 진가연, 왕임창, 황티장(2022). 다자적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방안 고찰: 한국〈아기장수〉, 중국〈나타요해(哪吒鬧海)〉, 베트남〈타잉짱(Thánh Gióng-扶董天王)〉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8, 229-266.
- 튀르코쥬 픽셀(2003).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國語教育學研究, 16, 5-38.
-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간추린 교육통계.
- 한새해(2019).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향상을 위한 설화의 비교문학적 활용 방안: 서강대학교 〈한국어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3, 207-232.
- Byram, M.(2021),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 revisited (2nd ed.), Multilingual Matters.